

혜국 스님(금봉선원장)
'약한 빈대' 대하듯
북한을 사랑하라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15일) · 주간

제1072호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조계종 법인관리법 근간 흔들리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종단 관련 법인들을 관리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 의 운영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법인 권한 침해 금지 조항의 단서 조항 삽입이 일선 법인들의 의견 조율 없이 개정됐고,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제한 조치는 다시 유예됐다. 법인 관리 행정의 법 질서를 스스로 지키지 않아 원칙 없이 표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은 11월 16일로 일부 개정한 법인관리법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제204차 중앙종회 정기회서 통과된 법이다. 하지만 개정법 일부 사안에 법인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권한 침해 금지' 를 골자로 한 제6조다. '필요에 따라 종단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이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종단의 침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종단에 등록한 A법인의 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필요에 따라' 의 문구는 매우 광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법인 권한 침해 금지 조항에 단서를 다는 것은 종단과 법인 간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조의 단서조항 삽입은 일선 법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후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인관리법 제24조 2항에는 '총무부장은 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해 현재 조계종 총무부는 사찰 법인, 사찰보유법인 등 부문별 대표 법인 9곳을

6조 단서조항 개정 논란
법인 권한 침해 우려 제기
法 개정시 협의 명시해도
협의기구 회의 한번도 없어
선학원 권리제한 해제 조치
法 형평성 · 절차 모두 어긋나

선별해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의기구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총무부 관계자는 "총무원 자체 발의가 아닌 중앙종회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이뤄진 것이어서 협의 기구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법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며 총무원 발의를 통한 법 개정이라면 마땅히 협의기구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법인 소속 사찰의 불사 인허가 등에 조계종 소속 사찰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종단서 이를 증명할 서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단 합의' 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이런 주장에도 여전히 법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는다. 의원 입법 발의의 경우 협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아 법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이다. 애써 구성된 협의기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가 총무원-법인-중앙종회 삼자간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종회의원 스님은 "이번에 개정한 법인관리법은 총무원에서 위원회에 입법 청원한 것을 취합 · 심사해 위원회가 발의한 것"이라면서 "현재 지적한 단서조항의 미비점이 나타나면 총무원이나 중앙종회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이 11월 17일 공고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 도 법인관리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계종은 권리제한 해제 공고에서 △승려복지 혜택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종단 장학 혜택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예함을 밝혔다.

사실 이 같은 공고는 초법적인 조치로 종법 질서는 물론 법인 간 형평성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인 관련 변호사는 "조계종과 선학원과의 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조치였다면 지난 종회서 한시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나오면 미등록 법인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유예 조치를 종령으로 정한다고 해도 종법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은 조계종 관련 법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먼저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제재 조치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자는 것이다. 법에 묶여서 선학원을 놓칠 수 없다. 어떤 것이 종단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군법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교구본사, 군포교 1:1 지원 나선다

조계종 본사주지협, 16일 지역 상급부대와 자매결연

예하부대 포함 군법당에
불사 지원 · 위문 등 추진

국가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신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해 전국 교구본사가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는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군법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회의에는 교구본사주지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교구본사는 지역에 위치한 사령부 및 군사학교 등의 상급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예하부대를 포함한 군법당에 불사 및 주요 법회 · 위문품 보내기 · 장병 위문 등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각 군법당은 지역사찰 현안 사항 유기적 협조 및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석 · 군악대 지원 등을 하게 된다.

회의에서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종교구에서 핫팩 전달 및 GOP · GP 근무자를 위한 북카페 조성, 자장면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면 군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서 서명 이후 회장 우송 스님과 차기회장 정념 스님은 "본사가 앞장서 군포교에 힘쓰자"며 각 본사 주지스님들에게 군불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 차기 집행부로는 수석부회장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차석 부회장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총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재무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선임됐다.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26일 해남 대흥사에서 개최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 중단돼야"

불교계, 파리 연쇄 테러 희생자 애도 잇달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에 대해 애도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1월 16일 대변인 일감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논평문을 통해 파리 테러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기원하고 테러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논평문에서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은 "테러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인류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공동체이다. 내가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평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륜적인 테러와 폭력,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공존으로 차별과 배타를 존중과 상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태종은 11월 16일 종단 대변인 월도 스님(총무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파리 연쇄 테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천태종은 "지구촌 평화와 행복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류가 함께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지켜야 한다"강조하면서 "반인륜적 테러 규탄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50만 종도의 마음을 모아 추모 촛불을 밝힌다"고 말했다.

법보종찰 해인사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한 총무국장 법연 스님, 재무국장 도현 스님, 호법국장 본오 스님은 11월 16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방문해 파비앙 페논 대사에게 테러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향적 스님은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 베에르-끼-비에서의 수행인연으로 각별히 여기는 프랑스여서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뜻을, 부상자에게는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무산 스님 선출

원로회의 11월 16일 회의서 만장일치 결의

청담문도회장 혜성 스님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도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종립 기본선원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선출됐다.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고산 스님의 후임에 무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무산 스님은 지난 11월 5일 중앙종회 제204차 정기회에서 차기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바 있다.

무산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직지사에서 성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 · 11대 중앙종회의원과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계림사, 해운사,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신흥사 조실이자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청담문도회장 혜성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산 오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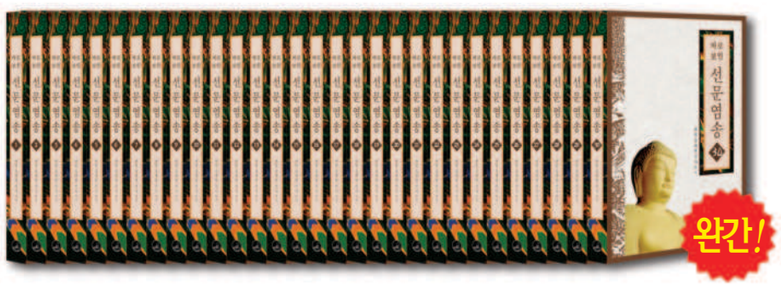


혜성 스님

혜성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조계사에서 청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3 · 4 · 5 · 9 · 10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도선사, 호국지장사,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

“‘일하는 비구니회’ 만들겠습니다”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 봉행

비구니 위상 강화 등 기대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으로 육문 스님이 취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육문 스님은 선거 공약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일하는 비구니회’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천명했다.

육문 스님은 “그간 비구니회는 회관 건립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지 못한 점, 아직도 열악한 비구니 위상 등 반성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면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승가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을 안고 오늘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약집에서 ‘일하는 비구니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듯이 11대 비구니회 집행부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회칙을 제·개정하는 일에서부터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약 내용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외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대승적 삶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회장 스님을 중심으로 능동적 활동을 통해 비구니 승가 역량 강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 법회에는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선학원 탈종 시도에 대한 성토와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전국비구니회 임원진들이 결의한 결의문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가장 왼쪽이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동국대 이사장 12월 19일 이전 선출

일면 스님 이사 연임, 직접 이사장 선출 연기 제안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의 이사 연임이 결정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11월 14일 은석초등학교에서 296차 이사회를 열고 일면, 성타, 수불, 보광 스님을 이사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사장 선출건은 폐기됐으며 12월 19일 안으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선출하기로 했다.

일면 스님은 일면 스님, 성타 스님은 성타 스님, 수불 스님은 심경 스님, 보광 스님은 미산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사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면 스님은 이사 선임 후 이사장 선출의 건을 미루자고 제안했으며 안건은 폐기됐다. 폐기 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차 이사회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개최 등으로 폐기 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현 이사장 임기는 일면 스님의 현 이사직 임기인 12월 19일까지로 동국대 이사회는 이 이전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 예정인 이사 삼보 스님(12월 19일 만료 예정, 월정사)과 명신 스님(임기 만료, 통도사)의 후임은 각 교구본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차후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제적이사 11명 중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안채란 이사 외 일면, 심경, 미산, 성타, 삼보, 지홍, 호성 스님, 이연택, 김선근, 김기유 이사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韓 전통산사, 적극적인 가치 개발 필요”

등재추진위, 11월 20일 2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1월 20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불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한국의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교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사례를 제시하고 한국의 전통산사가 지닌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 “1600년 역사의 독보적인 유산”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의 전통산사는 오랜역사를 이어온 종교와 문화의 전당”이라고 한국산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정 교수는 “한국산사는 15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유래를 갖고 있으며 사원구성의 큰 틀을 잃지 않고 유지계승 돼 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역사성을 계승한 사찰은 부석사와 봉정사로 이들 사찰은 7세기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수행과 신앙의 종교적 기능성이 살아있음을 한국산사 만의 특성으로 제시했다. 선암사와 통도사는 진신사리 신앙과 계단의 계율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한국산사 대부분이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중국 “예산 투입이 사회적 이익으로”

구호레이 중국 정저우시 문화유산국 부국장은 ‘불교유산의 보호와 관리-소림사를 중심으로;에서 소림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예산지원을 예로 들었다. 구호레이 부국장은 한국 산사 또한 정부예산이 투입될 시 국민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국장은 “소림사의 경우 정부 예산 투입으로 무술기록, 서예 및 회화 수집 등의 확보와 호텔 및 식당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자원이 됐으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태국·중국 등 문화재 전문가 참여
각국 세계유산 개발·보존 현황 소개
자승 스님 “세계유산 주춧돌 되길”

미얀마 “도시 확장 대비해 계획 세워야”

수수 미얀마 만달레이 기술대 교수는 ‘도시확장을 제한하는 방법’ 발제에서 최근 세계유산에 등재된 미얀마 고대도시 스리크세트라를 예로 들며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계획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수 교수는 “미얀마의 경우 피이도시개발계획이 마련됐고, 퓨 고대도시 조정위를 설립했다. 관광자원화에 따른 교통발달과 도시확장으로 결국 유산 가치가 손상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태국 “무형적 문화유산도 등재 대상”

바수 포샨안다나 태국 이코모스태국위 사무총장은 ‘태국의 세계불교유산’ 발표에서 현재도 남방불교 신행활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태국의 세계유산이 오히려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바수 사무총장은 “부처의 유골을 봉안했다고 여겨지는 왓 프라 보롬마탓 나콘 시 탐미랏 사리탑은 불교신앙의 중심지로 지속 보존관리돼고 축제도 매년 열린다. 이 같은 유무형 가치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한국역사 속의 불교문화의 위상’, 노부코 이나바 쓰쿠바대 교수의 ‘일본의 세계불교유산’, 트란 딘 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의 ‘옌뚜 경관지구 세계유산 등재 준비’ 등이 발표됐다.

한편, 2011년부터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전통산사는 법주사와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이며 이들 산사는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018년 등재를 목표로 연구와 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서 추진위원장 자승 스님은 “산사는 수행과 신행의 공간이자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시는 곳”이라며 “이날의 자리가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 위원장 피신, 지혜로운 해결 모색”

조계종 화쟁위 입장 발표… 중재 요청엔 유보적 태도

“12월 초 퇴거 요청 사실아냐”
보수단체 반대 시위도 이어져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이번 사태 당사자들을 만나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현재 수배중인 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10시 30분 경 조계사 경내로 진입한 후, 18일 조계사 및 화쟁위원회에 신변보호와 중재를 공식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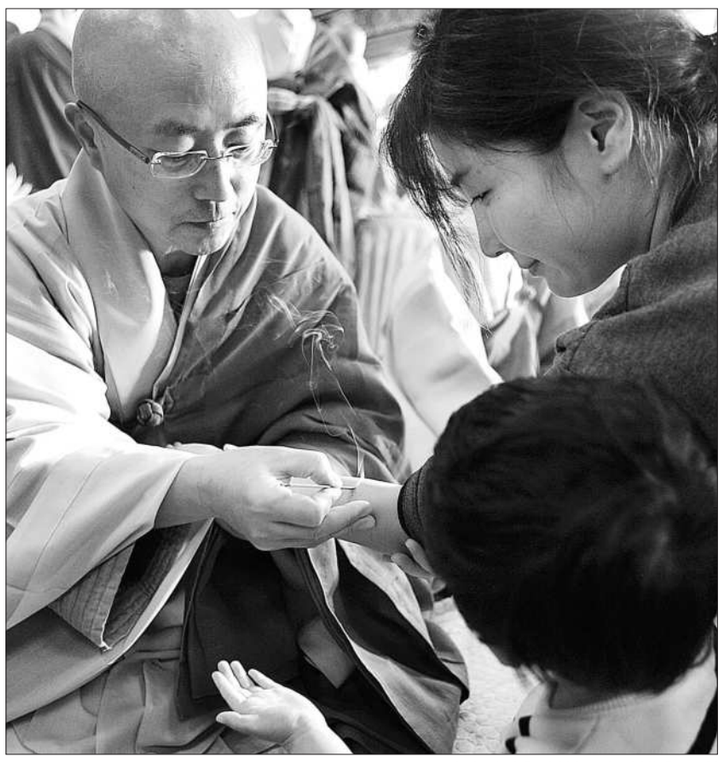
이에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11월 19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 및 중재요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쟁위는 “구체적인 한 위원장의 요청 내용과 각계각층의 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가며 당사자 및 정부 등 모두를 위하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여러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조계사와 신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및 중재요청’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화쟁위는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나 한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현재 화쟁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조계사가 한 위원장 측에 12월 초까지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한 위원장의 조계사 거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계사 일대에는 한 위원장을 쫓아내라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7개 단체는 17일과 19일 2차례 걸쳐 “조계사와 조계종이 한 위원장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범죄은닉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불교계 단체들은 “한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은 불교 본연의 역할”이라고 맞선 상태다.

한편, 한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이 밝혀짐에 따라 일대에는 경찰들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수배령을 내렸다. 박아름 기자



“관법수행 통해 부처님 같이 살겠습니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5일 제 27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한마음선원 지원서 모인 5천여 신도들은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대행 스님의 영상 법문 시청 후, 수계자들은 삼보를 청하는 청송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수계를 증명할 것을 청하고 주지 혜원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또한 부산지원 설영수 보살은 수계발원문을 낭독 했으며, 광명선원 이영환 거사는 수계자 대표로 수계첩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총 4천 560명이 수계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5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본격 'START'

16일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 불사 시작 선언

원로 · 본사 주지 등 500명 참석
자승 스님 "힘찬 발걸음 시작"
중앙기관 강남 포교원 이전 등
총본산 성역화 불사 계획 발표
한마음선원 5억 원 기금 약정



이날 행사에서는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모연 약정이 이어졌다. 한마음선원도 5억원의 모연을 약정했다. 사진은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약정을 체결하는 모습.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1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연꽃의 맑은 향기가 연못을 정화하듯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정화하는 금향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한국의 불교문화를 널리 선양하게 되고, 개인은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연이 되고 세계는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전법도장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모연은 벽돌 하나가 모여 전탑이 되고, 기와 한 장이 모여 큰 전각이 되듯이 불자는 마땅히 서로서로 권선하고 모연에 동참하여 조계성역을 이뤄내자"고 사부대중에게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역화 불사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자승 스님은 "이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선언한다"면서 "총본산 성역화는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몸을 던졌던 호국불교와 정화불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역화 불사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총본산이 성역화 됨으로써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조화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되며 광화문, 경복궁, 북촌,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수도 서울의 중심 문화벨트로 거듭날 것"이라며 "10.27법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정화기념관을 건립해 불교 정화불사의 의지를 되새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수닷타 장자"라면서 "여러분의 원력과 발심이라면 이 대작불사는 반드시 원만 회향할 것"이라며 불사 참여를 독려했다.

내외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조계사를 한국불교의 총본산에 걸맞는 역사문화사찰로 성역화하는 이번 불사는 현대 한국불교사의 가장 뜻깊은 대작불사"라고 강조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과 조계사 등을 잇는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벨트가 완성돼 한국 전통문화 발전에 큰 도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이날 모연의 밤 행사에서는 총본사성역화불사 총도감 지현 스님이 불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 불사 회향은 2025년 12월에 이뤄지며 1차 부지들을 매입해 2017년 1월 기공식을 통해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사 일대의 혁신이 이뤄질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이 이뤄진다. 또한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체결해 역사문화지구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게 된다.

이에 1단계 사업으로 10 · 27법난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알리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10 · 27법난기념관' 2개동을 건립한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불자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관과 아케이드,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전통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3단계 사업으로는 봉은사에 호국불교기념관 건립하는 것이다. 이는 종단 종무행정의 중심인 총무원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불교중앙박물관, 중앙신도회, 포교신행단체들이 입주해 본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호국불교기념관은 전통건축양식을 도입해 건립되며, 향후 중앙종무기관 협의와 공청회 원로회의 · 종정 스님 보고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약정… 모연 활발

이날 행사에서는 성역화 불사 기금 모연도 이어졌다. 조계사는 모연 약정금 100억원 중 16억 5000만원을,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약정금 5억원 중 5000만원을 납부했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3억원을,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8억원을,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5억원을, 봉은사는 30억원을, 한마음선원은 5억원을 각각 약정했다.

이밖에도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 등이 금일봉을, 일선 사찰과 스님, 포교단체 등도 불사금을 약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7억 여원이 모연돼 현재(19일) 118억여원의 기금이 약정 모연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14일 가을학술세미나

불교상담개발원이 가을 학술세미나를 열고 불교상담의 실제적 적용을 진단했다. 신임 원장 도성 스님의 취임식과 더불어 상담개발원의 새 원년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성, 이하 상담개발원)은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5 가을 학술세미나 및 상담개발원장 이 ·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대행 송묵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 (사)천수천안 이사장 대오 스님, 곽명희 포교사단장, 이근후 상담개발원 초대원장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상담의 실제적 활용'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윤호균 가톨릭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맡았다. 윤 교수는 불교적 성찰과 상담의 특성을 접목해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 존재에 대해 각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내담자의 증상이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그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가능성 · 능력 · 성품 등 알아차리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보살이 연민의 마음으로 이웃의 미망을 깨치려 애쓰듯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의지를 믿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믿음, 수용, 공감, 깨어있기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과 전현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의 주제발제가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받는 행복은 일시적,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조계종 11월 16일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제27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더욱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포교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수여하는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성운 스님은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받는 행복은 일시적으로 만약 받는 것이 없으면 갈애와 갈증을 느끼고 이 미움과 분노가 업의 수레바퀴로 바뀌게 된다. 주는 행복을 통해 진정한 불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 김기병 포교사단 초대단장, 한복순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완도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 산청 금수암 주지 대안 스님, 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백거 스님,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박경숙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장, 홍성란 포교사단 전문포교사, 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환경운동, 사찰음식, 문화재, 새터민 포교 등 포교의 영역도 구체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다"며 "이렇듯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통해 현시대의 삶에 담긴 고통을 해소하고 21세기 한국사회의 갈등과 화합을 도모하는 기재로 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포교 대상을 시상하는 오늘 자리는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법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하셨듯, 오늘 모인 불자들이 원력과 성심을 다해 함께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월탄, 암도 스님과 종단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기사 5면〉

"한일 템플스테이, 청소년 교류기회 갖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 13일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봉행

한일 양국 불교계가 청소년 포교에 힘을 모은다. 한 · 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4일 화성 용주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들이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제36차 한일불교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계의 공통문제인 청소년 신도 이탈에 대한 대응과 '일베', '넷우익' 등 양국 청소년 사이에 퍼져있는 극우주의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한일양국 불교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한일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비롯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사찰간 청소년 교류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후지타 류죠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은 청소년 따돌림과 자살 등을 방지하는데 양국불교계가 힘쓰자고 화답했다.

후지타 류죠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은 "세계적으로 종교이탈이 화제가 되는 시기"라며 "청소년기에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 따돌림과 자살, 흉악범죄의 저연령화를 막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 "전임회장인 미야바시 쇼겐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이 단단한 유대 하에 걸음을 맞춰나가자"고 당부했다.

양국 불교계 대표들의 축사에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 부회장 홍파 스님의 축원문과 일한불교교류협 부회장 시바타 테츠켄 부회장의 표백문 낭독, 한일불교문화교류협 부회장 춘광 스님, 전일본불교회 카토 세이치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한편,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1월 12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용주사에서의 세계평화기원법회,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주제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또 교류 확대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산지 개발'로 죽어간 생명들을 추모하다

불교사회연구소 법응 스님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심(心)청정 국토청정 발원 천도재'를 봉행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천도재에는 불교생명윤리협회(집행위원장 법현), 조계사 등 불교계 단체 및 사찰들이 동참한다.

이와 관련 법응 스님은 11월 17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청정국토청정발원천도재 봉행단'을 발대했다. 법응 스님은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대대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응 스님은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홍보용 등산 컵' 5백개를 2차로 제작, 30일 천도재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 1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 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 이 시대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최고의 인재 양성 과정 제1기



교수진 :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박청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동국대 안상호박사, 원광대 김민재박사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모집기간 11월 15일(월) ~ 12월 15일(화)까지 모집인원 40명(지원 우선순위 마감)
일 정 1학기 과정, 子月 12월 21일부터 매주 월(月) 18:30 ~ 21:30 / 수강료 22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소정의 절차 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수강료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평생일반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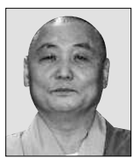
조계종 사업본부장 임명

각운 대구 대견사 주지 스님은 11월 16일 조계종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스님은 총무원 재정국장, 수익사업 총괄 특보 등을 역임했다.



대한서화예술전 대상 수상

장진 양산 보각사 회주 스님은 10월 21일 대한서화예술협회가 주최한 제18회 대한서화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추대

남산 태고사 주지 스님은 11월 10일 대전불교사암연합회가 개최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4대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은 11월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응철·김경집·손석춘 교수 전법상 수상



김응철



김경집



손석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 스님)이 실시한 제4회 전법학술상 공모에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김경집 진각대 교수, 손석춘 건국대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광연구원은 불교학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한 결과 김응철 교수의 '전법교화학 정립을 위한 연구방법론 모색' 이 대상인 바라밀상을, 김경집 교수의 '일제하 30본산의 평양 포교' 와 손석춘 교수의 '전법교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언' 은 우수상인 전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법학술상 시상식과 수상논문 발표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열리며, 상금은 바라밀상 500만원, 전법상은 각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바라밀상을 받은 김응철 교수는 논문에서 전법학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했다. 또 전법교화의 개념정리를 비롯해 경전에 충실한 문헌연구를 통해 전법교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전법교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법학술상의 취지와 부합하는 논문으로 평가받았다. **노덕현 기자**

화촉 공훈배 여래기획 대표 장남

공훈배 여래기획 대표의 장남 공종후 군이 11월 29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43에 위치한 웨딩부띠끄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신부 박정선양과 화촉을 밝힌다. (010)6260-8055

"자비행 실천, 불자로서 도리"

조승섭 경제인불자연합회 신임회장 11월 18일 취임법회

"1992년 대학 선배의 권유로 조계사에서 무진장 큰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며 불교와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 만해도 계속 절에 다닐 것이라 생각지 못했는데 벌써 만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불법(佛法)의 인연이 참 신기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경제인불자연합회(이하 경불연) 창립법회' 에서 조승섭 경불연 신임회장을 만났다. 현재 한화엘리베이터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 회장은 1992년 불교에 입문하며 무진장 스님에게 '백운(白雲)' 이란 법명을 받았다. 이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함께 미얀마 · 캄보디아 등 해외봉사에 참여하며, 경제인불자로서 자비행을 펼쳐왔다.

"인신난득 불법난봉(人身難得 佛法難逢)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이 귀중한 인연을 맺었으니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행(行)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92년, 무진장 스님에 법명 받아
미얀마 · 캄보디아 등 해외봉사
베트남 다문화가정 지원 '역점'

이처럼 조 회장은 평소 불자로서 행(行)을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이라도 하듯 앞으로 경불연을 이끌어갈 조 회장의 포부는 그늘진 곳에 부처님 빛을 들게 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나누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조 회장은 설명한다.

이에 경불연은 베트남인들을 위한 교육 및 의료 등 복리후생 사업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구체적 과제로 삼았다. 베트남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주1회 조계사 세미나실에서 개설하고, 자녀들을 위한 학용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특히 '경제인불자' 답게 경불연 회원사에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주부를 위한 취업도 알선할 계획이다.

사실 경불연은 2010년 창립됐으나 활동저조로 인해 2013년 해산했다. 그렇기에 새출발을 맞는 조 회장의 다짐도 남다르다. "부처님 법을 올바로 알아야만 올바른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리 공부, 성지 순례, 복지시설 봉사 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불연 교리공부는 매월 첫 주 조계사 세미나실에서 지도 법사와 함께 법문 강의, 교양세미나 등 실시된다. 한편, 경불연은 조계종 경제인불자단체로서 11월 18일 공식 창립했다. 현재 2백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조승섭 경불연 회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 공군전우회 중앙회 부회장, 항공과학고 총동창회장 등 역임했다. 현재 한화엘리베이터주식회사 대표이사, 남명학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재가불자들 공부열기 확산시킬 터"

'중국불교' 대중강좌 여는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재가불자들의 공부 열기 확산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대중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강좌가 마무리 되면 성지순례와 청소년을 위한 강좌 등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2600년 불교, 대중강좌로 이해하는 길' 을 주제로 강좌를 개설해온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 · 사진)이 12월 4일부터 '중국불교' 를 주제로 대중강좌를 시작한다. 강좌 '중국불교' 는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 선운당에서 열린다.

엄 이사장은 "재가불자들을 고려해 수업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하며 재가자들과 스님이 강사로 나서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부터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종고 선사와 문화혁명의 역경을 이겨 낸 조박초 불교회장까지 총 12회에 걸쳐 중국불교를 조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엄 이사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좌로 계속 구성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봄에는 3차강좌로 한국불교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온고지신 마음으로 경남포교사단 도약을"

제9대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김위영 단장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화합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제9대 김위영(57)단장〈사진〉이 새롭게 선출됐다. 김위영 신임 단장은 임기 기간 동안 화합을 목표로 심기일전 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은 단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김위영 감사는 참석 운영위원 26명 가운데 과반이념는 17표를 얻어 단장으로 선출됐다.

김위영 단장은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포교사님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포교사 개인의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제시한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공약으로 △지역총괄팀장 팀운영 권한 및 책임부여 △활동방법 정립용 활동지침서 제작 △팀활동 전문성 향상 위한 부단장 제도 도입 △신심고취, 상호이해 증진, 화합위한 팀별 1박2일 템플스테이 등을 제시했다.



김위영 단장은 현재 경남지역단 감사이며 경남불교대 5기, 포교사 11기, 전문포교사 7기를 품수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 간이다. **하성미 기자**

나주 수덕사 사찰 창건법회



나주 수덕사(주지 유찬)는 11월 15일 사찰 창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영조 스님(전 송광사 주지), 성호 스님(휴휴암 암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증현 스님(만경사 주지)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유찬 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사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각평 스님 '아이연탄맨' 에 100만원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각평 스님이 11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쪽방촌 연탄지원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 '아이연탄맨' 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각평 스님은 "사회부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하며 앞장서야 하는 부서이기에 기부에 동참했다"며 "사회부를 시작으로 다른 부서들도 연탄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 추운 겨울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기금을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재안 스님, 부안군에 장학금 전달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11월 12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사장 김종규)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재안 스님은 "부안은 예로부터 많은 문인이 배출된 학문의 고장"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에 힘입어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 지역의 많은 인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 개암사 주지로 부임한 재안스님은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포교대상 대상 수상한 삼천사 성운 스님

“이 시대 불자 사명은 ‘맞춤형 포교’ 영아보육원·지역민 쉼터 새 발원”

불교 포교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불자에게 수여되는 제27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에 불교사회복지의 선구자로 활동해온 성운 스님이 수상했다. 부처님 자비를 묵묵히 실천해온 성운 스님을 11월 18일 스님의 주석처 서울 삼천사에서 만나 수상 소감과 또 다른 서원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온 삼천사 성운 스님(인덕원 이사장)은 ‘주는 행복’으로 갈애에서 벗어나 비움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불교계가 노인복지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미혼모 · 영유아 · 청소년 복지에 나서자고 말했다.

스님께서는 많은 상을 받아오셨지만 포교대상 수상이 더욱 특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

출가수행자는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표창, 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 국민훈장, 만해대상 등을 받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수상의 순간 문득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참회하였습니다.

이번 포교대상을 수상하며 저는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끝까지 더욱 활발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을 전법포교 현장에서 보살로 나투라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가짐을 진지하고도, 겸허하게 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포교대상은 불교계 안에서 제가 걸어온 길을 찬탄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벅찬 환희심이 났습니다. 사실 수행자가 포교활동을 하면 칭찬보다 질책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불교계 내에 서로가 칭찬하는 분위기가 확대돼 더욱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스님께서는 ‘받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이 같은 ‘주는 행복’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인데 이 낙(樂)은 산스크리트어로 ‘sukha’이며 즉, 행복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지요. 그런데 어떤 행복일까요.

갈애(渴愛)가 없는 행복입니다. 갈애는 행복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까요. 나 아닌 다른 대상에서 행복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받다가 못 받으면 행복이 사라지고 갈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면 행복은 계속 됩니다. 주는 것으로 인해 완전한 ‘비움’을 깨닫고, 그 비움 속에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직장인이라면 그 사람의 직장 업무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고, 가정주부라면 가사를 하면서도 마음을 비워 자비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요. 잠시의 비움을 통한 행복을 맛본다면 결국에는 보다 큰 비움을 통한 행복으로 가게 됩니다. 현대의 포교가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는 행복’은 결국 비움으로 가는 수행이군요.

그렇습니다. 불자들이라면 잠깐이라도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원을 세우고 자신을 비우면 실천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자비나눔도 수행에 근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지요.

이런 실천행은 비단 물질적 나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한 동작에서도 발현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광활한 비움의 여백이 있지만 그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의 큰 여백을 봤으면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비움으로 영원한 행복을 갖게 함을 알려줍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비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대 사회복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어떻게 주는 행복과 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에 따른 고해에 빠져 있습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은 생존이, 물질적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자아존

‘받는 행복’ 일시적… 갈애의 원인
‘주는 행복’ 비움 깨닫는 수행
팔만사천 번뇌에 ‘맞춤형’ 포교를
삼천사를 현대의 삼보사찰로
시민선방 · 불교도서관 운영
영아원 · 미혼모 · 청소년 복지도

엄성이 훼손당한 이들에게는 자아존중이 필요하겠지요. 진정한 복지는 부처님 법을 다양한 그릇에 담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전이 8만4000가지인 것처럼 포교와 복지의 방편도 8만4000가지는 돼야지요. 근로자, 노동자 등등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 맞는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명상과 힐링 등을 통해 그 현장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도 ‘주는 행복’입니다.

스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시고 현재 30여 복지시설에서 700여 종사자들과 함께 ‘주는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이 같은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주석하고 있는 삼천사가 위치한 은평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철거민들이 떠밀려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죠. 8명의 식구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고 아이들은 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복지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들을 보살피는데 바빴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혹여 소년원에 가게 되면 소년원에 가서 보살피고, 또 아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군부대도 위문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방면에서 포교를 하게 됐습니다.

전환점은 1985년이었습니다. 총무원 사회부장 시절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가 국가예산으로 복지재정의 90%를 충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세상이 다있구나 했죠.

10여 년 동안 법인을 만들기 위해 원(願)을 세우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이 인(因)이 되어 연(緣)을 끌어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연기법을 본 것입니다. 인이 선이면 선이 오고, 악이면 악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재앙을, 복을 불러오는 것이구나…내 안의 업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내 인으로 인해 수많은 무량보배가 또아리치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옛 선지식이 시장바닥에서 상인이 면목없다는 것을 보고 본래면목을 깨쳤다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복지활동을 하며 다양한 이들을 보니 이들이 나의 수행에 선생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이들을 만나면 내안에도 비슷한 악이 있음을 보게 되고, 이들을 제도하면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제도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복지가 수행이기에 수행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복지 수요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불교계도 복지활동에 변화를 추구해야 할 텐데요. 스님은 불교계의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의 복지는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서 모든 복지를 소화했죠.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인과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불교계가 노인복지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를 비롯해, 장애인, 미혼모, 영유아 복지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1년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3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양특례법이 새로 만들어져 미혼모의 앞으로 호적을 올리게 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부모의 보살핌이 힘든 아이를 보육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양육권만 포기하면 어느 기관에서 어디서 보육하는지까지 정보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원에 관한 법은 사회복지법과 다릅니다. 시설을 지어 1년 이상 운영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25개 침상을 보유한 녹번역 인근 노인요양원을 개조하여 영유아 보육원으로 개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 불교계를 비롯해 전국의 복지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한 영유아 분야도 앞장서서 개척해나가고 싶고 이번 상을 수상하며 그 발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스님의 복지원력을 뒷받침하는 삼천사도 새롭게 불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원효 대사가 창건한 삼천사를 중창해 현재에 이르게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삼천사는 어떻게 변모할지 말씀해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원은 삼천사를 삼보사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천사 경내에는 1988년 미얀마에서 이운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있습니다. 불보사찰에 사부대중이 수행할 수 있는 시민선방과 힐링센터 등을 세워 승보사찰의 기능을 하고, 또 불교도서관을 세워 법보사찰의 역할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탈하는 청소년들과 가정불화로 인해 오갈 곳이 없는 현대인들이 머무르는 곳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산사에서 머물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설도 세우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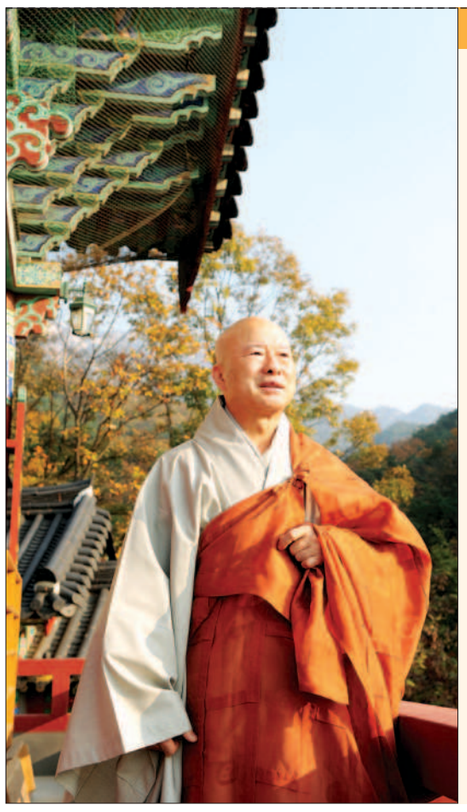
즉 삼천사를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곳이 될 때 불국정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사찰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돼야 하며 이는 복지라는 그릇으로 전달이 되겠지요. 삼천사는 전통사찰이기에 용지가 확보된다면 빠르면 5년에서 늦으면 1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쉼터역할을 하는 사찰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스님께서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하루를 한생과 같이 삽니다. 저녁에 불을 끌 때면 ‘아,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생이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맥박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 구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시 맥박이 떨어지니 점차 생을 양보하게 됐습니다. 5년, 3년, 2년…계속 맥박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게 주어진 인연대로 머물다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군요.

우리의 생도 집착하면 비움을 막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를 털어버리면 통찰지가 나오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자리를 비추는 밝은 태양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 합니다. 분별심을 놓고 텅빈 비움 속에서 함께 자비를 실천해 갑시다.



성운 스님은…

“수좌 되라” 권유 뿌리치고 조계사 화장실 청소… 복지학 교수

동진출가 |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불교와의 지중한 인연으로 동진출가의 길을 걸었다. 1960년 10세의 나이에 보은 법주사에 입산한 이후 1961년 수원 용주사로 불교를 더욱 배우기 위해 오게 됐다.

용주사에서 성운 스님은 대강백 관응 스님에게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불교의 기본학문도 배우게 된다. 스님은 그곳에서 동시에 탄허, 운허 스님에게도 경전을 배웠다. 용주사에서 3, 4년간 불교 및 경학 기초를 익힌 스님은 해인사로 향해 지관 스님에게 강원교육을 받았다. 스님은 1968년 교육을 마치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1년간 후배 학인들을 가르치는 중강 소임을 맡게 된다.

당시 해인강원에서는 대학 출신 스님들이 많았으며 이에 스님은 현대학문을 배우는 뜻을 세웠다. 당시 일타 스님과 성철 스님 등은 스님이 수좌가 될 것을 권유했지만 스님은 자신의 길이 이미 서있던 터였다.

서울로 상경 후 스님은 조계사에서 수위와 화장실 청소를 하며 머물렀다. 다른 소임에 비해 보시금이 많았고, 그 돈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1975년 종단정치의 바람 속에 스님은 제방 선방에서 정진 한 후 1979년 삼천사가 위치한 은평구에 주석하게 된다. 이후 절에 들어온 보리쌀이며, 라면, 연탄 등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자비사상을 실천했다. 이후 삼천사는 스님의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2만 신도들의 수행도량이 됐으며 복지불사의 기반이 됐다.

스님은 1984년 조계종 사회부장을 맡으며 기독교계의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에 나서게 됐다.

인덕원 설립 |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세워 서울 진관외동의 노인전문요양원을 근간으로 법인직영기관 20개, 위탁 운영기관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도서관과, 노숙자 쉼터 등 다양하고 이용하는 연인원이 700만 명에 달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2009년에 재개원한 노인전문요양원 삼천사 인덕원은 현재 300여 병상이 모두 찰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간보호자 40여 명, 방문요양자 160여명이 500여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교정교화 | 스님의 사회복지에서 교정분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스님은 삼천사에 부임한 1979년 이후 지역사회 청소년 교화에 앞장서 왔다. 가출과 비행청소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스님은 지체없이 달려갔으며 서울구치소와 서대문형무소 등 전국의 교도소를 찾아갔다. 스님이 교도소에서 주관한 법회만도 1200여회에 달한다. 또 군포교도 20년간 진행해 800여 법회를 주관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에 불교서적이 없음을 절감해 불서 10만권 보내기 운동을 하였고,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런 스님의 복지 사상은 〈금강경〉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법화경 보살사상을 활용한다. 스님은 불자독송집으로 〈금강경강해〉를 펴내고, 신해독송용과 원문주석 해의 2종의 〈묘법연화경〉을 펴냈다.

인재양성 | 인재불사에 원을 세운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의 사회복지를 주제로 석 · 박사 학위를 받고 복지에 대한 개요와 이론을 담은 〈노인복지현장경험론〉, 〈사회복지실천현장론〉, 〈불교사회복지론〉 등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사회복지론과 불교사회복지론을 강의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성운 스님은 이 시대와 이 사회에 활동하는 원력보살로 스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대중들의 발걸음 소리가 우리사회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성철 스님 법어를 랩으로… "소리 질러~!"

조계종 포교원, 11월 14일 조계사서 '랩 창작곡 경연'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백련불교문화재단 및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주관하는 '랩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 되다!' 가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대상의 영예는 일반부 참가자 8번 김광희(남 · 26)씨가 차지했다.

가을비가 서울을 적신 토요일 오후, 조계사 앞마당에는 성철 스님 법어가 랩으로 울려 퍼졌다. 낯선 풍경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들고 영상에 담았다. 궂은 날씨였지만 우산을 든 채로 덩실덩실 리듬을 타는 어르신들도 눈에 띄었다.

"아니, 어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한테도 어려운 성철 스님 법어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한다니 너무 대견합니다. 얼마나 연습했는지 완전히 자신의 가사로 소화한 모습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인순(여 · 63)씨는 조계사 대웅전을 찾았다가 노래 소리에 이끌려 객석에 앉았다. 무대가 끝날 때까지 비를 맞으며 자리를 지키면서도 연신 흥에 겨운 모습이었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가 주최하고,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및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주관하는 '랩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 되다!' 가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포교원은 성철 스님 법어를 편사한 지정 가사 16개와 비트(MR) 5곡을 배포, 지난 10월 31일까지 창작랩을 모집 받았다. 이에 비공개 예선을 통과한 청소년부 및 일반부 19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다.

특설무대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에는 전국 각지서 모인 참가자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힙합 제스처를 취하며 연습에 몰두한 사람도 있었다. 청소년 참가번호 4번 박주용(불이학교 · 1년) 학생은 "연습은 많이 했지만 떨린다"면서 "객석에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계시던데 관객들의 호응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사뭇 긴장된 모습이었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특히 '힙합 꿈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가 꿈이라는 경기국제통상고 조성제 학생을 비롯해, 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이틀 전날 저녁 화순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온 조해천 학생의 열의도 대단했다.

이들의 주무기가 패기와 풋풋함이라면 대학생 및 일반인 참가자들은 프로수준의 무대매너와 노련미가 돋보였다. 특히 일반인 참가자 중에는 현재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중인 힙합 가수들도 몇몇 있었다. 2013년 'The Egobomb(더 이고밤)' 이란 이름의 2인조 힙합듀오의 멤버로 데뷔한 최관우씨는 "평소 잘나고 못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길 바라온 것이 성철 스님 법어와 잘 맞아 곡을 해석했다"면서 "원래 음악에 종교 등 주관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막상 해보니 재밌었다. 도심 한 복판에 있는 절에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경연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마추어 무대인만큼 크고 작은 실수들도 있었다. 청소년 참가자 2번으로 무대에 오른 의정부 영석고 'Deall Zone' 팀은 가사를 잊어버렸지만 서로 격려하며 무대를 내려오는 모습에 큰 박수를 받았다.

백련문화재단 및 파라미타 주관
비공개 예선 통해 19개 팀 본선
심사에 아웃사이더 · MC메타 등
대상 상금 5백만 원 일반부 '김광희'

2시간 반 가량의 본선 무대가 끝나고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투탁&루팡' 의 비트박스 무대에 이어 랩퍼 아웃사이더와 MC메타의 공연이 경내를 뜨겁게 달궜다. 대웅전 앞에서 힙합 음악이 울려퍼지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가득 채워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춰 세웠다. 한국을 여행중인 니쿨렛(프랑스 · 여)씨는 "여러 곳을 여행 다녔지만 사찰에서 힙합 공연이 열리는 것은 처음 본다"며 "낯설지만 매우 신선하고 즐겁다. 열광적인 젊은 친구들을 보니 새삼 불교가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상의 영예는 일반부 참가자 8번 김광희(남 · 26)씨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 5백만 원을 거머쥐었다. 성철 스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로 무대를 펼친 김 씨는 현재 '하이지' 란 예명으로 홍대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 등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오늘처럼 큰 상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서 매우 떨리고 기쁜 마음이 공존한다"면서 "법어로 가사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막상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실제로 득도한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금상– 청소년부 박주용, 일반부 장문복 △은상– 청소년부 조해천, 일반부 최관우 △동상– 청소년부 조영근, 일반부 전상윤 △인기상– 청소년부 108번뇌, 일반부 대광효와아이들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심사위원에 나선 가수 아웃사이더는 "누가 더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혼자 가사를 해석하고 곡을 작업하며 느낀 깨달음을 관객과 얼마나 잘 나누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참가자들 모두가 힙합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밖에 심사위원으로는 윤소희 작곡가,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작곡가, MC메타, 박지훈 음악프로듀서 등 함께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원택 스님은 " '힙합' 이란 젊은이들 문화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었다"면서 "조계사 앞마당에서 성철 스님 말씀을 대중들에게 전하게 돼 매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박아름 기자

"간화선 세계화 중심 도량되길"

서울 국제선센터, 15일 개원 5주년 법회 개최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15일 경내 큰법당에서 '개원 5주년 기념법회' 를 봉행했다. 사진은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과 주지 탄웅 스님 등 내외빈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불교 세계화와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사찰인 신정동 국제선센터가 개원 5주년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15일 경내 큰법당에서 '개원 5주년 기념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과 길정우 양천 지역구 국회의원(새누리당),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탄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곳에 주지로 부임해서 3주년부터 5주년까지 3년여 동안 기념법회를 하고 있다"면서 "도전과 변화도 많았지만 여법하게 사찰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앞으로도 국제선센터가 여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는 역할은 국제선센터가 해야할 의무"라면서 "사부대중이 일심화합하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과 김기준 국회의원이 각각 축사를 통해 찾아가는 포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국제선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함께 법회 참가 대중들은 국제선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함께 봉독했다. 신도 대중들은 김영구 운영위원과 이정희 극락전 팀장 부부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청정도량 국제선센터와의 인연으로 백천만겁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나 보살의 구도 정신을 본받아 정진해왔다"면서 "국제선센터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슬기로운 도반과 신행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그간 사찰 발전에 공헌을 한 봉사자 등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주지 스님상에는 조재경 법당봉사팀장과 꽃꽂이 봉사팀 · 후원공양팀이, 포교원장상에는 박금숙 합창단장이, 총무원장상과 특별공로상에는 정혜린 사찰운영위원회 총무가 각각 수상했다.

법회 후에는 신도 자녀와 국제선센터 합창단, 어린이법회의 공연이 있었으며, 국제선센터와 협약을 맺은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네일아트를 무료로 시연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광진노인복지관, 템플스테이로 '마음힐링'

11월 13~14일 전북 숭림사서… 직원 40여 명 동참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1월 13~14일 전북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에서 '체험형 템플스테이' 를 실시했다.

고된 업무에 지친 불교계 복지관 종사자들이 1박 2일 템플스테이에 참여, 심적 위안을 찾았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1월 13~14일 전북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에서 '체험형 템플스테이' 를 실시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직원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간 발우공양 습의, 스님과 차담, 참선 수행, 108참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곰개나루 덕양정 및 입적리 고분 유적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이지연씨는 "다른 템플스테이와 다르게 주지 스님께서 직접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사찰 역사 등에 대해 안내해줘서 더욱 좋았다"며 "서울을 벗어나 맑은 공기와 자연경관을 만끽하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신입사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부모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08선지식 찾아 떠나는 구도순례 'START'

정법빠리사, 11월 15일 보광정사서 입재식… 2033년 회향



정법빠리사(대표 정은용)는 11월 1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보광정사에서 '108선지식 구도순례 입재법회' 를 봉행했다.

재가자 수행모임 정법빠리사가 실시하는 '108선지식 구도순례' 가 첫 문을 열었다.

정법빠리사(대표 정은용)는 11월 1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보광정사에서 '108선지식 구도순례 입재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석가사 주지 현봉 스님, 이수덕 前BTN 사장을 비롯한 정법빠리사 회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108선지식 구도순례' 는 정법빠리사가 격월에 한 번씩 국내외 선지식 및 수행처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18년 후인 2033년 회향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례일정은 11월 21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학림사 오등선원(조실 대원)에서 진행된다.

정법빠리사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과 혜안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구도순례를 통해 국내외 출재가 선지식뿐만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인 등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법빠리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보광정사에서 정기 수행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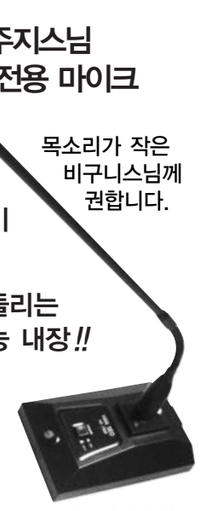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 문 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계복지관, 정성 가득 김장 자비나눔

김장철 맞아 지역 소외이웃에 '훈풍'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먹거리
봉사자들의 열정으로 한가득
다문화가정 · 北이탈주민 체험도

찬바람이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는 요즘,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소외이웃을 위해 교계복지관들이 잇달아 김장을 나눴다. 가뭄으로 인해 쩍쩍 갈라진 대지를 단비가 촉촉하게 적시듯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이웃에게 다가간 자원봉사자들의 자비행이다.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11월 18일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앞에서 열린 'KT&G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릴레이' 에 참여해 각각 김장 2000kg(200박스)과 1800kg(180박스)을 담갔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과 조손가정 등의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12개 복지시설이 참여했다.

두 복지관의 김장에는 119의용소방대원과 강북구독서동아리협의회원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소방관의 상징인 주황색 옷을 맞춰 입은 의용소방대원과 분홍색 조끼를 입고 나온 독서동아리협의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며 배추에 김장양념을 버무렸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를 장단 삼아 흥얼거리는 아줌마와 "늦깎이 가수가 나왔다"며 농을 거는 아저씨까지. 시골마을 김장 품앗이를 연상케 하는 이들의 분주한 손길에 김치를 담은 스티로폼박스가 한쪽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들이 궂은 날씨에도 봉사를 하러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김주영 강북독서동아리협의회장은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아이들이 등교해 같이 올 수는 없지만 매년 김장과 수화봉사 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회활동이 왜 필요한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다"며 "겨울을 앞두고 먹거리를 걱정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의용소방대원은 "아이들이 봉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맞장구를 친 뒤 "최근에 몸짱 소방관들이 달력을 제작해 수익금을 화상환자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봉사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봉사 참여동기를 설명했다.

3~4시간에 걸쳐 모든 배추를 버무린 봉사자들은 포장된 김장을 복지관 차량에 옮겨 싣고 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들은 김장을 저소득가정에 배분했다. 김장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작년에도 복지관에서 김장을 지원해준 덕분에 반찬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고맙다", "감사할 따름이다. 맛있게 잘 먹겠다" 등의 감사인사를 전했다는 후문.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소지 스님(오른쪽 첫 번째)과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강북지역 복지시설장들이 배추에 김장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소지 스님은 "오늘 담근 김장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중한 감로가 되길 바란다"며 "김장뿐만 아니라 추후 소외이웃의 원활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찬)은 17일 우면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랑愛 김장김치 나눔행사' 를 열고, 서초구 지역 내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1100세대 가정에 김장 4000kg을 전달했다. 분당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학산)은 14일 분당 대광사에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 지역 저소득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800곳에 각각 김장김치 10kg을 지원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김장 버무림 체험, 북한음식 나누기 부스 등을 운영해 봉사자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도 11월 11일과 13일 각각 성북구청과 성신여고에서 김장을 담가 저소득가정 160세대에 김장 10kg씩을 배달했다.

한편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경)은 오는 27일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와, 12월 10일 한국정보통신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지역 소외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프놈끄라옴-수원마을 3단계 지원

로터스월드-수원시 17일 캄보디아 씨엠립주서 비전 선포

수원시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국제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월드가 씨엠립주 프놈끄라옴-수원마을의 향후 3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1월 17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초 · 중학교에서 3단계 비전 선포식을 실시했다.

로터스월드와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2단계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마을개발운영위원회,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초 · 중학생을 위한 영어 · 한국어 · 태권도 등 특성화교육, 우물 및 공동화장실 유지 · 보수, 마을공동자립작업장 건립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3단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중 · 고교 신축 및 학교운영 지원 △수원마을 내 위생시설 유지보수 및 기존학교 환경개선사업 △마을운영위원회 · 청년회 등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사찰 · 학교 · 경찰서 및 기타 관공서와의 협조 · 사업공유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마을 구축(정수시설, 공용전기, 가옥개량) △마을개발사업 역량강화 및 주민교육(캄보디아어 · 기초수학) 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씬런 씨엠립 부주지사에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프놈끄라옴-수원마을은 수원시와 씨엠립주가 2004년 국제자매도시 결연 이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2007년 선정한 국제협력사업 마을이다. 로터스월드와 수원시는 이 마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해 교육 · 의료 등의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진오 스님, 해외아동 위해 3000km 달린다

1년간 월정사-울릉도-제주도-조계사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님의 달리기는 끝이 어디일까. '달리는 스님' 진오 스님 〈사진〉이 베트남과 네팔 아동을 돕기 위해 국내에서 3000km를 달리는 대장정을 펼친다.

진오 스님(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은 11월 18일 평창 월정사를 출발해 1년간 울릉도-독도-제주도를 거쳐 서울 조계사까지 약 3000km에 달하는 탁발 마라톤에 도전한다. 매월 1~2회씩 회당 7일간 달려 조계종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순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라톤은 베트남 학교 108개 화장실과 네팔 지진 피해지역 학교 건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1km를 달릴 때마다 100원씩 모연해 전달할 예정이다. 스님은 지난 2000년 경북 구미에 꿈을이루는사람들을 설립, 이주노동자 상담센터와 외국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사단법인 인가 후에는 북한이탈청소년 쉼터와 다문화 달팽이모자원 등을 설립했다.

진오 스님은 "내가 가진 것은 두 다리 밖에 없다. 몸은 힘들겠지만 나누는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길에서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나선다"며 "작은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해외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출발 소감을 밝혔다.



진오 스님은 그동안 한반도 · 베트남 · 독일 · 일본 등 각지에서 총 8000km를 달려 3억 원을 모아 사회 곳곳에 후원했다. 이번에 계획한 3000km 탁발 마라톤 외에도 베트남 2차 종주(약 1200km)와 네팔 카트만두-룸비니(약 500km)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공예 재밌어요!"

성북노인福,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어르신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며 세대 차이를 좁히는 시간을 보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경희)은 11월 12일 관내에서 노인세대 여가지원 프로그램 '동거동락 지식나눔활동' 을 실시했다.

동거동락은 성북구청 평생학습관 공모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공예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내 지식나눔활동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지식나눔활동은 종암동 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 10명이 직접 일일강사가 돼 초등학생들에게 한지거울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친구들과의 야구경기에 장애는 없어요!"

한솔복지관 장애아동 야구단 일반아동과 친선경기로 화합

지역복지관 장애아동 야구단이 일반아동 야구단과의 친선경기를 통해 장애를 뛰어 넘은 우정을 쌓았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 베스트원 야구단은 11월 15일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백현야구장에서 수정구 리틀야구단과 친선경기를 펼쳤다. 베스트원 야구단은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비장애아동의 긍정적인 장애 수용태도 형성을 돕기 위해 2013년 창단했다. 현재 초등학생 장애아동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경기는 한솔종합복지관장 가섭 스님의 시구로 시작됐다. 이후 베스트원 야구단과 수정구 리틀야구단은 각자의 실력을 아낌없이 뽐내며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7대 0으로 수정구 리틀야구단이 승리했지만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편견이 아닌 우정을 다졌다. 또한 베스트원 부모 서포터즈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며 간식을 함께 나눴다.


한솔복지관 베스트원 야구단과 수정구 리틀야구단이 친선경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종합복지관장 가섭 스님은 "처음엔 공도 잘 잡지 못했던 친구들이 3년간의 연습을 통해 경기를 잘 치러내는 것을 보니 기특하고 감동적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다른 야구단과 활발하게 교류해 아이들의 사회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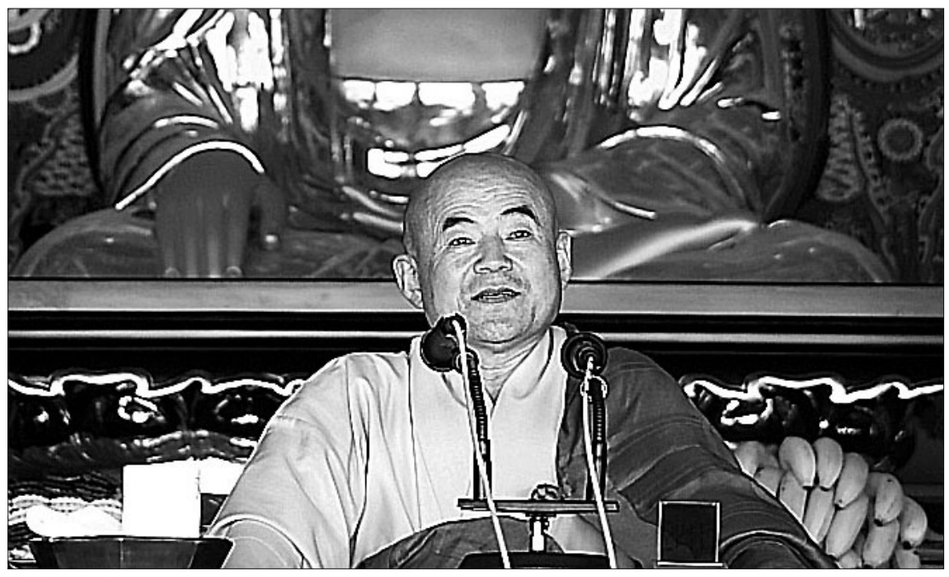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약한 빈대’ 대하듯 북한을 사랑하라

신라문화원 초청대법회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사)신라문화원은 11월 1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혜국 스님 초청대법회’를 봉행했다. 혜국 스님은 ‘불교의 진리 사성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혜국 스님은 “고집멸도(苦集滅道)에서 집착은 원인이고, 멸에 이르는 방법을 부처님은 ‘도(道)’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도(道)는 인간의 본질이라 죄에 물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에너지도 한 마음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남북도 결국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멸이 연속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은 오고감이 없으니, 현상에 휘둘려 남북관계를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혜국 스님은… 1961년 일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로 출가했다. 1970년 성불을 다짐하며 소지공양 이후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7개월 간 장좌불와 수행을 했다. 1973년부터 1994년까지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수십 차례 안거에 참여했고 경봉, 성철, 구산 스님 등 문하에서 수행 정진했다. 제주 남국선원, 부산 홍제사를 창건하고, 현재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다.

현상은 ‘생멸’ 반복되듯 보이지만
실상 ‘마음’ 한 곳에서 비롯돼
남북 관계도 에너지본질과 같아
38선도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사성제(四聖諦)의 원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성제(四聖諦)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왕위를 버리고 처절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과 싸울 때는 전력을 다하지만, 자기 자신과 싸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오로지 생명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생명이 왜 고통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처절한 고행을 하셨으며, 그 후 설한 법문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四聖諦)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실상은 그림자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서 실상을 보면 멸에 이를 수 있지만,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를 따라가면 결코 팔성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기사나 필요한 인력 등 많은 걸 살 수 있었지만, 나의 고통을 대신 아파하며 병원침대에 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살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그 어떤 명성과 부(富)도 정작 자신에게 도움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인간이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사성제의 ‘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병원침대에 누워 있는 게 그림자이자 환영이고, 몸 관리를 잘못해 침대에 눕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을 먼저 해결하면, 즉 집착을 바로 보면 멸에 이르러 행복할 수 있지만 원인은 모른 채 병원에 누워 있는 것만 생각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OECD에 가입된 1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118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고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화를 내거나 슬플 줄 아는 모든 행위와 감정 등을 행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커다란 아파트에 살고, 큰 자동차를 굴리는 나라도 드뭅니다.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행복지수가 118등이면 국가산업이나 GDP 등에서 세계 1위를 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모든 걸 불평불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경쟁하느라 바빠서 긍정적인 기운과 내 영혼을 깨우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苦)의 원인입니다.

앞서 얘기한 스티브 잡스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 스스로 병원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원망하고, 몸이 아픈 것에 짜증을 낸다면 점점 더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코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이 따끔따끔하면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날 못살게 굴려는 게 아니라 ‘몸 조심하십시오’ 하고 충고해주려고 온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그림자인 결과에만 매달려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 불자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식걱정입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사춘기가 와서 반항을 한다, 부모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 등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친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들딸들은 부모님 말만 잘 들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알고도 속아주고, 때로는 침묵하며 먼 훗날 자식들이 40~50대가 됐을 때 ‘내 부모님이 정말 훌륭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육입니다.

고집멸도에서 집착은 원인이고, 멸에 이르는 방법을 부처님은 ‘도(道)’라고 하셨습니다. 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아무리 슬퍼해도 그 슬픔 속에서 여여합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해도 내 본질인 도는 죄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정무정(有情無情)이 개유불성(皆有佛性)이라 너희들 마음은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인간을 모두 죄인으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삶과 ‘내 본질은 내 삶과 관계없이 항상 부처구나’ 하며 대자유임을 알고 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에너지 본질은 모두 같다

제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오른손이 맞습니다. 그럼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들어볼까요? 이건 왼손이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양 손을 움직이는 기운도 서로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밤새 우리의 하품이나 각종 냄새를 받아들여 공기를 만들어 내고, 우리는 그 공기를 빌려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또 구름이 물이 되어 비가 내리면 그 물을 얻어다 마시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태양빛으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고, 대지에서 나는 모든 음식으로도 에너지를 만들죠. 제가 세상에서 빌려와 만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를까요? 당연히 같습니다. 새들도 우리와 같은 기운을 빌려서 하늘을 날고, 뒷산의 노루도 그 기운을 받아 뛰어다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나와 남이 다르지만 에너지 본질에서 보면 우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 통일론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만큼 남북통일을 바라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는 요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통일은 좀 늦춰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체제가 붕괴돼 이뤄지는 흡수통일을 한다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북한사람들의 의식이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핵무기나 땅 문제 등을 비롯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 절에 들어와서 굶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옷이 해져도 엉덩이 부분을 기울 조각천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천 한 조각 주우면 그날은 기분이 무척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잘 사는 것은 국민 모두 제 할 일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통령 욕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심지어 무언가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손해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종종 법문을 하기 위해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서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합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단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이래서 안 돼”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중국이 경제규모에서 우리나라를 넘어 크게 성장했고, 인도의 발전 속도도 빠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막강한 경쟁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다시 한 번 세계에 한국을 알리려면 통일은 필수적입니다.

빈대를 대하는 마음

우리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금방 붕괴될 것이고 자연스레 흡수통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통일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핵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등 여러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투기꾼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북쪽 땅을 다 사버릴 수 있다는 등 사사로운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임에도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등소평의 정책입니다. 등소평은 ‘땅을 인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인민들에게 땅을 50년 동안 임대를 주고, 당사자들이 돈을 벌어 살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미래를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성제、팔정도라는 정신문화사상을 바탕으로 ‘나누는 법’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북한사람은 나의 친형제나 다름없다. 내 재산을 나눠주자’와 같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남북통일에 필요한 정신을 설명하는 데 다른 불자님의 일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알고지내는 한 처사님은 부인을 무척 사랑하고 서로 사이도 좋습니다. 처사님은 일이 많은 편이지만 일요일이면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루는 여행을 위해 부산을 출발해 경주에 도착할 때쯤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집에 다리미 전원코드를 꽂아놓고 나왔네!” 깜짝 놀란 처사님은 급히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리미 전원코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해인사를 갈 때도 부인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역시나 코드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순천에 놀러 가는데 부인이 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사님은 뒷좌석에서 다리미를 꺼내들며 “여기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처사님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만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북한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동강 물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낙동강 물은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낙동강 물은 이미 흘러 바다가 되었고, 조금 전에 본 그 물도 흘러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생과 멸이 반복되고, 이 같은 생멸의 연속을 낙동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가 없어지고,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고(苦)가 됩니다. 생과 멸이 연속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오고감이 없습니다. 내가 내는 화도, 차오르는 슬픔도 전부 한 곳에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마음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보면 사실 38선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또는 우리 감정에서만 38선일뿐입니다. 새들은 그 위를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토끼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에 들어가는 첫 걸음을 빈대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대를 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룻배를 몰고 가는데 물살을 못 이겨 다른 배와 부딪혀 배가 박살난다면 분명 화가 나고, 서로 엄청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빈대가 나룻배를 향해 흘러내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싸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빈대를 대하는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북한까지 이어질 때 통일의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은 놔둔 채 남과 비교하며 사느라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듯이 소중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작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뒤에 통일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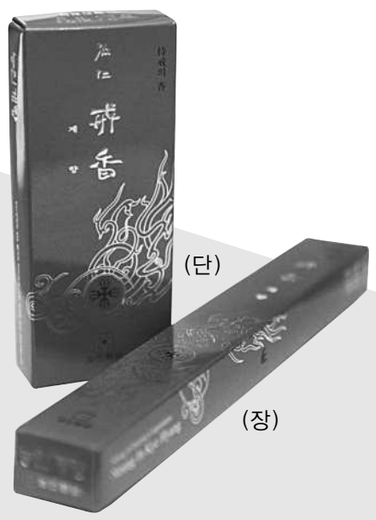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응송 스님은 독립운동가이자 다맥 중흥조"

동아시아차문화硏, '응송 스님 25주년 추모세미나

1950년대 불교정화 과정에서 많은 스님들이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당했다. 응송(應松) 박영희(1893~1990) 스님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응송 스님은 해남 대흥사에서 출가한 이후 구한 말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며 교육자였다. 청소년기 항일 민병으로 활약했으며 만주에서는 독립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일생을 항일정신과 독립의지를 품은 응송 스님은 불교 정화운동 이후 대흥사 산내 백화사에 머무르며 다도 연구를 심화시켰다. 특히 초의선사 다법을 이어 한국 다도를 복원하고 계승하는데 힘썼다.

이런 응송 스님에 대한 재조명의 자리가 열렸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응송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진행하며 석종사 혜국 스님과 정양모 백범기념관 관장, 박권흠 한국차인연합 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용흥사 몽성선원장 진우 스님 등이 대회 축사를 맡아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병삼 "응송,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 근 · 현대 불교에서 응송 박영희 스님의 위상'을 통해 불교 청년운동의 활동과 불교계 지도인사이자 선학에도 노력을 기울인 스님의 활동상을 살폈다.

정 교수는 "십대 후반 의병군 투신 후 스님은 곧 출가했다. 대흥사 강원서 뛰어난 자질을 보여 종비생으로 뽑혀 서울 불교중앙학림에서 근대 불교학을 공부했으며 재학 중에는 기미만세운동이 일어나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자주적 불교확립을 위한 비밀결사 만당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이후 만당 와해 뒤 조선불교청년동맹에서 서기장을 맡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스님은 1937년 대흥사 주지를 지내며 대흥사를 본산체제에 편입했고, 중앙교무원 직임도 함께 맡았다. 이 행적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광식 "만해학에도 응송 연구 포함"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에서 응송 스님의 자필 유고 〈자서전〉(1976)을 기본 자료로 근현대 불교라는 무대에서 응송 스님이 보인 가치관을 설명했다. 김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만해 스님과의 인연이었다. 김 교수는 "응송 스님은 1908년 항일의병에 관여한 인연으로 대흥사에 출가했다. 만해 스님의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민족대표간 연락과 기밀문서 전달 등이었다. 응송 스님의 신흥무관학교 입학은 3 · 1운동 직후 불교계 독립운동 진영의 전략으로 10여 명이


응송 스님

함께 입교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만당 당원으로 한용운 사상의 구현, 불교 자주화, 식민지 불교 극복에 매진했기에 이제 만해학에서 응송 스님의 이름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다즉일, 일즉다' 문자화"

김미선 청주대 교수는 '응송 박영희 스님의 시문학 세계'에서 응송 스님의 '수연설법(隨緣說法)의 제법문(諸法門)'을 토대로 응송 스님의 선시 형성배경을 살폈다. 김 교수는 "응송 친필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속가 상좌인 박동춘 선생이 응송 생전에 필사한 내용을 통해 보면 스님이 남긴 선시는 선승 마조와 석두에서 시작한 것을 초의가 잇고 또 이것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응송의 선시 내용에는 오도의 선정, 묵조의 선취, 불이의 선리, 격외의 선다 등의 특징이 있다. 즉 불이의 '다즉일, 일즉다'를 문자화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춘 "초의 · 일송 다법은 고온 덖음"

끝으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응송 박영희 스님의 다법과 그 특징'을 통해 응송 스님이 출가 이후 대흥사 다법을 훈습 받은 것과 초의 다법과의 관계, 또 초의에 의해 복원된 한국 차문화의 원형 등을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응송 스님은 1960년 후반 대흥사 반야교 아래 사저를 백화사로 명명한 후 초의 연구를 본격화했다. 특히 뜨겁게 차를 달이는 탕법은 대흥사의 유풍으로 그의 제다법은 고온에서 차를 덖어내는 덖음차"라고 정의했다. 이어 "한 번의 살청과 유념, 재건 절차를 거치며 품색은 담백하며 시원한 맛을 지닌다. 소박한 탕법에 예의와 절차에 구속되지 않으며 한 번의 정수를 우려내는 일탕법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응송에 대한 연구는 초의 후손으로 다법을 이었다는 점 등만이 알려졌을 뿐, 제다법이 잘못 회자된 현실"이라며 "열반 25주년을 맞아 초의와 응송으로 이어진 다법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해 스님 선양에 민 · 관 힘 모은다

동국대 · 속초시 · 인제군 · 홍성군 · 성북구청 · 서대문구청 MOU

만해 스님 선양사업에 동국대와 속초 · 인제 · 홍성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동국대(총장 보광)를 비롯해 속초시, 인제군, 홍성군, 성북구청, 서대문구청 등 5개 지자체는 11월 16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동국대 산하 만해연구소와 5개 지자체의 교육지원청도 참여했다. 특히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협의회와 함께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과 역사인식, 세계평화실천 사상을 알리기 위한 순례길 개발과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만해 학술세미나 개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재호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이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민 · 관 교류협약은 〈님의 침묵〉을 남긴 위대한 시인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토록 투쟁한 혁명가인 만해 선사의 민족정신과 역사인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석 만해연구소장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해 5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고 연구소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만해 한용운 선사가 세계인으로서 보여준 도전정신과 그가 실천한 평화사상을 본받기 위한 만해로드 조성이 시급하다"며 "만해 스님의 여정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2)2260-8526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사학회, 제26회 학술대회 개최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지준)는 11월 14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26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미술사학회에서 발행하는 〈불교미술사학〉이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불교공예, 불교조각을 연구하는 젊은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연구원장의 '수덕사 괘불, 노사나불의 경이적인 영기화생'과 중국 돈황 연구 권위자인 왕혜민 연구원의 '돈황의 도찬 형식 회화 연구'에 대한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강우방 교수는 "흔히 여래나 보살이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덕사의 노사나불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다"며 "자세히 채색 분석을 하면 보주의 구멍에서 무수한 보주가 이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앙의 보주가 무한히 확산하는 강력한 영기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장기현 대마시 원통사종의 역사성과 의미, 정문석(창원시청) △고려전기 신양식 석조불상의 등장과 전개, 정성권(중앙승가대) 등이 발표됐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부산유형문화재 지정

부산시는 11월 12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용적사 신중도 △훈몽자회 책판 등 3종을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원래 11폭으로 구성된 불화로 올해 7월 스위스 경매장을 통해 본존(本尊)인 치성광여래도(熾盛光如來圖) 1폭과 칠성여래 2폭(제5 · 6여래) 등 총 3폭을 범어사가 매입해 국내로 환수됐다. 특히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3폭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원 소장자가 매입 · 환수해 원 소장처에 다시 봉안(奉安)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용적사 산신도 △옥정사 지장시왕도 △옥정사 신중도 △옥정사 칠성도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십권하 등 5종도 부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하성미 기자**



"고려시대 읍내 사원 존재했다"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세미나서 주장

"고려시대 도읍에는 읍내마다 사원이 있었으며 보통명사로 주현 자복사라 불렀다. 이들 사찰은 총 70여개에 달했다."

고려시대 행정체제 내에 사원이 존재했으며, 국가사원 체제를 통해 왕권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11월 19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문수실에서 개최한 호국불교연구 세미나 '고려시대의 국가와 불교'에서 '고려시대 주현 자복사와 향도의 역할'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먼저 "자복사는 읍내에서 사원승려들이 국가불교의례를 비롯한 많은 행정을 담당하는 체계 중심이었다"며 "대부분의 자복사는 신라시기부터의 사원을 고려시기 계승한 것이지만 보다 행정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여기에 자발적인 신도조직인 향도와의 관계를 조명했다. 한 교수는 "지역사회에는 신행공동체인 향도가 있었으며 이는 읍내 자복사와는 달리 산중의 '신사'를 거점으로 활동했다.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립 사찰인 '자복사'가 중국과 일본의 관사제도와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운영형태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지역명과 사명을 같이 하는 반면 일본은 종파별 명칭을 붙였다. 고려는 반면 따로 연호나 경명, 사명이 없었으며 고려 창건 후 읍 정비 시 자연스럽게 국가 사원체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창현 고려대 교수의 '고려시대 승병 성격과 역할' 발표와 박용진 국민대 교수의 '고려시대 대장경의 정치 · 사회적 기능'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내면 미소가 자비의 시작"

미산 스님,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에서

"불교에서의 자비는 불이사상에서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는 다른 이에게도 번져나가 자비심을 이끌어 냅니다."

미산 스님은 11월 21일 밝은사람들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연찬회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에서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미소를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공감이 일고, 이어 이것이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져 자비행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미산 스님은 '중국대승 및 선불교에서의 자비' 발제를 통해 선불교가 단순히 깨달음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중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선지식이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 화두를 주고 할과 방 등을 활용하는 것은 모두 수행자로 하여금 진여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무연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을 예로 든 것이다.

스님은 나옹 선사가 '행선축원문'에서 선의 반야공성 지혜가 자비로 발현돼야 함을 강조한 부분과 용성 선사가 '활구참선결사발원문'에서 활구참선으로 자비원력의 실천을 강조한 점, 성철 스님과 서옹 스님도 자비실천을 강조한 점 등을 들었다.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견성성불 요익중생'의 불교 가르침에서 자비가 함축하는 하화중생과 요익중생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스님은 그 실천 방안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본인이 개발하여 실행중인 자비수행법 '하트스마일 명상'을 소개했다.

"내면의 평화를 이끄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합니다." **노덕현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100돌 맞은 관음사 '제2 창건' 선언

광주 관음사 14일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

"창건 100주년입니다. 관음사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주지 소임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0여 년간 퇴색된 도량을 정비하고 신도조직을 새로이 만들어 제2의 창건이라 할 수 있도록 포교도량으로서 지역불교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대표적인 전법도량인 관음사가 11월 14일 창건 10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3월 주지로 취임한 소궁 스님은 제2의 중흥기를 준비하는 말을 전했다.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열린 이날 기념법회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백양사 주지대행 광전 스님, 관음사 회주 원진 스님, 만덕사 주지 시각 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200여 명이 함께 자리해 행사를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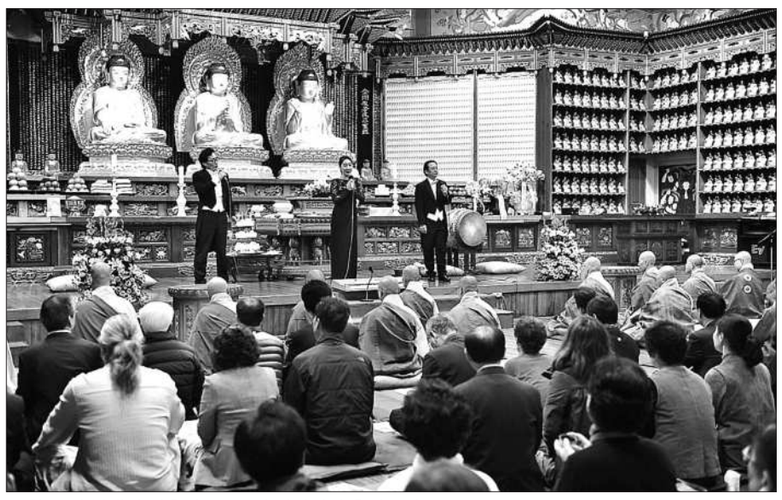
관음사는 지난 1916년 일본인 엔도신가이 스님에 의해 창건된 후 광복과 함께 석파 스님이 입주해 장조 스님, 만암 스님, 봉하 스님 등 큰스님들이 주석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관음사는 1962년 상인 스님의 주지 취임을 계기로 전국 최초 불교유치원인 보문유치원을 개원하고, 호남최초의 불교학생회, 청년회, 관음사 신협 등을 개설해 호남지역 최고의 포교 중심도량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재

1990년대 이후 쇠락… 존폐위기까지
"도량 정비 · 신도조직 정비 등 통해
광주 지역 최고 포교도량 만들 것"

의 건물인 현대식 건물 불사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심 이전과 함께 사찰 존폐위기를 걱정하는 침체기를 맞기도 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법회는 1부 중창단과 성악가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찬불가와 육법공양, 관음사 연혁 소개, 장학금 전달과 감사패 증정, 축사, 발원문, 법문이 이어져 관음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11월 14일 봉행된 관음사 100주년 기념법회 축하공연.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관음사는 오랜 세월동안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전법도량이었다"며 "10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광주시민들의 문화도량, 힐링도량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음사는 현재 신도조직 구성과 함께 매일 다라니 독송회, 사경기도 등 기도정진 프로그램과 초심자 불교교실, 불교대학, 명상법회 등 평생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도량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후 7개월간 사찰 청소, 천불(원불) 목욕, 도량 정비하는 데 시간을 보낸 소궁 스님은 "현재 관음사는 도량정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선포식이자 많은 분들의 뜻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쉼없는 기도 정진…환희 넘치는 도량으로"

선운사 도솔암, 15일 지장보살 개금불사 회향

우리나라 3대 지장기도 성지 중 한 곳인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도솔암(감원 도완)은 11월 15일 도솔천내원궁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금불사를 회향한 선운사 도솔암 도솔천내원궁 지장보살상은 육도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로써 보주 · 석장 · 법륜 등의 지물을 들고 있는 지장보살의 일반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 고려후기 불상이다. 우아하고 세련된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완 스님은 "사부대중의 원력과 관심으로 지장보살 개금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됐다"며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불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기도정진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회향법회 후에는 극락보전에서 1029일 영가천도재가 봉행됐다.

도솔암 마애불과 함께 우리나라 미륵 · 지장기도 성지인 도솔암은 1년 365일 기도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기도도량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분원들 자비나눔 릴레이 눈길

월천사 연탄나눔 · 전주 실상사 자비의 쌀 기탁

마이산 탑사 분원들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분원 월천사(주지 보문)는 11월 16일 월천사 나누우리 봉사단을 창단하고 신도회, 음악퓨전그룹 'The 놀자' 등과 함께 4080 릴레이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가뭄을 해소하는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자비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인천시 남구청이 추천한 용현동 13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 408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편, 전주분원 실상사(회주 진성 교임 강순덕)는 11월 13일 전주시 진북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경로당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10kg 쌀 100포대를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해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만발공양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의 어르신 식당인 '대해행복밥상'이 지난 11월 14일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대해행복밥상은 광주 동구 소태동 일대 주택가 땅 30평 땅을 구입해 작은 식당으로 꾸몄다. 전체 60석 규모의 이곳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누구나 1000원이면 한 끼의 맛있는 건강한 밥상을 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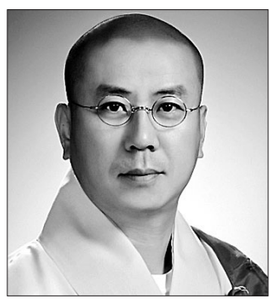
무진 스님은 개관식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대해행복밥상을 개원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조미료 등이 없는 건강한 집밥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관 의미를 설명했다.

개관에 이어 대해행복방상의 옆에 있는 대해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역 관내 소태동, 학동, 학운동, 남구 방림동에 거주 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실시했다.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동참한 이날 만발공양은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레크레이션, 개관식, 개관커팅식, 만발공양, 문화공연(아이예술단, 가수) 등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불교 만들겠다"

광주불교聯, 13일 회장 연광 스님 연임 결의



광주불교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사진〉이 광주불교연합회 제2대 회장에 연임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13일 제3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체 회원사찰 75곳 가운데 선거유권사찰 53곳 사찰 중 43개(참석 32, 서면위임 10) 사찰 대표가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2대 회장 당선을 결의했다. 총회는 이어 수석부회장에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감사에 원묵 스님(선덕사 주지),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을 선출했다.

연광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승가의 화합이 최고의 포교다. 화합을 통해 광주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광주불교가 많은 대중들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교인구가 늘어났다는 갤럽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앞으로 전통불교문화의 보급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불교 대표단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제2대 회장단 선거 외에도 정관일부 개정, 선거관리규정 및 특별위원회운영규정 등을 제정했다.

1년간 광주지역 활동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광주불교연합회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응 스님과 2014 ·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준비를 한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봉사부분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 광주불교산우회(회장 오정의), 박준희 조선대 교수, 최현기(전통등 전시회) · 문금자 불자 등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2015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기구현황, 연간사업, 부설기관 운영현황, 발행잡지, 대외협력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을 결의했다.

2015활동보고서에는 연합행사인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성도재일 연합법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의 '네팔지진돕기 9200만원 지원, 불교실무자를 위한 불교모연아카데미, 자비나눔기금 전달, 쌀 · 연탄 나누기'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담았다. 특히 올해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활동과 단체 홈페이지 · 로고 제작, 봉축공모사업, 전통등(燈) 만들기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행사는 로터스합창단의 축하공연과 1년간 광주불교연합회의 활동을 영상으로 담은 연혁보고, 불교의례, 시상식, 인사말,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2016년 행사와 관련해 "11월 중순부터 내년도 봉축행사 준비를 위한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독거노인 겨울 연탄지원사업과 2016년 봉축공모사업, 성도재일(제2대 회장 취임식, 신도회장 취임식)법회 등 상반기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창 종교인 협의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3천포기 김장김치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북 순창종교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펼쳤다.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통일교 · 유교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순창 종교인협의회(회장 청암 스님. 장덕사 주지)는 11월 18일 순창 자원봉사의 집에서 이웃돕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청암 스님을 비롯해 일광사 선동 스님, 송학사 지명 스님, 원불교 문정현 교무, 천주교 한기호 신부, 통일교 강경우 목사, 유교 강병문 전교 등 종교인들과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장 등은 16일부터 3일간 3천포기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순창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300여 명이 동원돼 마련한 김장김치는 순창관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410가구에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하구불교聯, 화합으로 일군 무료급식 20년

정성이 원칙, 갓 지은 음식으로 공양 마련

현대사회에서 지역구불교연합 활동이 미진해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20년 동안 부산 사하구 지역을 담당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해온 곳이 있어 화제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 소속 10여개 사찰은 사하구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화합하고 무조건 뜻을 함께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비 실천과 포교의 원동력을 화합에서 찾은 사하구불교연합회의 무료급식 현장을 11월 16일 찾았다.

급식을 준비하는 날 오전 9시에는 어김없이 국산 최고급 재료로 준비한 장거리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하다. 조리대에서 씻고 다듬어 배식 직전에 요리를 마쳐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준비를 한다. 대부분 사하구 판자촌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무료급식 소식을 접한 노숙자들과 멀리 타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3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는다.

회장 혜우 스님은 "사하구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곳이 타 지역보다 낙후된 환경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며 "누구나 접근이 편하도록 사하구 중심지에 급식소를 차렸다"고 설명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의 무료급식 봉사는 1995년 6월 무허가 판자촌을 위한 무료급식 현장에 불자 봉사팀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에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를 열고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후 어르신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상위 계층 홀몸어르신 안식처
20년 이어온 저력, 지역 모범 사례
무료 급식 외 복지 사각지대 살펴

2014년 7월 10일 현재 위치인 사하구 괴정동 상이군경회 사하지회 회관 지하에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문을 새롭게 열었다.

혜우 스님은 "현재 전기세와 월세, 식비까지 연 8000만원가량 소요된다. 이 모든 비용을 사하구불교연합회에서 십시일반 보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하구불교연합회에 있는 스님들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해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옮기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

현재 사하구불교연합회 무료급식에 동참하는 곳은 △성불사 혜원 스님 외 10명 △대부암 선혜 스님 외 12명 △약천사 법인 스님 외 12명 △길상사 자인 스님 외 11명 △문수암 묘덕 스님 외 12명 △이귀연 지장회 회원 13명 △약수사 혜우 스님 외 13명 △해장암 송우 스님 외 13명 △무학사 보승 스님 외 10명 등이다.

혜우 스님은 "무료급식 공간을 더욱 확대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어르신들이 언제든 찾아와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공예, 미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급식소가 만남의 장소가 되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무료급식 외에도 지역을 위해 을숙도 철새먹이 지원 사업, 경로잔치, 무료 장수사진 촬영, 환우 위한 음악회, 다대포 해수욕장내 청소년 선도 및 4대악 근절 캠페인, 불자의 밤 한마당 및 장학금 전달, 김장 나누기, 행복마을 쌀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하구불교연합회는 11월 20일 부산 한우리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우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색소폰 및 아코디언 연주 등 흥겨운 무대 공연이 이어졌으며, 스님들은 병실을 직접 방문해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문화원, 남산동에 문 열어

어린이 포교를 위해 새롭게 문을 연 부산불교문화원(원장 김광호)이 11월 14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문화원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해온 김광호 원장이 새롭게 문을 연 법당이다.

개원법회는 어린이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해 개식사와 내빈들의 인사말, 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발전기금 장학금 전달식 및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성 안국사 대안 스님, 천불정사 창민 스님, 윤영해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이수경 동국대 평생교육원장, 김기동 동국대 원우회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광호 원장은 "현재 한국불교의 어린이 포교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많은 불자들과 스님들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위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다음 생에도 어린이 포교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문화원 개원법회에서 음성공양으로 축하하고 있는 보리수초등불교학교 학생들.

부산불교문화원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5층으로 지어졌다. 법당은 60평이며 앞으로 4층은 지역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불교문화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리수초등불교학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보리수불교대학이 진행되며 태영 장학회 및 (사)블룸청소년힐링센터를 운영 중이다. (051)581-2303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스리랑카서 온 진신사리 대관음사에 봉안

대구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주지 수진)는 11월 10일 경내 일주문 앞에서 스리랑카 국제친선 교류 일환으로 마하메우니와 사원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기증받아 옥불보전에 이운 · 봉안했다. 봉안법회에는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관음사 주지 주지스님을 비롯한 신도 22명이 직접 이운해온 진신사리 1과는 양국의 친선교류와 우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 동참한 마하메우니와 안산선원 주지 갈야니완 스님은 "오늘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우리 모두 다함께 행복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수진 스님도 "국가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은 대관음사 도량에서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불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경북종무원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원장 관정)은 11월 15일 대구 능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무원장 관정 스님과 팔공총림동화사 총무국장 지원 스님, 대구불교총연합회 사무처장 연암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법음범패의 식전행사에 이어 종사이운, 종무국장 영범 스님의 개회로 시작된 법회는 의례와 육법공양, 헌공 ·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종회의장 법도 스님은 고불문에서 "금일 수계를 받는 불제자들이 자불성찰하고 수승함으로 계를 지키며 한 치에 물러남도 없이 정진해 중생을 구하고 불국정토를 이룩하겠다"고 했다.

종무원장 관정 스님은 "보살계는 탐진



치 삼독과 팔만사천 번뇌가 꽉 차 있더라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들어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불교 공부가 끝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사는 전계대화상 수진 스님, 갈마대화상 관정 스님, 교수대화상 지산 스님, 증사대화상 송운 스님 등이 맡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통영 보현사, 쪽방촌에 온기 나눠요"

겨울이면 항상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쪽방촌, 이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다.

통영 보현사(주지 묵원)는 11월 15~16일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연탄 3000장을 마련해 직접 쪽방촌에 연탄을 지원했다. 연탄은 장애인가정,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10가정에 각각 300장씩 전달됐다. 또 연탄 외에 백미 20kg을 각 가정에 함께 전달했다.

연탄배달 봉사에는 보현사 신도회와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 회원, 통영불교거사림 회원, 통영 해양경비안전서 의경들로 구성된 한울봉사단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를 준비한 묵원 스님은 "연탄조차 구하지 못해 차가운 방에서 한겨울 추위를 나는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들을 위해 연탄을 나누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불자들과 의견을 모아 연탄나눔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참배路 통행금지 부당한 처사"

부산 청사포 해월정사(회주 천제)의 부락수호신각 통행로가 산주의 통행로 금지 조치로 인해 완전히 폐쇄됐다. 성철 스님의 맏상좌인 천제 스님이 회주로 있는 부산 해월정사는 40여 년간 마을주민들의 부탁으로 부락수호신각에서 제사를 지내왔다.

통행금지와 관련해 천제 스님은 "그 통행로는 50여 년 전 해월정사 불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니던 길이다. 땅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행조차 금지시키며 청사포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내온 부락수호신각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주가 통행을 금지하고 사찰 주변에 펜스를 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월정사의 건물 일부가 산 주인의 부동산에 일부 침범한 것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월정사는 2011년 3월 18일 당시 공시지가 8200여만 원에 해당하던 부동산 1000여 평을 약 13.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청사포 해월정사의 부락수호신각 통행로가 산주의 통행로 금지조치로 인해 완전히 폐쇄됐다.

이에 대해 천제 스님은 "성철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성철 스님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한 불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100주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부동산 소유주는 성철 스님 친필 원고 전시관인 봉훈관이 자신의 땅을 1m가량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이 없으면 준공은 불가하다며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당시 침범한 범위가 극히 작으니 그 부분만 사겠다고 했으나 1000평 이하는 팔지 않는다며 고가의 금액으로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해월정사는 당시 불사금을 지원하기로 한 어느 불자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2012년 11월 26일에는 계약 해제를 통보 받으며 계약금 가운데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한 천제 스님은 부동산 소유주가 설치 해 둔 펜스를 치우고 청사포 주민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호신각에 갔다가 사유재산 기물 파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보살도 요괴도 한 생각의 근본은 '본래 없음'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㉖ 요괴와의 금란가사 쟁탈전



그림 · 최주현

용마 탄 현장법사, 고삐 잡은 손오공 쉬지 않고 나아가네. 두어 달 더 지나 계절이 바뀌어 봄기운 완연한 화창한 날에 도착한 곳. 관세음보살 모시는 관음선원이란 절이다.

그런데 이절 정말 수상하다. 온통 보배로 치장한 화려함에다 스님들 모두 개기름이 줄줄, 탐욕에 눈이 번들번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통해 전한 금란가사를 보곤 현장법사 일행 태워죽이고 가사를 빼앗을 음모를 꾸미네.

영험한 손오공이 이 낌새를 모를 리 있나. 천궁에서 보배 빌어다 불길 막고선 엉뚱한 곳으로 불길이 번지게 만들고는 불길에 부채질, 불나는 집에 부채질, 온 절을 홀랑 태워버린다.

뒷산에 노스님과 친분 있던 곰 요괴 한 마리 있어 불길을 보고 달려왔다가 금란가사를 보고 역시 눈이 뒤집혀 훔쳐가지고 달아난다.

결국 가사 행방 찾던 손오공과 요괴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요괴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거기다 힘들다 싶으면 동굴 닫아걸고 숨어버리니, 제천대성의 묘한 솜씨로도 어쩔 길이 없다. 결국 관세음보살 모시는 관음선원에서 사단이 났다는 구실로 관세음보살님 모셔와 보살님 도움으로 요괴를 잡아낸다. 분기가 치민 손오공 여의봉 추켜드는데 보살님 말리신다.

"마침 절 지킴이가 필요했는데 잘되었구나 이 요괴가 근기가 괜찮으니 데려다 써야겠다."

갑자기 요괴 신분에서 보살님 권속으로 주민등록지가 바뀐다. 손오공 여의봉 꺼낸 게 싱거워진다. 하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아니라 요괴 쫓던 손오공 보살님 쳐다보기?

오늘은 저팔계를 만나려 했는데, 좀 의미 있는 대목이 있어 만남을 좀 미루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관음선원에 들러 쉬는 사이 부처님이 전한 금란가사를 도둑맞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우선은 서유기 작가가 본 불교의 타락상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네요. 온통 보배로 치장한 절, 200년을 넘어 살았다 하면서 불법의 높은 경지는 보이지 않고, 보물에만 관심 있는 노스님, 결국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탐내어 살인까지도 서슴치않는…. 정말 갈 데까지 가버린 불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그림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스럽다는 종교가 타락하면 가장 무섭게 타락하는 법이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불교사에도 여러 번 그런 극단적인 타락상이 나타났었다는 게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우리 한국불교에서도, 얼마 지나지도 않은 과거에, 종교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던가요? 명분이야 붙이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종교 속에서 재물 때문에, 또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세속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정하고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올바른 종교로 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지 우리의 불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없이 나타났던 부끄러운 일들,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적당히 무마하고 호도하고 넘어가기에 바쁘지 않았는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는 무척 부족한 듯 합니다요.

애고~. 부정적인 이야기 힘빠지는 이야기는 접기로 하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에 대한 탐욕 극복 묘사
타락한 종교의 무서움 표현
관음보살, 악을 없애지 않고 계도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내는 일이야말로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불교가 그리도 이만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이룩한 일이겠습니까? 조선왕조 500년간을 온갖 박해를 당하였지요? 스님들은 최하층 천민 취급을 받아 도성 출입도 못하였지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스님이 마을에 오시면 동네 아이들 "중~중~ 까까중~"하고 놀리며 줄줄 쫓아다녔던 기억이지요. 조선 왕조 때 불교를 천시했던 영향이 저 어릴 때까지 남아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거기에 일본 식민지 지배 아래서 대처승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불교에 지속적으로 암적인 문제가 될 요소가 심겨졌지요. 광복 이후 일본 불교의 잔재를 씻기 위한 노력인 정화불사…. 피치 못하게 폭력이라는 요소가 불교 속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쏟아져 들어온 서구 문명과 서양 종교들…. 그 속에서 불교가 전통문화와 종교를 대표하면서 이만큼 살아남은 것만 해도 불교의 저력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역사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질곡들을 벗어가면서 이 시대의 종교로 곧게 서기 위한 그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온 것이 현대 불교사의 자취 아닌가 싶어요. 그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말기로 하지요. 그렇다고 적당히 변명하고 자기합리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비판은 언제나 엄정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또 역사적 맥락을 분명하게 이해한 바탕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각설하고~. 탐욕의 화신이라 할 그런 스님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네요. 아무튼 이 스님들 정말 대단해요. 그 가운데 그 사찰의 이름이 관세음보살 모시는 '관음선원' 이네요? 가장 나이 드신 큰 스님이 금난가사에 대한 탐욕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거기에 젊은 스님들이 일치단결 노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온갖 꾀를 다 내네요. 결국 뒤가 가장 깨끗한 방법은 현장법사 일행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라는 자연스런 결론? 노스님이 그 귀한 금난가사를 하루라도 가까이 모시고 감상하고 싶다고 청하여 금난가사를 빌린 다음 밤에 현장법사 숙소에 방화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손오공이 거기에 당할 리야 있나요? 그런 일이라면 오히려 손오공이 단수가 훨씬 높다고 할까요? 그 음모를 알아채곤 오히려 역이용하여 자신의 심술을 있는 대로 부려버리지요. 하늘에 가서 떼를 써 현장법사 숙소를 보호할 수 있는 보물을 빌어다 안전하게 만든 다음, 승려들이 지른 불길을 엉뚱한 곳으로 퍼지게 만들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신공(?)이랄까요? 그래서 온 절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애고 불쌍한 스님들…. 그런데 이 절의 뒷산이 흑풍산(黑風山) 흑풍동이라네요. 이 곳에 곰이 변한 요괴 하나가 살고 있었군요. 오랜 동안 수행을 쌓아온 곰 요괴, 탐욕부린 노스님과도 왕래가 있어 불길을 좀 잡아주려 왔다가 금난가사의 광채를 보곤 그것만 훔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결국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손오공과 이 곰요괴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곰요괴의 경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늘을 뒤집어 놓았던 손오공에야 좀 못 미칠지 모르지만, 손오공이 만만하게 때려잡을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다 좀 불리하면 자기 소굴로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상대를 하지 않는 작전으로 나오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 일어난 절이 '관음선원' 이라는 것을 빌미로 관세음보살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지요. 우리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결국 또다시 달려오실 수밖에요. 여기서 우리 거룩하게 염불 한마당하고 갈까요?

"특급소방수 구원투수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마하살~~~."

마침 곰 요괴에게 금단(金丹)을 선물하러 가는 요괴친구요괴를 만나 때려잡고, 잡고 보니 오래 묵은 늑대 요괴였다네요. 보살님이 요괴친구요괴로 변신하고 손오공은 선물용 금단으로 둔갑을 하지요. 그래서 태연하게 요괴의 본거지로 잠입하는 계책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 때 손오공이 보살님 요괴변신을 보고 한마디 이죽거립니다.

"대단하군요, 대단해! 요괴가 보살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살이 요괴가 된 겁니까?"

감히 보살의 본래 면목을 문제 삼는 손오공이군요. 거기에 대한 보살님의 응수, 이게 정말 이죽거리는 손오공의 입을 한방에 뭉개버리는 우문현답(愚問賢答) 이상의 우문현묘답(愚問玄妙答)입니다.

"오공아, 보살이나 요괴나 결국 한 생각일 뿐이지. 근본을 말한다면 모두 본래 없음이니라!"

보살이다, 요괴다 하는 겉모습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한 생각 잘못하면 요괴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보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본디 요괴다 보살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바탕으로 돌아가면, 결국 모습 없고 빛깔 없는 근본 자리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무튼 엄청 우리 머리를 후려치는 사자후 법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삼쾌선생의 느낌에 이 말씀은 정말 음미하고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한참 음미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이런 보살님의 엄청난 의미를 담은 말씀에 손오공도 무언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휙 몸을 한번 뒤채는 순간 금단으로 변화를 하지요. 금단으로 변한 손오공이 요괴의 뱃속으로 들어갔네요. 아무리 요괴라도 뱃속에서 난동을 부리는 데야 무슨 수가 있나요? 결국 백기, 항복, 살려주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손오공이 분풀이삼아 여의봉 꺼내 단매에 때려죽이려 하는 그 순간! 보살님 급히 말리시네요. "잠깐! 그 애 좀 쓸데가 있구나. 죽이지 말거라!" 요괴 데려다 어디다 쓰시려나 했더니 보살님 사시는 낙가산 뒤를 지킬 사람이 없는데 마침 잘 되었다는 말씀~.

마음을 가라앉힌 요괴에게 계를 베풀어 주시고, 긴 창을 잡게 하셔서 낙가산 뒤를 지키는 수산대신(守山大神)으로 임명하셨네요. 갑자기 요괴의 신분에서 보살님 거처를 지키는 신으로 호적이 옮겨져 버렸지요?

그런데 이 대목,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아까 나왔던 오묘한 이야기, 보살이나 요괴나 다 한 생각이라는 말에 이어서, 요괴가 보살 문하로 호적을 옮기는 이야기…. 무언가 연관성있는 이야기인게 틀림없겠지요? 본래적으로 악한 존재가 따로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는 본래 악이니 없애버려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닌가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또 세상의 풍조를 한번에 뒤집을 전기가 바로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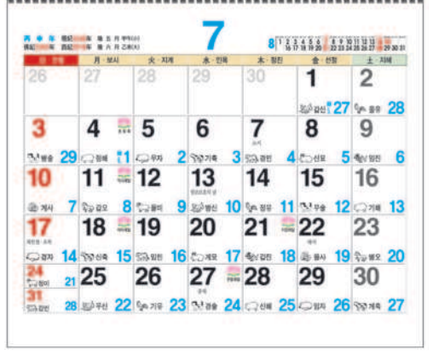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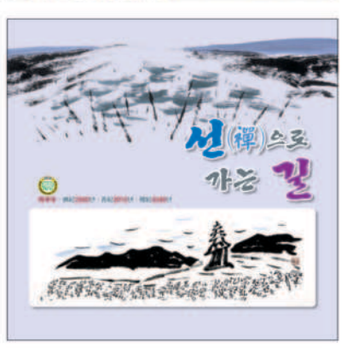












변치않는 자아는 어디에도 없다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7〉



아침해 아래에서 수행하는 사람. 변치 않는 자아는 없음을 알아야 탐욕을 끊을 수 있다.

2) 탐욕 · 분노와 자아환각

탐욕은 분명 욕망에 대한 지칭이지만, 모든 욕망이 탐욕은 아니다. 해탈하려는 욕망을 탐욕이라 할 수는 없다. '모든 언어를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는 것은 연기 깨달음의 연장선에 있다. '탐욕' 이라는 말도 연기적, 다시 말해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두 유형의 욕망을 그 발생조건에 따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족시켜야 할 욕망과 풀려나야 할 욕망을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계기는, 사유능력과 언어능력 및 자아의식의 발달과 맞물려 있을 것이다. 고도의 사유능력과 언어능력, 이에 상응하여 독특하게 발달한 자아의식. -진화과정에서 이들이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이 세 면모를 조건으로 삼은 독특한 욕망이 발생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독특하게 강화된 '자아의식에 의거한 욕망' , 분석 · 판단 · 평가하며 기억하고 예상하는 '사고능력에 의한 욕망' , 개념의 체계를 만들고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언어능력에 의거한 욕망.' -인간의 이러한 욕망은 생존과 번식의 생물학적 욕구의 수준과는 분명 차원을 달리한다.

생존과 번식 충동에 따른 생물학적 욕망을 1차 욕망, 사유 · 언어 · 자아에 의해 발생한 욕망을 2차 욕망이라 부른다면, 지금 우리의 몸은 진화과정에서 수립된 생물학적 1차 욕망과 인간적 2차 욕망의 궤적들을 모두 계승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강력한 오염과 해악의 면모도, 독특한 희망과 특유의 가능성도, 모두 2차 욕망에서 발생한다. 붓다는 인간 욕망의 이러한 이중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희망과 긍정의 면모를 구현하는 길을 설했다. 따라서 '불교는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한다' 는 식의 이해는 비연기적 오독(誤讀)이다. 1차 욕망이든 2차 욕망이든, 욕망은 크게 두 유형이다. 하나는 '유익한 욕망 · 욕구' 이고, 다른 하나는 '해로운 욕망 · 욕구' 이다. 탐욕은 명백히 후자에 속하는 욕망이다.

결핍을 채우려는 충동을 '욕망' 이라고 하고(욕망과 욕구라는 용어는 굳이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욕망은 '생존과 번식' 본능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물학적 시선도 수용해 보자. 그리고 욕망을 '1차 욕망과 2차 욕망' 혹은 '생물적 욕망과 인간적 욕망' 으로 구분하자. 1차 욕망 혹은 생물적 욕망은 생존과 번식의 결핍을 채우려는 충동으로서, 이 욕망은 결핍상태만 해소되면 그친다는 것이 특징을 지닌다.

인간의 욕망도, 일차적으로는 '생존과 번식' 의 본능충족과 관련된 감관의 결핍에서 생겨난다는 점에서는, 생물적 1차 욕망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생물적 결핍이 해소된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허기를 느낀 사람이 라면을 먹을 때 옆에서 아는 사람이 비싼 요리를 먹는 것을 보면, 그는 라면으로 배를 채워 식욕이 해소되었지만 만족스러워 하지 못한다. 추워서 낡은 옷을 입었는데 친구가 고가의 명품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비록 춥지는 않지만 옷에 대한 욕망은 해소되지 않는다.

생물적 감관 결핍이 충분히 해소되었지만

'불변자아' 에 대한 의식은 본능

탐욕, 우회적 자아 본능서 비롯

관련된 욕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인간 특유의 강한 '자아의식' 때문이다. 사유능력과 언어능력에 의거하여, 타자와 구분되는 자아를 '인식적' 으로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다. '자아를 인식적으로 경험한다' 는 것은 자아를 개념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개념적 인식에 의해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다. 개념적 경험에 의거한 인간의 인식적 자아감은, 여타 생물들의 본능적 자아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진화과정의 그 어느 단계부터인가 뚜렷해진 이 독특한 자아의식과 자아감은, 논리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도의 사유능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뇌의 발달과정에서 본다면, 영장류 인간의 뇌에서 목격되는 대뇌 신피질의 형성과 보조를 맞춘다.

긍정으로 찬탄하든 부정으로 비판하든, 인간의 행보를 관통하는 거대한 허구는 '불변자아의 관념' 이다. 인간의 자아의식은 '불변의 자아' 라는 관념을 본능처럼 품고 있다. 자아 혹은 자아 안에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자아의 핵심이고 본질일 것이라는 본능과도 같은 신념을, 인간의 자아의식은 거의 무의식처럼 품고 있다. 만약 불변의 자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실제로 있다면, 인간은 그것으로써 자아감을 충족시켜 동요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변의 그것' 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자아감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자아 내지 존재라고 부르는 것 그 어디에도 불변의 것이 목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은 자기를 재인식하는 강한 자아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를 확인하여 뚜렷하고 안정적인 자아감을 경험하려 한다. 만약 불변의 자아가 실제로 있다면, 이 자아감의 확보는 쉽게 성공할 것이다. 그 불변의 자아야말로 선명하고 안정적인 자아감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의 존재를 불변의 안정으로 경험하고 싶지만, 변치 않는 자아는 어디에도 없다. 자아를 불변자아에서 확인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게 마련이다.

이 특수한 인간적 사태에 대응하여, 인간은 발달한 사고능력에 기대어 우회적 해법을 선택한다. 탐욕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을 종합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목격된다. '감관쾌락의 보존' '소유' '비교' 를 통한 자아확인이 그것이다. 탐욕이라는 욕망은 이러한 우회적 자아확인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탐욕은 '강한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의 고착' 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첫 번째 방식은 '감관쾌락의 보존을 통한 자아확인' 이고, 이 과정에서 탐욕이 발생한다. 니까야 · 아함에서 모든 붓다 설법의 출발점처럼 등장하는 '감관적 쾌락에 대한 욕망' 이 이에 해당한다.

동물의 본능적 자아감은 오직 감관의 1차적 지각에 의하여 성립되며, 감관의 생물적 결핍을 해소할 때 발생하는 쾌락감을 조건으로 한 생존 자아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간의 자아감은 1차 지각을 재가공한 2차 지각인 인식적 경험들에 의해 수립되며, 동물과 같은 1차적 생존 자아감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개념적 · 인식적 자아감에 의해 자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감관의 생물적 결핍이 해소될 때 느끼는 쾌락을 단지 생존 자아감 차원에서 경험하지 않는다. 감관의 결핍이 충족될 때 인간은, 생존 자아감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한 쾌락을 경험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적 자아감을 확인한다. 쾌락이 생존 자아감을 확인시키는 조건에 그치지 않고, '1인칭의 개념적 · 인식적 자아' 를 확인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개념적 · 인식적 자아감은 동물의 생존 자아감에 비해 지속적이고 자아의식적인 자아감이다. 기억하고 비교하며 자아를 재인식하기 때문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흘러간다

"벗들이여, 일체 모든 것은 타고 있다. 일체 모든 것이 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벗들이여, 눈이 탄다. 눈의 대상이 탄다. 눈이 닿는 곳, 눈에 보이는 일체 모든 것이 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에 의해 타고, 노여움의 불에 의해 타고,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타고, 늙음과 병듦, 죽음에 의해 타고, 걱정과 슬픔, 고통과 번뇌, 절망과 공포에 의해 끊임없이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석가는 이어서 귀와 코, 입과 몸이 타고 있다며 같은 뜻의 말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의 말씀은 〈상응부경전〉과 〈잡아함경〉, 그리고 〈율장〉에 기록돼 있는 석가의 말씀이다. 석가가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가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상두산(象頭山)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 설법했다 해서 유럽의 불교학자들은 이 설법을 '산상의 설법' 이라고 브르고 있다. 또한 이 '산상의 설법' 을 리석으며 노여움의 불길을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를 불교의 최고 이상향인 열반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고 있는 존재다. 석가의 말씀처럼 쉼 없이 타고 있는 불길 속의 존재인 것이다.

어느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뇌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중 5%만이 이성적 사유의 바른 판단을 즐길 뿐 그 남은 95%는 지극히 동물적이어서 음식을 보면 먹으려고 하고 다른 이성을 보면 짝짓기를 하려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동물의 세계처럼 인간의 세계도 알고 보면 지극히 동물적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5%의 뇌의 활동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산상설법' 을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길이 타고 있는 존재라고 규정지은 다음, 눈이 탄다, 귀가 탄다, 코와 입이 타고 몸과 의식작용이 타고 있다고 말

집념은 인생 성공과 행복의 열쇠
집착은 아무 쓸모없는 삶의 쓰레기

예수의 '산상수훈' 에 견주려는 학자들도 있다.

이 '산상의 설법' 이 있기 이전까지 석가는 욕망과 욕구의 충동을 갈애(渴愛)라고 하여 목마름으로 비유해 설명했다. 처음으로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해 연소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하다.

불교의 최고 이상향으로 일컬어지는 니르바나의 의미도 '불이 꺼진 상태' , '연소의 소멸' 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열반의 참 의미를 경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응부경전〉과 〈잡아함경〉에 있는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과 그의 벗인 외도가 나눈 대화이다.

"친구 사리불이여, 흔히들 열반이라 말을 즐겨 하거니와 그 열반의 참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벗이여, 열반이란 탐욕에 의한 불길의 소멸, 노여움에 의한 불길의 소멸, 어리석음에 대한 불길의 소멸을 일컬어 열반의 참의미라고 말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탐내고 어씀하셨겠는가. 타고 있는 것은 눈, 귀, 코, 입 그리고 몸과 의식작용 뿐이 아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들도 타고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눈과 귀 등의 여섯 군데의 불길은 다른 외부로부터 점화되는 것이 아니라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음을 불씨로 하는, 식을 줄 모르는 집착심이 내부 한 구석에서 기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름 역할의 집착심이, 타는 불길의 가장 큰 장애임을 알아야 한다. 집착해 집요하게 한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집념이 일을 성사시키는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면 집착은 구걸하는 거지의 눈곱과 같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삶의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여 집념으로 이뤄내지 못한 일을 집착이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닌 것이다.

그대에게 다시 말한다. '열반' 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삶의 쓰레기로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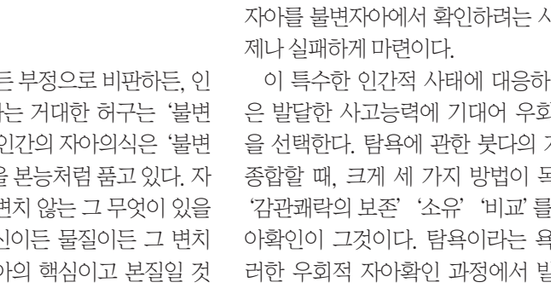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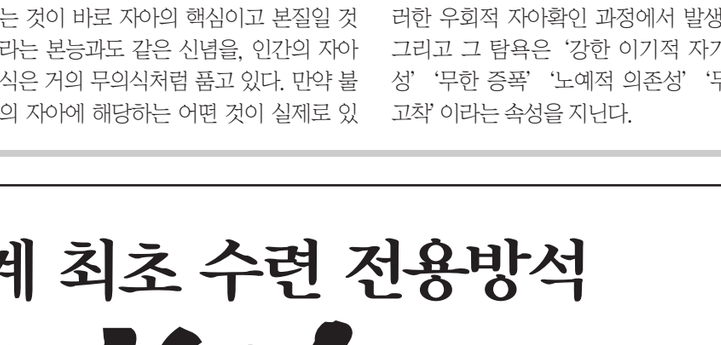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로힝야족, 아웅 산 수치 승리에도 '불투명 미래'

미얀마 민주화 상징 '수치 여사'
소수민족 자유 대변할까 '주목'


아웅 산 수치 여사. 사진출처=ibtimes


미얀마 라카인(Rakhine)주의 주도 시트웨(Sittwe)에서 시민권을 가진 로힝야족 남성이 지난 11월 8일 열린 미얀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출처=REUTERS

11월 8일 미얀마 총선 압승
난민 로힝야족 구출여부 '관심'
국제인권단체들 기대 모아
"침묵 일관할 것" 비판 여론도

25년 만에 열린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전국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승을 거두며, 미얀마에 '민주화 바람' 이 불어왔다. 이에 따라 53년 간 이어 온 군부독재에 의해 탄압받던 '로힝야족 보트피플' 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시아지역 인터넷언론 'Asian Correspondent' 는 11월 19일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아웅 산 수치 여사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을 간절히 믿고 있다" 면서 "최근 국제인권단체들도 일제히 수십 년 이어온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극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아웅 산 수치는 미얀마 내에서 '민주주의의 꽃' 으로 평가된다. 1988년 민주화 시위 후 반군부 투쟁을 시작한 이후 미얀마 평화와 민주화를 주창해오며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에 지난 1990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으나, 군부가 총선결과를 무효화하며 아웅 산 수치를 15년 간 가택 연금한 바 있다.

'Asian Correspondent' 는 키아라 포미치(Chiara Formichi) 코넬(Cornell)대 아시아학과 교수 말을 인용하고 "몬(Mon) · 산(Shan) 등 많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NLD를 위해 투표했다" 면서 "이는 자신들의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자신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나설 것이란 기대다. 그들은 오직 NLD만이 미얀마의 실질적 혁명을 가져올 거라 믿고 있다" 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웅 산 수치가 정치적 야망으로 로힝야족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회의를 표했다. 아웅 산 수치는 내년 초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선 여전히 25%의 상하원의원 지명권을 가진 군부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없으며, 불교도 국민들의 여론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로힝야족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견해다.

탄압을 피해 현재 인도 서부 델리의 바이카스푸리(Vikaspuri) 지역으로 쫓겨 온 로힝야족 오마 린(Ohmar Lynn · 32)씨는 'Scroll In' rhk 인터뷰에서 "대선이 끝난다해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 총선을 앞두고도 우린 똑같은 기대를 했다" 면서 "아웅 산 수치 여사는 정치적 군림을 위해 로힝야족 난민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 이라 말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로힝야족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2012년 로힝야족이 탄압받을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부분이 불교도인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실상 아웅 산 수치는 영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뒀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 혹은 자녀를 둔 자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 는 미얀마 법에 따라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순 없다. 그러나 최근 아웅 산 수치는 BBC등 외신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질적 통치자로 대통령 위에 있을 것" 이라는 강한 발언을 내뱉으며, 자신의 대리인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 암시했다.

한편,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90% 이상인 미얀마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 민족이다. 그간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혼인 금지 등 가족법을 도입하며 로힝야족을 탄압해 왔다.

3년 전 미얀마 라킨(Rakhine) 지역에선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내전이 발발하기도 했다. 이에 2천여 명 이상 로힝야족은 대형 보트에서 생활하는 '해상 피난민' 이 됐다. 보트 난민 생활을 하는 로힝야족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실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 펜실베니아 불교학교 '폐교 위기' 처해

재정 압박 못 견뎌… 교직원 및 학부모 '학교 살리기 운동'



펜실베이니아 한적한 시골인 벅스 카운티(Bucks County)에 설립된 불교학교 티니컴(Tinicum)이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1997년 지역 유력 정치인의 상속자가 세운 불교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필리닷컴' 은 11월 14일 "펜실베이니아 한적한 시골인 벅스 카운티(Bucks County)에 설립된 티니컴(Tinicum)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며 "펜실베이니아의 유명 정치인 하인즈 상원의원의 장님 H. 존 하인즈 4세(상속자)가 불교를 운영 가치로 삼고 설립한 티니컴 학교가 재정 악화로 올 연말까지 폐교된다" 고 전했다.

'필리닷컴' 에 따르면 티니컴 학교에는 학습부진과 언어장애를 초래하는 '아스파거 증후군' 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명상과 공부를 병행하던 학교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받으며 발전했다. 학교 예산 대부분은 하인즈 4세가 부담했다. 종교 관련 학교는 지역 교육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초창기 1인당 2만 8천 달러였던 학비는 18년이 지난 지금 8만 5천 달러로 늘어났고, 결국 H. 존 하인즈 4세는 폐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티니컴 살리기' 에 나섰다. 학부모 페니 에팅커(Penny Ettinger)는 '필리닷컴' 과 인터뷰에서 "부유한 상속인의 후원에만 의존하는 게 교육 재단의 종속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H. 존 하인즈 4세와 교육 당국의 새로운 결심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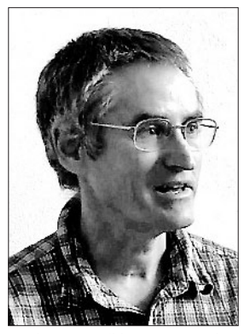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필리닷컴〉은 "학교법인의 폐교 수순은 진행되고 있다" 며 "만약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지역 사회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명문 정치가 집안으로서 지역 민심에 귀 기울어야 하는 H. 존 하인즈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이들 명상, 참구보단 대화로"

마샤 로즈 등 美 명상 전문가들 '이구동성'


마샤 로즈(Marcia Rose)


길 프론스델(Gil Fronsdal)


마이클 그레디(Michael Grady)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상좌부 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있는 명상 전문가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Lion's Roar' 는 11월 13일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첩경은 부모와 함께 사원이나 센터를 방문해 수행자가 직접 진행하는 명상과 토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그룹 인터뷰에는 'Insight Meditation Society' 의 마샤 로즈(Marcia Rose), 'Spirit Rock Meditation Center' 의 길 프론스델(Gil Fronsdal), 'Cambridge Insight Meditation Center' 의 마이클 그레디(Michael Grady) 등 3명의 명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 중심의 명상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붓다다르마(Buddhadharma) 프로그램에 대중의 호응이 컸다" 는 데 주목한 마샤 로즈는 "부모와 자녀가 명상이나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고 반목과 치유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며 "이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이 되었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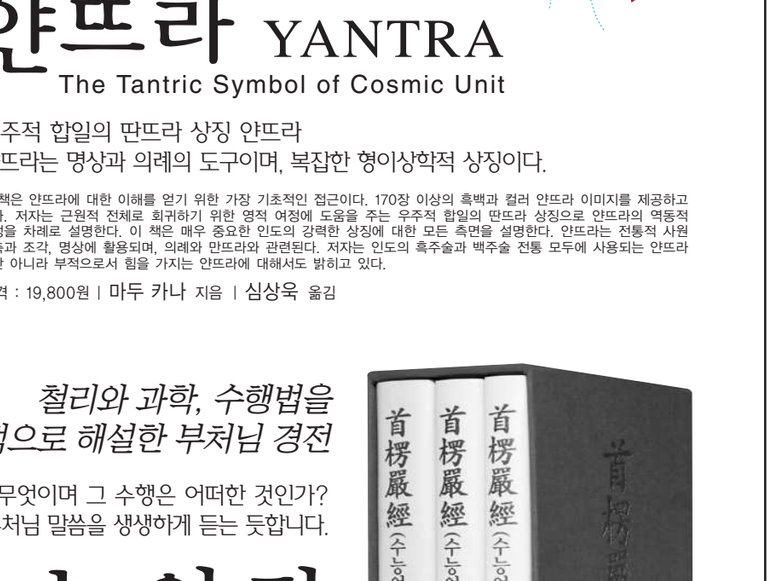
현재 마샤 로즈는 뉴욕 올리언즈 카운티의 휴양지인 바(Barre)의 'Insight Meditation Society' 에서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교감만큼이나 '힘찬 포행' 도 아이들과 불교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한다" 고 전제한 길 프론스델은 "아이들에게는 참구 보다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질문에 귀 기울이고, 명상 홀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다니도록 해야 한다" 며 "아이들에게 수행자와의 대화와 명상 홀에서의 '힘찬 포행' 은 그 자체가 '불법 탐험' " 이라고 강조했다.

길 포른스델은 캘리포니아 해안도시 레드우드(Redwood)의 'Spirit Rock Meditation Center' 에서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밖에도 "매주 일요일 2시간씩 10세~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는 마이클 그레디는 "3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마음챙김과 윤리' '마음챙김을 왜 해야 하나' 등을 주제로 스님과 명상지도자와 함께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며 "마음챙김은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이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마이클 그레디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Cambridge)의 'Insight Meditation Center' 에서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딜고 크엔체 양시(Dilgo Khyentse Yangsi · 사진 맨 오른쪽) 스님이 이이들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실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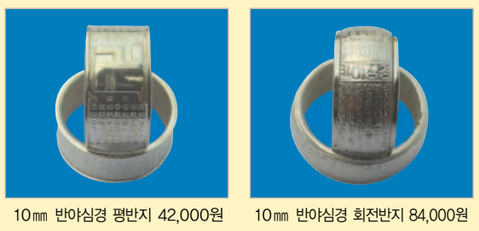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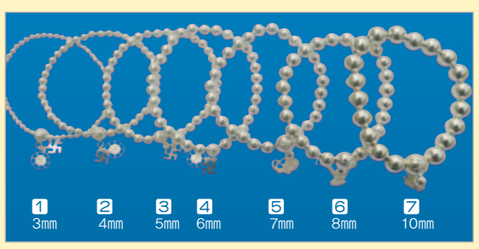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10㎜ 반야심경 평반지 42,000원

10㎜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송헌 전기만 목조각장이 불상 조각 시연을 하고 있다.

정성 다한 끌질에 나무가 부처로

송헌 전기만 목조각장 문도 불교목조각장 전승전 열어

목조각은 목재를 깎고 다듬어 유용하게 쓰려는 데서 비롯된 오랜 전통을 가진 기술로써,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한국의 목조각은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후 사원건축과 불상조각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불교유물에 뛰어난 목조각 작품이 많다. 그러한 까닭에 목조각장은 대체로 불교 목조각의 전통적인 기술을 전수받아 이 일에 종사해온 장인 또는 그 기능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기능보유자인 전기만 목조각장은 세수 82세의 노거장이다. 192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후 1958년 이래 목조각의 기능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혈혈단신으로 월남한 전 목조각장은 이후 대구와 대전을 근거지로 목조각 활동을 이어왔다. 전 목조각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 기능보유자인 석정 스님의 지도에 따라 조선시대 목불을 연구해 보라는 가르침에 1970년대에 들어서 불교조각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전 목조각장은 수백여 구가 넘는 각종 형식의 불교조각을 완성했다. 특히 불상의 양식에 있어 통일신라의 고전양식과 조선시대의 불상이 가진 독특한 고전양식의 한 전형을 시도하고 이를 표현하는데 원만하고 무리 없는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목조각장은 1984년 해인사 암자 불사에 참여한 이래 해인사 등 전국사찰에서 목조각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제2회 송헌 전기만 문도불교조각전에는 이런 전기만 목조각장의 작품을 비롯해 인천 무형문화재 이방호 목조각장, 오금백 전수조교, 남기설, 장영춘, 문용대 이수자 등 문도 16명의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전기만 목조각장은 20일 직접 대중들 앞에서 목조불각 제작을 시연했다.

"50여년 째 불상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품을 조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불상을 조성하지만 완성해 놓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수양이 덜 된 것 때문이겠지요."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수양 부족으로 겸손을 표하는 모습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날 선보인 전기만 목조각장의 아미타여래좌상은 은행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은행나무를 껍질째 보관해 서서히 건조시켜 뒤틀림을 미연에 방지한다. 여기에 옻칠을 입혀 갈라짐을 방지한다. 단정한 자세이면서 균형잡힌 얼굴 표정, 당당한 어깨, 안정감 있는 무릎 등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뛰어난 조선시대 불상과 닮아 있다.

전 목조각장은 "목조각과 불법의 인연을 따라 같은 길을 가게 된 제자들과 전시회를 꾸리게 돼 큰 영광"이라며 "불자들의 예경의 대상인 불상을 대중전시로 드러내 조심스럽지만 우리네 조형전통 전승을 성실히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헌 전기만 作 아미타여래불상

수묵화의 현대적 변용 '눈길'

'당대 수묵전' 11월 29일까지 학고재 갤러리서

검은 먹과 하얀 화선지는 수묵화를 그리는데 필수요소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회화의 전통을 과감히 벗어던진 새로운 시도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11월 29일까지 서울 학고재갤러리에서 열리는 '당대 수묵 전'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독창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수묵으로 입문했지만 기존의 재료와 방법, 주제에서 탈피해 실험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으로 수묵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중 조환(57) 작가는 중국 당나라의 서예가 장욱(張旭)이 쓴 반야심경을 철판 위에 그려냈다. 학고재 갤러리 전시장 한 쪽 벽면을 꽉 채운 조환 작가의 작품의 앞에는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녹슨 나룻배가 자리하고 있었다.

'무제'로 이름 붙인 이 작품은 불교의 가르침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조환 작가는 철판에 글씨를 쓴 뒤 이를 바탕 삼아 레이저로 글씨를 오려냈다. 문자반야는 방편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형상화 한 것이다. 조환 작가는 "붓 대신 용

한중 수묵의 새로운 담론 모색
현대재료 활용 팝아트로 표현
장위 등 중국 화가 2인도 참여

접기를 잡은 것일 뿐"이라며 "먹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 고정불변인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일필휘지로 다양한 연작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김호득(65) 작가는 광목천에 일획의 선을 그은 현대적 수묵화 '겹-사이'를 선보였다.

김호득 작가는 "현대 수묵은 절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먹으로 현대적 감각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두(57) 작가는 '별을 보여드립니다-붉은 땅'과 '싱그러운 폭죽'에서 봄꽃을 필묵으로 그린 후 오려내고 남은 바탕 종이를 넓은 장지에 붙였다.

이를 통해 원래의 화사한 바탕색이 필선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김 작가는 "동양화와 서양화 모두 최근에는 전통을 현대적 요소를 통해 소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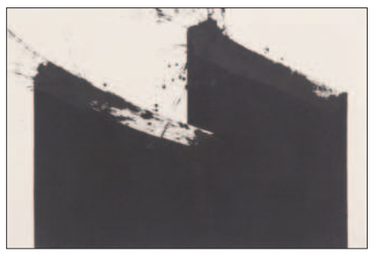
또 사제지간인 중국작가 장위(56)와 웨이칭치(45)는 무거움과 가벼움의 상반된 작품을 보였다. 먼저 스승인 장위는 수묵의 주요 도구인 운필을 버리고 손을 사용했다. 도장을 찍는 지문행위를 반복한 작품 '지인'은 수묵화의 본 고장인 중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었다.

제자인 웨이칭치의 그림 '파라마운트산을 점령하라 2'는 할리우드 영화사인 파라마운트사의 로고를 패러디해 먹으로 그린 산 위에 중국을 상징하는 오성기의 별무리를 수놓았다.

학고재 측은 "아시아 동시대 수묵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가려고 기획했다"며 "동명의 제목으로 1년 6개월 간격으로 지속해서 개최해 수묵화의 겹을 두껍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02)720-1524 **노덕현 기자**


조환 作 '무제'


김선두 作 '붉은 땅'


김호득 作 '겹-사이'


웨이칭치 作 '파라마운트산을 점령하라'


장위 作 '지문행위'

박연정 무용단, 비움의 미학 '똥' 공연

11월 29일 초연…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지원사업


박연정 무용단의 '똥' 공연 모습

청년연출가 박연정 무용단의 '똥'이 11월 29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우수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똥'은 채워지면 비워야한다는 단순한 이치를 망각하고 욕망만을 품은채 순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연극 속에는 설치미술과 영상, 한국무용,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무대에 풀어낸다. 공연은 29일 오후 4시, 7시 두차례 열린다. 한편, 이번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은 총 6000만원이 지원되며 선정심사가 쇼케이스로 진행돼 화제가 됐다. 쇼케이스에 참가한 연출가는 박정윤('TANZ in Busan'·무용), 박영준('영이 돌아오는 길'·연극), 이재은('빌려간 도시'·무용), 박연정('똥'·무용·사진), 김효영('Hiker'·연극) 등이었다. (051)745-7252 **노덕현 기자**

한국 사경 작품의 끝을 본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10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

외길 김경호 씨를 비롯한 40여 작가들이 참여하는 제10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술세계 갤러리 5층에서 열린다.

'삼매 속에서 영근 법사리, 사경(寫經)'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초대전에서는 삼무의 핵심요소인 '삼매' 속에서 쓰여진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현대사경 창작품들과 함께 권자본, 절첩본 선장본과 같은 전통양식과 묵서, 금니, 은니 경면주사 등의 전통재료로 서사한 작품들이 고루 선보인다.

외길 김경호 명예회장은 '사경삼매'에 대해 "모든 분별이 녹아 버린 상태"라며 "그렇기에 사경삼매에 들게 되면 모든 업장조차도 존재하지 않음을 체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삼매의 공능은 숙세의 업장마저도 얼음이 녹듯 녹여버리는 것으로 그 속에는 고요한 행복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미술세계 백용현 대표이사는 한국사경연구회원전에 대해 "사경은 과거의 유물을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현존하는 전통을 수행자가 실현시키기까지의 과정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02)2278-8388 **노덕현 기자**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12절:상호인쇄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9.5cm • 매수:16장

사비백제의 랜드마크 '정림사' 위상은?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 · 신라 · 고구려 · 중국 소조상 고찰

부여 정림사(定林寺)는 백제가 123년간 수도로 삼았던 사비도성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왕궁터로 추정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과 궁남지 사이의 정중앙에 바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서있다. 정림사는 사비백제의 랜드마크였던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왕실사찰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현재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림사의 역사와 위상을 살피는 문물교류전 '백제 정림사와 북위 영녕사(永寧寺)전'이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린다.

중국 뤄양박물관과 함께 개최하는 기획전은 194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정림사의 유물을 집대성해 보여준다. 특히 정림사의 창건 시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의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낸다.

제1부 '정림사, 사비 도성의 중심에 서다'는 백제 성왕이 웅진(공주)에서 사비로 천도한 뒤 사찰이 세워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중국제 도자기와 다리 달린 벼루, 연꽃무늬 수막새 등 생활 유물과 건축 부재를 함께 보여준다. 또 일제강점기 정림사지를 조사한 후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의 발굴 일지를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다.

제2부는 '정림사, 백제 불교문화 교류의 상징'을 주제로 정림사에서 나온 소조상(塑造像)과 고구려, 백제, 중국의 소조상을 비교한다. 소조상은 흙으로 구운 형상으로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농관을 쓴 소조상. 특별전에서는 중국 뤄양박물관의 소조상과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죽은 자를 매장할 때 함께 묻는 껴묻거리가 아니라 목탑 내부 벽면이나 기둥의 장식물로 사용됐다. 특히 북위의 수도였던 뤄양의 영녕사 소조상 40점과 정림사에서 출토된 소조상 200여 점을 비교 고찰해 양국의 교류문화를 살핀다.

제3부 '정림사, 백제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백제멸망 후에도 정림사가 명맥을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이 석탑 탑신에 새긴 글의 탁본을 처음으로 모두 전시하며, '대장당초'(大藏當草)명 기와도 만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비백제와 북위에서 각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정림사와 영녕사의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41)833-856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돌아온 기와들 '이우치 컬렉션' 전

2016년 7월 16일까지 서울 종로 유금와당박물관에서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전이 열린다. '이우치 컬렉션' 전에는 고구려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평양 청암리 절터의 '도깨비얼굴무늬(귀면문) 마루끝기와'와 평양 안학궁에서 출토한 '연화문수막새'를 비롯해 백제와 신라, 고려와 조선에 이르는 기와와 전돌 등 165점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유금와당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이우치 컬렉션' 가운데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와전을 선보인다. 특히 고구려의 와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보기 어려운 귀한 유물이다.

'이우치 컬렉션'은 일본 효고현의 아카시시에서 살았던 내과의사 이우치 이사오(1911~1992)가 평생 수집한 한국의 와전을 뜻한다. (02)394-3451

노덕현 기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저술 배경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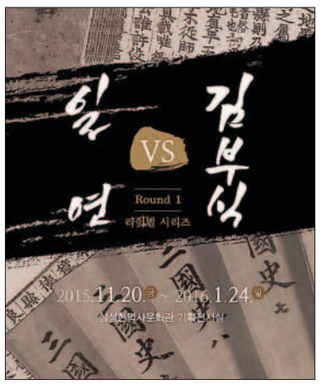
경산 삼성현역사관서 '일연 스님 vs 김부식'展

우리의 역사 중 정사(正史)를 대표하는 〈삼국사기〉와 야사(野史)를 대표하는 〈삼국유사〉를 라이벌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특별전 '일연 VS 김부식' 전이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열린다.

내우외환의 시기였던 고려 중기, 고려 조정에서 김부식(1075-1151)을 포함한 11명의 편찬자를 두고 제작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시각에서, 승려 일연(1206-1289)과 그의 제자들이 참여해 완성한 삼국유사는 일반 백성의 생활상과 불교적 시각이 저술의 바탕이다.

이번 전시는 출신지역이나 신분, 삶 자체가 달랐던 두 역사가가 남긴 역사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다.

또 일연과 김부식의 관련 유물 150여 점과 故이만익 화백의 삼국유사를 모티브로 한 판화 10점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삼성현역사문화관은 이번 '일연과 김부식' 전을 시작으로 '원효와 의상', '설총과 신라 유학자' 특별전을 연차적으로 기획해 역사의 라이벌적 관점에서 삼성현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053)804-7319

노덕현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教

가족은 사랑 실천하는 수행공동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의 이름을 줄여서 응팔이라고 한다. 응칠('응답하라, 1997'), 응사('응답하라, 1994')에 이은 일종의 세 번째 연작이다.

사견이지만 필자는 응팔이 전작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우스꽝스러운 정황들이 복고적이어서 정겹고, 둘째, 전작들에 비해 인물들의 동선이 가족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전편인 응사는 하숙집 주인인 성동일과 이일화의 집에서 딸인 성나정(고아라)과 쓰레기(정우), 칠봉이(유연석), 삼천포(김성균), 해태(손호준), 빙그레(바로), 조윤진(도희) 등이 모여 살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다시 말해 응사의 인물들은 성동일과 이일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생들인 것이다. 하지만 응팔에는 성동일과 이일화 가족 말고도 많은 가족이 등장한다. 성동일과 이일화 가족이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은 김성균과 라미란이다. 성동일과 이일화 가족은 빚 보증을 잘못 서서 반 지하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반면, 김성균과 라미란 가족은 복권에 당첨되어 팔자를 고쳤다.

성동일과 이일화 사이에는 서울대에 다니는 보라(류혜영), 특공대(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진 덕선(혜리), 노안(老顔)의 외모를 지닌 노을(최성원)이 있다. 김성균과 라미란 사이에는 공부 빼고는 다 잘 하는 대입 오수생 정봉(안재홍)과 우등생인 정환(류준열)이 있다. 이 두 가족이 응팔의 두 기둥 역할을 한다.

골목 친구인 선우(고경표), 택(박보검), 동률(이동휘)의 가족도 등장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선우는 편모슬하에서 자라고 있다. 반면 바둑 천재여서 한 해 1억을 버는 택은 편부 슬하에서 자라고 있다. 덕선만큼이나 공부를 못하는 동률의 아버지는 쌍문고 교사이다.

응팔에 나오는 인물들은 마치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루는 형국이다. 드라마의 시작은 골목 5인방 친구들이 자기 집의 음식을 친구 집에 배달하는 것이다. 수행여행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라미란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일화에게 덕선의 용돈에 보태 쓰라고 돈을 건네기도 한다. 그것도 옥수수가 담긴 바구니에 슬쩍 편지봉투를 넣어서.

응팔을 보면서 필자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고 최인호 작가는 〈산중일기〉라는 산문집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가족은 숭고한 삶의 유전이 깃든 공동체인 것이다. 응답하라 1988에서는 그 시대의 인연을 소중히 다룬다.

전작에 비해 폭이 넓어진 등장인물, 얽힌 인연도 많아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과 선이 모여 면을 이루는 관계



응팔에서 덕선은 인연 고리의 중심이다.

"서로 모르는 타인끼리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온전한 인격 속에서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서로서로의 약속을 신성(神聖)하게 받아들이고, 손과 발이 닳을 때까지 노동으로 밥을 빌어먹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다가, 마치 하나의 낡은 의복이 불에 타 사라지듯이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성인(聖人)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야말로 하나의 엄격한 수도원인 셈이다.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은 이미 종신서약을 약속한 수도자들인 것이다. 가족이라는 수도원에서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수양하고 있다."

최인호 작가의 말대로 가족은 또 하나의 수행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수행법은 다름 아닌 사랑을 수양하는 것이다. 가족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초이자 최후의 사회집단이다.

응팔에서 성동일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온다. 장례식장의 풍경은 일상사와 다르지 않다.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더러는 웃기도 한다. 그러다가 장남이 나타났을 때 형제들이 모여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필자는 붓다가 대애도 비구니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대애도 비구니는 붓다의 이모이자 어릴 적 유모였다. 사실상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붓다는 대애도 비구니의 몸 위에 꽃과 향을 뿌리고 이렇게 게송을 읊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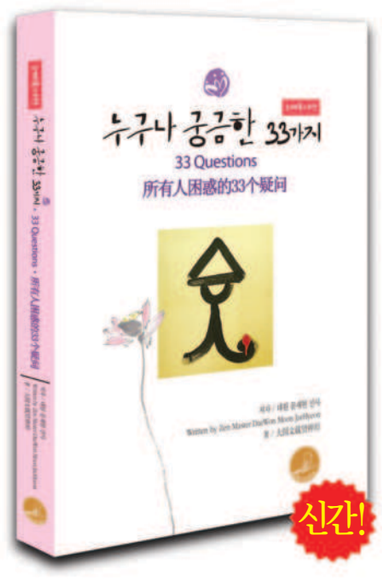
"일체의 현상은 덧없는 것 한 번 나면 반드시 다함이 있네.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나니 이 열반이 가장 큰 즐거움이네."

붓다의 일화에서 필자는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소중한 인연과 헤어져야 하는 법도 배웠다. 이렇듯 가족은 가장 비장하면서도 숭고한 삶의 유전(流轉)이 깃든 공동체인 것이다.

유응오 작가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한영중 3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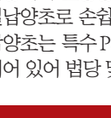


21세기의 인류를 위해 모든 이들이 가장 어렵고 궁금해 하는 문제, 삶과 죽음, 종교와 진리에 대한 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깨달은 이는 실증한 체험을 통해 만인을 마음의 평화와 죽음의 속박을 초월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 책이 그 이변을 앞서서 이끌어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4번째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 031-534-3373 / 도서출판 문젠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12~2015.11.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2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5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기적의명상치료	비디아말라버치	불광출판사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 스님	정토
9	무비스님의전심법요강설	무비	(주)조계종출판사
10	황제내경과생명과학	남회근	부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우리의 후회와 깨달음 내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원영 지음 | 나윤찬 그림
불광 펴냄 | 1만 5천원

불교대학 교수, BBS라디오 〈아침풍경〉 진행자, 강사, 상담가로 활동중인 원영 스님의 두 번째 산문집이다.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멘토로 활동하며 ‘마음 간호사’ 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특히 가만히 들어주는 위로 혹은 이성적인 충고가 아닌 “괜찮아, 스님도 그랬어”라는 솔직한 대화법이 젊은이들에게 따듯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마음의 고단한 짐을 나누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 스님의 바람이다.

이 책에서도 스님은 불우하고 불안한 과거와 수행자로서 겪는 고민을 진솔히 드러내며,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어떻게 건너 성장했는지 들려준다. 이를 통해 스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인생에 대한 초긍정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지금 이 순간과 내일의 기쁨을 위한 디딤돌로 쓰자는 것이다. ‘나는 왜 이럴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과거의 시간에 매여 우물쭈물하느라 인생의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만나고, 사랑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지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마치 꽃이 지고 난 다음 씨앗이 맺히듯이 말입니다. 씨앗이 이듬해 싹을 틔우듯, 오늘 우리의 후회와 깨달음 또한 내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아쉬움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배운다’ 는 말입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배우며, 강인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배우며, 나약함 속에서 용기를 배웁니다. 자신감 속에서 겸손을 배우며,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조금씩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야!’ ”

스님은 수행자의 일상을 솔직하게 그려낸다. 살기 위해서 승려의 길을 택했고, 그러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고뇌하고, 삼천배를 하다 다리가 아파 울고, 첫 방송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자책하거나, 승복보다 트렌치코트가 멋있게 느껴진 때가 있었다는 등등.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고 말하고 싶다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고백한다. 스님의 의도(?)는 ‘스님’ 이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갈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수행자이건 아니건 우리 모두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해피 마인드’ 로 살아가자는 스님의 주문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삶의 수행자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나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끔은 진지하게 물어보라. 이러한 물음들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 날마다 더 좋아질 테니.”

1장 ‘내 삶을 우연에 기대겠습니까’ 는 선택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스님은 인생의 여정서 통과할 단계들을 건너뛰려 말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지 말라고 한다. 용기란 낙하산과 같은 법, 낙하산이 일단 하늘에서 떨어지면 좍 펼쳐지는 것처럼, 시도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며 용기를 북돋워준다. 또 끊임없는 욕망과 갈등, 망설임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더 좋아지게

수행자로서의 진솔한 고민 전해
“인생 의미, 좋은선택 만드는 과정”
11월 25일 전통공연장서 북 콘서트

하는 기회라고 말한다. 우리는 인생의 큰 흐름(선택) 속에 들면 대충 원하는 곳에 닿겠지 생각하지만 인생은 작은 노를 끊임없이 저어나가야 하는 여정이다. 비록 지금 당장 힘들게 보이더라도 좀 더 힘을 내어 걸어가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몸부림치며 어려운 길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지라는 것이다.

2장 ‘기다림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편에서는 일상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스님은 ‘인생의 절반은 꽃. 일 절반, 놀기 절반……’ 의 글귀를 인용하며 앞만 보지 말고 꽃을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내 안의 작은 욕망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은 삶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을 갖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물질과 돈, 집, 직업……, 그 무엇을 가지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님은 행복이란 발견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라고 말한다. 진짜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없다.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 언제나 행복하기 때문이다. 따듯한 눈길로 당신의 일상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라고 스님은 권한다.

이외에도 마지막 제 4장 ‘행복을 준비하는 사이 행복은 지나간다’ 편에서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소심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스님의 해답이 들어 있다. 스님은 평소 운동하듯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라고 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 복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배운다. 그 작은 깨달음으로 인생을 좀 더 좋은 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스님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을 때 ‘극복’ 하려 하지 말고 ‘맞이하자’ 고 한다. 손님처럼 모시고 다독이고 달래어 잠재우자는 것이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불행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을 하나 이상씩 갖고 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불행은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선물 아니겠느냐고 스님은 되묻는다. 한편 원영 스님은 11월 25일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북콘서트’ 를 진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생을 좋은 쪽으로 흐르게 하는 행복한 마음 습관 10〉

1 계속해보는 것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길이다.
2 귀로 들으면 의심스럽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진실하다.
3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듯 좋은 이별도 노력하라.
4 타인의 기억은 인생을 복습할 기회다.
5 남의 말보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 기울여라.
6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7 나보다 잘나가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라.
8 상처받은 ‘나’ 는 과거에 두고 오라.
9 서둔다고 빨리 배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10 사랑을 알면 인생은 완성된다.

▲내가 만난 원영 스님 – ‘청년출가학교’ 서 만난 청년들 이야기

“스님은 은근히 감춰지고 포장된 나의 잘못을 여지없이 건드린다. 둘러대려던 나는 뜨끔해진다. 결국 내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은 처음보다 더 편안해진다. 나는 스님의 이 시원한 직설을 좋아한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면서 엉킨 생각들을 딱 한 마디로 ‘핵심 정리’ 해줄 때는 죽비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든다.”
〈권은경(엔지니어)〉

“스님과의 대화는 어떤 주제라도 가능하다. 맛집이나 영화, 연예인 이야기도 스스럼없다. 이런 스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스님만의 방식임을 나는 알고 있다. 스님을 알게 된 뒤 모든 걱정이 마법같이 없어졌다면 거짓말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가 두렵고 잘 살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하지만 지금은 계획한 길을 걷는 것만큼이나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스님에게서 배웠다.”
〈유진영(의사)〉

절운동 하면서 찾은 ‘건강과 활력’

행복생활지침서

엄재삼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2천원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저자 나이 40대 초반, 아내의 억울한 피소와 개인 사업체 임원의 교통사고 및 사업의 난관 등으로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병과 위장병, 왼쪽 무릎 통증, 허리 통증 등 저자의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한 인연으로 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일 쉬지 않고 절 운동을 하면서 찾은 건강과 활력은 저자의 생활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고,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저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절 수행이 예전에는 불교 안에서만 이뤄졌고, 또한 주로 불교의 수행과 신행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곤 했다. 요즘 들어 절 운동의 운동적 측면에서의 효과와 효능 등이 점차 알려지면서 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거기에 공중파 방송에서 절 운동에 대해 집중 조명된 이후로 운동과 기도 방법으로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절 운동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해인사 성철 스님과 백련암을 중심으로 절 운동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뇌성마비를 극복해낸 한 동양화가의 생생한 이야기와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견 스님을 비롯하여 절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수행자들이 늘어났고, 아울러 절 운동에 대해 주목할 만한 책들이 출간되어 나옴으로써 그야말로 요즈음에는 가히 절 운동이 붐을 타고 있다고 할 만하다.

더욱이 웰빙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명상법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고자 하는 이들의 바램 등이 합쳐지면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과 함께 동시에 웰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절은 더없이 좋은 운동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자는 구체적인 절수행 지침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대인들에게 맞는 절운동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특히, 그동안 나왔던 책들이나, 스님들의 법문, 또 공중파에 방영된 다양한 절 운동의 효과들이 설명되고 있는 바, 저자는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결집하여 지침서가 되도록 만들고자 했다.

이 책은 지난 15년간 아침, 저녁으로 매일 108배 이상을 수행하고 운동하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총 정리하는 의미와 함께 절 운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종교와 무관하게 요가의 완결 동작이 되는 각종 절 동작을 활용하여 강건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10에서 20여분 정도의 짧은 시간과 방석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저자는 사천 구백여 일 절운동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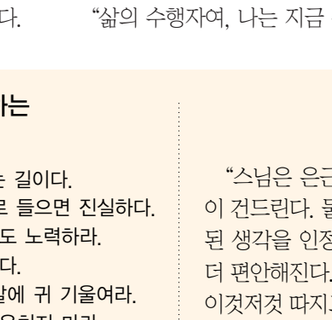
구체적인 절 수행 지침서
15년간 매일 108배 체험

보니 오체투지의 단점이 무릎에 무리를 주고 손상될 수 있음을 느꼈고 절을 많이 했을 시 발이 차가워지는 현상도 확인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나 보약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기존 오체투지 절 운동의 취약점은, 무릎에 많은 체중이 실리게 되어 손상 우려가 있는 외에 발바닥의 좌우 불균형과 손동작 합장자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어깨 근육이나 손목 팔꿈치 관절의 취약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 절 운동을 하는 가운데 무릎에 통증이오고 연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무릎이 닿지 않고 배가 닿지 않는 절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재삼투지법이다.

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령은, 호흡에 몸을 싣고 최대한 탄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전체 기운을 분산시켜야 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저자는 사람에게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절을 통한 건강수행을 생활화 하면서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김주일 기자

육조 혜능선사가 풀이한 금강경!



금강경을 통해 활연히 대오한
육조대사는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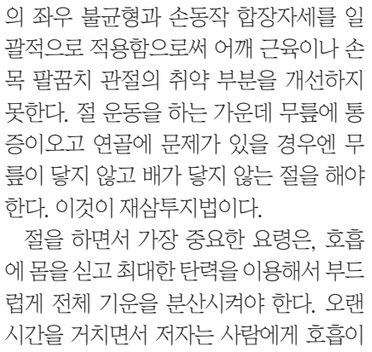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끈 금강경에 대한
혜능의 해설과 근현대 중국 선불교의
종장인 백운선사의 광론이 금강경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육조 술 · 백운 광론 · 이동형 역/신국판양장/336쪽/값 15,000원

금강경육조대사구결
金剛經六祖大師口訣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행복한 마음공부 이야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한평생을 불치병과 함께하며 굴곡진 인생길을 걸어온
저자의 힘겨운 삶의 여정과 고통을 딛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도록 해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최혜자 지음/신국판/384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방대한 불교교리 한권에… 사전식 설명 지양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교리

글 지명 스님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7천원



교리서는 그동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주로 입문서나 사전식 교리 해설서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라는 이유로 극히 협소한 주제만을 다뤘거나 사전식 설명을 나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좀 다르다. 근본불교서 밀교까지 그리고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초기 불교 교리부터 화엄과 선, 정토까지를 중복 없이 총 망라했다. 더군다나 사전식 설명을 철저히 지양하고 공(空)이나 유식(唯識) 화엄(華嚴) 등의 교리를 실제 일어난 사건과 함께 풀어내 방대하고 깊은 내용을 '어렵지 않게,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 불교 교리 전반에 대해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 교리의 출발인 사성제와 십이연기를 시작으로 공(空), 유식, 화엄, 밀교, 정토, 선에 대해 전한다. 1장부터 7장까지 읽다보면 마치 '불교 시간 여행자' 가 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불교 교리서가 방대함을 핑계 삼아 근본 교리의 일부 또는 선(禪)의 일부만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 교리 전체를 누락 없이 한 권에 담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 책의 큰 특징이다. 특히 통상 불교 교리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정토와 밀교 등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 비슷한 분량을 할애해 소개함으로써 불교 교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불교 발달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꾸몄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예화와 사회 현상 그리고 사건을 교리 속에 녹여냈다는 것이다. 어려운 불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때론 옛날이야기, 때론 자신의 경험, 때론 독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심지어는 드라마나 범죄자들의 이야기도 소재로 등장한다. 교리를 설명하며 용어를 나열하고 그 출전만을 뒤지던 여느 교리 책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점은 불교 교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더욱 절절히 다가온다. 게다가 필요한 경우 각 교리 항목에 등장하는 용어 설명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추가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사진과 도표도 다수 첨부했다.

불교 교리 핵심 관통하는 126가지 질문 답

불교 교리 출발부터 화엄, 선, 밀교까지

이해 돕기위한 사진과 도표 다수 첨부

책의 세 번째 장점은 일반 독자들이 불교에 대해 오해하는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준다는 것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불교는 왜 고(苦)라고 주장하는가?"와 같은 독자의 질문은 다시 독자의 눈높이서 친절히 설명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이라는 주장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냐?" 같은 오해가 섞인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를 제시하며 낱낱이 교정된다. 물론 때로는 너무 자주 들어 어쩌면 철지난 유행가처럼 들리기도 하는 오해와 착각의 질문들, 예를 들면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불교는 숙명론인가?" "불교는 무신론인가, 유신론인가?" 하는 질문들은 아예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설명해 놓았다. 특히 마지막 장인 10장의 〈자주 하는 질문들〉 코너를 읽고 나면 불교를 철학으로 오해하는 사례나 숙명론으로 폄훼하는 사례, 그리고 불교가 자력인지 타력종교인지 애매해 하는 상황에 대해 명확히 갈피를 잡아준다. 한마디로 불교는 '왜, 불교 교리는 어떻게' 라는 물음에 시원한 대답이 필요하다면 꺼내들 수 있는 '한 권' 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시작은 이렇다. 1997년 7월 〈불교신문〉에 지명 스님의 '교리 산책' 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사성제' 부터 출발한 이 연재는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주변서 일어난 일이나 사회적으로 벌어진 큰 사건들을 소재로 명쾌히 설명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급기야 연장을 거듭한다. 2001년 1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연재된 분량만 해도 총 160회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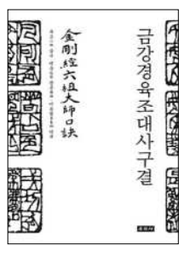
저자 **지명 스님**은?

부산 범어사 강원서 수학했고 동국대 불교학과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템플대학 종교학과서 석사·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의왕 청계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나 지금은 안면도에 있는 안면암, 과천에 있는 안면암포교당 그리고 괴산에 있는 각연사 등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불교신문〉, 월간 〈불광〉 등에 오랫동안 칼럼을 기고했다. 저서로는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불교시대사, 1994), 〈무로 바라보기〉(오늘의 책, 2005), 〈진흙이 꽃을 피우네〉(해토, 2007) , 〈당신은 나의 눈물겨운 인연입니다〉등이 있다.

육조대사는 〈금강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금강경육조대사구결

육조 술 | 백운 광론 | 이동형 역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금강경〉은 한국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선종의 최고 조사로 추앙받는 육조 혜능이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경〉에는 경전을 독송하고 서사하며 남에게 사구게 한 구절이라도 말해주는 공덕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서이기도 할 것이다.

역대로 고승대덕들은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금강경〉을 매우 중시했으며, 당연히 이에 대한 주석서와 법문들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선종에서 〈금강경〉의 중요성을 최초로 선양한 이는 바로 선종의 실질적 초조인 육조 혜능대사이다.

글자도 모르던 혜능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금강경〉의 한 구절서 깨침을 얻을 수 있었을까? 또한 우리는 〈금강경〉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왜 혜능대사와 같은 깨달음은 고사하고 경전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사람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강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금강경〉을 통해 활연히 대오했다는 육조대사는 과연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육조대사의 입을 통하여 직접 알려준다.

이 책은 육조대사가 직접 구두로 설한 것으로 전하는 〈금강경육조대사구결〉의 온전한 번역이다.

이 책은 송나라 때 천태종의 나적(羅適)이 육조 혜능의 〈육조대사구결〉을 간행하고자 10여 년 동안 8종의 책을 모아 교감해 간행한 〈금강경해의〉를 저본으로 하고, 이와 함께 현대 대만과 중국 불교계서 선의 종장으로 명성이 높은 백운선사(白雲禪師)가 〈육조대사구결〉의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선적인 의미를 가미해 풀이한 〈금강경해의광론〉을 함께 번역하고 자세한 주석을 첨부함으로써 육조대사가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이했는가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육조 혜능대사의 풀이에 의한 〈금강경〉 핵심이 담긴 이 책은 불교, 나아가 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할 교과서와 같은 전적이라고 하겠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행복을 짓는 나라, 부탄이 특별한 이유

어떤 행복

린다 리밍 지음 | 하창수 옮김 | 곰출판 펴냄 | 1만 4천원



국민행복지수 1위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대충 그 정도일 것이다. 히말라야의 조그만 불교 나라 부탄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국민의 대다수, 무려 97%가 행복하다고 말할까? 모르긴 해도 국민행복지수 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생각은 거기서 멈춘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친김에 부탄으로 훌쩍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저자 린다 리밍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구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세계를 유랑하며 식견을 넓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히말라야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에 가게 되고, 그 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뀐다. 물론 그때까지 그녀가 부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경관이 수려하고 국민 대부분이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것 정도였다.

언젠가부터 유엔은 물론이고 많은 선진국에서 부탄을 모델 삼아 국민행복정책을 마련하고자 열을 올리고, 신비한 부탄의 비밀을 캐려는 미디어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다. 정교일치의 나라,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역사, 독립적이고 낙천적인 민족성 등등 우리가 몰랐던 부탄의 면면들도 하나하나 드러난다. 하지만 이 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부탄을 낱낱이 파헤쳐 보여주거나 부탄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본 책이 아니다. 저자는 부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우리에게 담담히 들려줄 뿐이다.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 부탄이 특별한 이유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지친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부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그곳에서 배운 지혜들은 변함없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부탄이 지닌 마법과도 같은 특성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부탄은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다. 피난처이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곳이다. 여기에 숨어들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호 받는다는 느낌,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마음이 경주를 멈추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 나를 둘러싼 '소음' 이 잦아들면서 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난다."

세상 끝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다

부탄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어느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저자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1997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을 버리고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나라 부탄으로 떠난다. 그곳에 정착해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부탄인 화가를 만나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는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뭐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오히려 불편투성이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가 부탄에서 유독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실타래를 풀 듯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바삐 바쁜 일상에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무엇인지, '행복하고 싶다' 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작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오래된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은 시간, 일, 돈, 자연, 가족, 타인들, 삶과 죽음, 한 잔의 차, 친절과 관대함, 세탁기로 빨래하기, 깨어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 나의 행복은 여기서 기인한다."

하지만 태어난 미국보다 부탄에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온 그녀에게도 부탄은 여전히 "어떤 범주나 고정관념으로 쉽게 해석될 수 없는 곳"이다. "경이로움과 수수께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신성하고, 변화무쌍하지만 놀랍도록 세속적인 곳. 장작 타는 냄새와 두엄 더미에서 풍기는 냄새, 청정한 산의 공기와 알싸한 고추 향과 그윽한 향 내음이 혼재"하는 곳이 또한 부탄이다. 그녀는 말한다. "만약 케케묵은 생각과 편견에서 기꺼이 벗어날 수 있다면, 부탄은 수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자신과 같은 극단적 처방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꼭 세상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조언

행복이란 무엇일까. 직장이 주는 안정감, 성공, 통장의 잔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타인들과의 관계 등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혹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저자는 자신이 부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슬며시 들려준다. 스물두 가지 일화에 담긴 지혜나 조언들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마음 깊이 와 닿는 것은 오로지 저자가 온몸으로 부딪치며 터득한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탄 사람들 삶의 방식 매우 단순

단순한 존재 되는 법이 행복 비결

"좀 더 단순한 존재가 되는 법을,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유머와 품위를 갖고 살아가는 법을, 자신을 환경에 맞추는 법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물처럼 흘러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것이 부탄에서 살면서 내가 배운 것이다."

속도와 효율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저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영혼' 에 유익한 방식이라고 깨닫는다.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하고, 세탁기를 고칠 부품은커녕 신발 가게도 없으며, 한밤중에 낯선 짐승들과 집안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골 생활. 어찌 보면 심심하고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마음 깊이 배려하는 친절이 생활 깊숙이 배어 있다. 삶의 고통을 함께하는 진한 동료애와 연민마저 느낄 수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렇다고 행복을 찾아서 부탄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네들이 왜 행복한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김주일 기자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선을 배우는 길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조선은 과연 '숭유억불'의 시대였을까

18. 불교와 유교의 패러다임 전환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1,00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사유와 가치, 종교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국적 전통의 근간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되고 1392년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세워지면서 불교의 위상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는 유불교체, 즉 불교에서 유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그것은 사회와 일상의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말선초, 즉 14~15세기 전반에 일어난 유불교체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 집중적으로 나타난 배불론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대표적 유교 경서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사서에 대한 주자의 주석서인 〈사서집주〉가 중국 원대에 과거시험의 필독서가 되었고, 원을 통해 성리학을 수용한 고려에서도 1340년대에 과거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었던 사대부들이 모두 성리학자의 소양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시험의 출제자와 해당 과시의 합격자들이 좌주와 문생,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성리학에 대한 학파적 이해가 심화되었다. 또한 이들이 관료로 활동하고 정국을 운영하게 되면서 유불교체의 서막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고려 말의 불교계는 많은 사회경제적 폐단을 일으켰고 따라서 사찰과 승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앞서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주요 사원들은 원 황실과 고려 왕실의 후원, 권문세가와의 결탁을 통해 막대한 장원과 노비를 소유하는 등 엄청난 재부를 축적하였다. 비록 과장일 수는 있지만 조선 초의 실록 기사를 보면,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는 농지의 약 1/6 정도를 사찰에서 소유하였고 10만 명에 이르는 사원노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되었다.

1170년 무신집권기부터 대몽항쟁을 거치면서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진 전란과 사회적 혼란, 원간섭기에 더욱 심화된 부의 양극화, 이후 왜구의 준동과 홍건적 침입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역을 담당해야 하는 양인의 수는 급격히 줄었고 민생은 피폐해졌다. 양민들이 역을 피해 출가하여 승려가 되거나 생활고에 못 이겨 사원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이는 불교계의 인적 수준 하락과 도덕적 타락을 낳는 요인이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불교계는 교학 연구나 수행풍토의 진작보다는 기복과 공덕 신앙에 중심을 두었고, 교단에 대한 자정능력이 상실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 상태였다.

여말선초에 해당하는 14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계의 패러다임 전환기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원에서 명으로, 한국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 교체가 일어났고,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의 이행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몽골족이 세웠던 원은 오랑캐와 중화가 다르지 않다는 논리로 양자의 통일과 다민족 공생을 추구하였음에 비해, 중국 한족이 세운 명은 우월한 중화문명에 의해 오랑캐의 비루한 문화와 습속을 배격하고 변화시킨다는 화이론적 관념에 투철하였다.

조선 또한 화이론적 세계관을 신봉하는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삼았고, 중화의 도와 인륜을 대표하는 화풍인 성리학을 통해 고려의 토풍, 특히 이념의 대척점에 서있던 불교를 오랑캐 종교라고 하여 거세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2007년 10월 19일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열린 참회법회. 조선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쇠약해진 불교를 다잡았던 봉암사 결사를 기념했다.

여말선초의 배불론은 초기에는 승려의 파행과 사원의 경제적 비대화 등 현실문제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점차 성리학 이념에 기초한 정치와 윤리에 해가 되는 대표적 이단으로서 불교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는 벽이론적 주장으로 옮겨갔다. 당시 유학자 관료들의 글을 보면, 불교는 엄청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고 그로인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기본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에 고려 말부터 이미 승려의 자격을 강화하는 취지의 도첩제 시행이 논의되었고 광범위한 토지개혁이 추진되기도 했다. 나아가 불교는 세속을 벗어난 가르침이며 관념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 국가 운영에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불교는 정교에 위배되고 강상윤리를 부정하는 이단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근본주의적 시각이 개진된 것이다.

조선왕조 개창의 주역인 정도전은 불교가 인륜을 저버리고 국가에 해독이 되는 악법이라고 하여 벽이론적 배불론의 선봉에 섰다. 그의 〈불씨잡변〉에서는 윤회와 인과응보 등 불교의 내세관을 비판하고 화이론적 입장에서 불교는 혹세무민하는 오랑캐 종교라고 매도하였다. 또한 〈심기리편〉에서 성리학에는 인간의 본성 안에 천리가 내재하고 있어 "마음을 통해 본연의 성을 궁구하여 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불교는 마음의 작용을 절대시하여 일체의 현상을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보는데 이는 본성의 이치를 도외시하고 천리의 절대성과 그에 의한 인륜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정도전의 이러한 불교비판론은 주자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다. 주자는 원래 화엄과 같은 불교사상의 본성론과 우주론에서 영향을 받아 성리학의 사유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홍주종 계통의 선종에 대해서는 마음의 작용을 절대화시킨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주자는 불교의 출세간주의가 현실세계에서는 매우 무력하며, 지나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양극단에 빠져서 형평성을 잃고 윤리마저 부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교의 윤회와 업보 관념은 현재의 문제를 무책임하게 내세로 미루는 공허한 관념일 뿐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는 마음이란 감각과 앎의 주체일 뿐이고 천리가 내재된 본연의 성처럼 도덕의 준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교는 마음의 지각작용 그 자체를 본성이라고 믿어 허무와 부도덕을 낳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배불' 이란 통념은 '자학사관'
국가 · 민중 · 문화 등 불교 역할 '충실'
日 다카하시, 불교 부정론 정형화
식민사관 덧씌워져 이미지 고착돼
조선시대 불교 역사 신앙 재조명해야

이러한 배불론의 집중 공세에 대해 불교계가 내세운 대응논리는 불교의 현실적 필요성과 윤리적 정당성, 국가 및 사회에의 기여, 유불의 사상적 일치를 주장하는 정도였다. 즉 불교는 정치와 사회, 윤리의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유교와 불교는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수동적 차원의 변호에 머물렀다.

함허 기화(1376~1433)의 〈현정론〉이나 〈유석질의론〉과 같은 책에서는 불교의 인과론, 계율과 수행 등은 유교의 인과 덕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정치적, 윤리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 태극과 무극, 음양오행 등을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과 같은 불교식 개념과 교리에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불교의 오계(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와 유교의 오상(인, 의, 예, 지, 신)은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일심에 의한 유불일치를 강조하고 공존을 추구하였다.

여말선초의 유불교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역성혁명과 마찬가지로 위로부터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의해 추진되었다. 비록 하부구조와 사회 전체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조선 초의 강력한 억불정책은 '숭유억불'이라는 개념으로 표상되었고 조선시대 불교의 주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그렇기에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여성, 서민 등 비주류의 신앙으로서만 불교가 명맥을 겨우 유지했을 뿐이고 사상의 발전이나 시대를 선도하는 주류사상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단정되었다. 심지어 조선시대 불교는 500년 내내 유학자들의 비판과 공격에 시달렸고 승려는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으며 천민으로 대접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통용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종의 '자학사관'인 셈이다. 상부구조에서 유불교체가 일어났고 조선 초기 사원의 경제적 기반 상당수를 국가가 공적 재산으로 환수한 억불정책이 실시된 것은 사실이다. 또 불교는 조선시대 여성과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서 현세의 복을 기원하고 내세의 염원을 해소하는 매개가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조선시대 불교가 시기별 변동과 부침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한 적이 없고 나아가 다양한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와 불교의 역할, 인적 네트워크의 결성, 지역공간에서 사찰의 기능 등 필수조건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승려 층 내에도 다양한 신분과 층위가 존재하였으며 승려라는 선택적인 출세간의 존재를 신분제 하의 천민으로 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불교의 부정적 이미지는 언제, 왜 만들어진 것일까? 우선 조선시대에 불교가 정치와 사회의 주류질서에서 배제되고 고려에 비해 그 위상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역사상이 인식에 반영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전통의 상이 그려지던 20세기 초의 상황에서 바로 직전의 시기인 19세기의 기억이 보다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는 세도정치와 잦은 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따라서 사찰과 승려에 대한 사적 침탈 등 비정상적 상황이 이전에 비해 훨씬 심화된 시기였다. 그러한 전 시대의 부정적 기억이 식민지시기에 전통의 상을 조형할 때 투영되었고, 더욱이 식민사관의 타율성론, 정체성론이 덧씌워져 부정 일변도의 잿빛 이미지로 그려진 것이다.

조선시대 불교사 개설서인 〈이조불교(1929)〉의 저자 다카하시 토오루는 이러한 부정론을 학술담론으로 정형화시켰다. 그는 조선시대는 억불과 불교의 쇠퇴로 점철되었고 특히 후기에는 불교가 거의 멸절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는데, 이는 조선시대 불교를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 되었다. 해방 이후 식민사관 극복을 위한 내재적 발전론이나 주체적 민족주의에 의해 일제 강점기의 학설이 상당부분 교정되었지만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최근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조선시대 불교는 유교로 대표되는 전통, 서구문명과 기독교로 상징되는 근대의 어느 쪽에도 지분을 갖지 못한 채 학술적 논의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실제의 역사상을 보면, 조선시대 불교는 국가의 억압이나 방임 하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존립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교학과 수행, 신앙 면에서 더욱 활성화된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현존하는 전통사찰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중창되었고 민간신앙까지 포섭해 종교의 지분을 더욱 확대하고 공고히 한 점은 자립적 종교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불교사상의 발전이 없었다거나 시대사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중국이나 일본의 근세불교에서도 나타난 보편적인 양상이지 조선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조선후기에 나타난 임제법통과 간화선의 선양, 선교겸수와 화엄교학의 활성화, 염불의 성행 등은 한국불교의 다양한 흐름을 계승하고 정립한 것이었다. 이는 현재 한국불교 전통의 원형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고려불교와 근현대 불교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전통적 심성과 세계관의 근저에는 일반의 통념처럼 유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불교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와 사상, 수행과 신앙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정적 선입견을 지워버려야 한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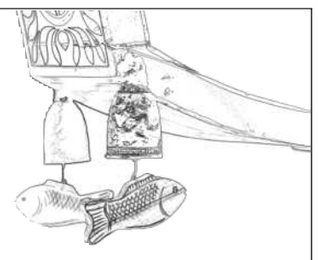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워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 림
010-4630-800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소원성취 원하시는 분

선거당선,취직,부동산매매,
사업성공,시험합격,
동업성공,거액자금후원받
는일,사찰포교원 경영성공
기원하시는 분 연락요망
010-7189-7674
010-5904-3759

불사용 달마도

40×60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
한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달마도를 친필로 그려드립니다
• 5매이상 절이름
스님법명 써드립니다.
010-2953-8770
청암달마원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고찰인 산내암자에서 참선
정진하며 기도도 병행하며
함께 여생을 사원에서 공생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보살님과 공양주와 자기기도
(지장기도)할
비구니스님을 구합니다.
경북 예천 내원암 (연락바람)
054-653-1180.
010-6353-118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 사찰 관리하실 분 65세 이상 1명.
▶ 사찰 과수원 관리에 도움 주실 분 (나이제한 없음)
(충북 단양)
010-5960-2085

비구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남원 관음사)
010-5065-4800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특수한 기도법을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근육테스트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균형을 바로 잡는 터 치 포 핼 스 11월 강의일정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터치포핼스는 근육테스트를 이용하여 우리 몸과 대화하여 증상중심이 아닌 그 증상을 있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체의학요법입니다. 침이나 지압, 마사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하신 분들께 진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자체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잡기 요법입니다. 자신과 가족, 또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터치포핼스〉를 쳐보시면 소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강연회 : 3차 - 11월 12일(목) 밤 7시30분 / 4차 - 11월 1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퍼시픽호텔 우측 지하 〈면역공방 가위 바위 보〉
- 3기 터치포핼스 : 〈1〉코스 : 11월 21일(토), 22일(일) / 장소 : 상동 / 비용 : 30만원

010-3335-0336 김도림 배상 (문의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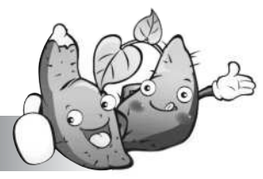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해남 황토 고구마

산지 직송
1BOX 10kg 25,000원
(택배비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3602-04-065595
예금주 : 황향숙
010-3349-880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원격상담문의 010-5801-2203 부천상동역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땅속 혈과 맥을 잡아내는 족집게 도술풍수!!!

太極山水穴脈地理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한다!

- ◆명당은 반드시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다!
- ◆혈과맥 짚어내는 비술 득통(풍수계 최초)
- ◆혈맥터는 반드시 발복흥성 되는 생기복덕처다!

▶ 터감정 명혈점지 알선상담 ◀

절터 · 사업장 · 아파트 · 주택지 · 묘지 · 납골 · 수목장 등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 태극산수혈맥지리는 자연과학과 장심통수련으로 백발백중 감정·점지 할 수 있는 획기적 풍수지리다 : 비술전수자모집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81 절로암 참설당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복의 과보는 즐겁다. 번뇌 모두 사라져 현세에
즐겁고 내세에 근심 없으리라.

- 아함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 (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28평, 1층 방3
- 주방거실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 상단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 법종, 소불 108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5천 월세 3천에 70만원

010-8611-756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원주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290평, 대지200평, 전9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다실 4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3천(조절가능)

010-9070-938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기수도권 ◎ 위치:경기
◎ 대지:200평 ◎ 부지:70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요사:40평
◎ 요사:40평 ◎ 신도시,산 및 차량진입
◎ 양도:9억원 ◎ 양도:14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사찰 최적지 전통 한옥

(밀양 얼음골)

- 총부지 6,200평, 전통 한옥 2채 (45평 30평) 및 한옥보일러실, 해발 400M 전망 최고의 명당
-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인접
- 현재 팬션 운영중
- 가액 : 33억

주인직 010-6563-3122
010-7100-62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 2층 임법당, 대지 99㎡
- 1층 방2, 부엌, 창고, 욕실
- 2층 법당 삼존불
- 옥상 휴게실, 텃밭. 주차가능
- 지하철, 버스, 시장 가까운 곳
- 가액 : 1억 4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 -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270-2
- 평수 : 약 50평(2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함 스님 불사 이전 관계

010-9389-745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토 굴 안 내

- 위치 : 울산 호계부근
- 친견방, 대기실 10평
- 미니 인법당 및 철학관 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관리비 포함)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전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5평, 법당, 방3
- 원목탁자, 삼존불, 탱화3점, 에어컨2대
- 냉장고, 세탁기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8년간 운영(절을 지어 이사하게 됨)

02)762-0108
02)433-0108

사찰(급)안내

-납골당 5,000기 허가 운영중-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47-4외 6필지(447-1,2,3,5,6 산144-5)
- 총부지:31,411㎡터(약 9,501평)
- 건물 : 법당 91.16㎡(28평) / 요사채 81.07㎡(25평)
- 납골당시설, 목조기와대웅전, 목조기와요사채, 납골시설, 풍수, 전경최고
- 교통 : 2차선지방도에서 500m 광주광역시에서 30㎞/장성읍에서 12㎞/ 장성 상무대옆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4115-545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223-487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영산 갓바위 자락
- 대지 225평, 답 289평, 도로인접
- 1층 시멘트 벽돌 슬라브 주택 26.47평 1층 슬라브 창고, 법당 21.22평 1층 시멘트 블럭조슬라브 12평 62평 방4개 응접실, 주방, 욕조, 화장실 0.8평
- 주불 지장보살. 탱화, 신중, 칠성, 산신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억 5천

010-6534-1777
010-3511-67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대출 4천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80평
- 2층 법당 25평 1층 요사채 25평
- 양도가 : 4억 2천 인수 새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고중지.이재무

010-3808-4499
051-925-22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4호선 미아역 5분거리
- 약 30평
- 가액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 현대식 40평
- 가액 : 전세 5년 3천 5십만원 양도 1억 5천만원
- 상세 내용은 스님 직접상담 중간인은 사절

054-822-1345
054-873-2748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덕계 무지개 밑 마을
- 슬라브 독채
- 법당, 삼존불, 시설완비
- 대지 84평, 마당, 주차완비
- 기도처 청정도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901-5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4천만원

010-7161-2108

사찰(급)안내

- 소납이 급히 공사찰 소임관계로 부득이 양도 하고저 하오니 뜻 있는 스님들께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750만원
- 평수 : 35평

051-959-5925
010-3742-5925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심야전기
- 종교용지 대지 포함 약 500평, 전 1,480평
- 가액 : 5억 2천

011-9731-1415
033)762-2494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 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1-542-0982

"급"불교사 양도

-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대로변
- 평수 : 10평
- 보증금 : 천오백만원
- 월세 : 45만원

※개인 사정으로 급 양도합니다. 시설금 육백에 모두 다 드리고

- 몸만 나갑니다.

010-6770-7598

사 찰 안 내

- 위치:대전시 중구(대사동) 충무로 74번길 54
- 보문 5거리에서 100미터, 대전역(택시) 10분 거리 보문산에서 50M
- 대지 70평
- 건물 1층 35평 요사채, 2층 25평 법당
- 삼존불, 인등, 산신, 칠성, 신중 탱화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2억(절충)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988-3418

포 교 원(급)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대 지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190-2
- 면적 : 대지 656평, 창고 25평
- 가액 : 3억2천5백만원
- 연락처 : 충남 아산시 신동 284-1

010-8771-607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전망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 명산인식장산과 보문산 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m
- 대전역(택시) 10분거리,대지 70평, 건물:1층 요사채 35평, 2층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 7천만원)
- 불사관계로급양도

010-5019-5385

친환경 삼베타올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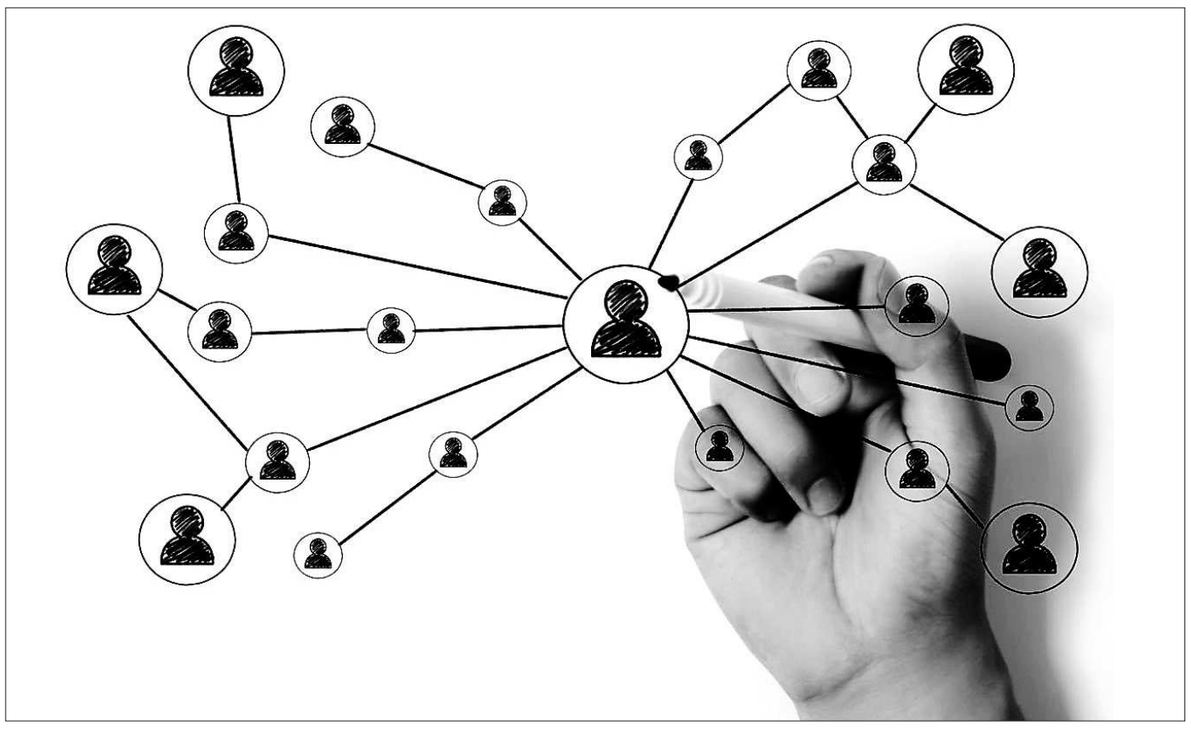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5〉 연기수행 ㊦

무명에서 喜怒哀樂까지… '12연기' 이어지다

희 노 애 락



12연기 순관하기-그 첫 번째

연기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은 12연기를 순관 하는 것이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장소가, 6가지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괴로움, 불만족, 절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기를 보는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12연기를 하나하나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식별한다. 우선은 첫 번째 전생을 과거로, 이생을 현재로, 첫 번째 미래 생을 미래로 하여 12연기를 본다. 이것이 끝나면 두 번째 전생을 과거로, 첫 번째 전생을 현재로, 이생을 미래로 하여 12연기를 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전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12연기를 본다. 다섯 번째 방법에서처럼 항상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 후에 첫 번째 방법으로 연기를 식별한다.

무명은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이다. 행도 첫 번째 전생의 행이다.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첫 번째 전생의 행이 일어난다.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이 원인이고 첫 번째 전생의 행이 결과다. 무명과 행 둘 다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서 식별한다.

나의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다. 첫 번째 전생에 스님을 보고 '나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무명이 일어난 것을 안 문 인식과정과 의문 인식과정에서 식별한다.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서 탐욕과 사견이 있는 마음, 마음부수 20가지를 식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이다. 이 무명이 첫 번째 전생의 행의 결과를 가져왔다.

행은 임종 시 행을 본다. 임종 시 행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행이 된다. 첫 번째 전생의 임종 시 행은 표상이 절이다. 절을 복구하고 수리하는 업의 행이다.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서 희열과 지혜가 있는 유익한 마음의 마음, 마음부수 34가지를 식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전생의 행이다. 이렇게 12연기의 첫 번째인 '무명이 일어나므로 행이 일어난다' 를 식별한다.

행은 앞서 '무명이 일어나므로 행이 일어난다' 고 할 때의 행이다. 행은 첫 번째 전생의 행이다. 희열과 지혜가 있는 마음, 마음부수가 34가지인 유익한 마음이다. 식은 과보로서의 식으로, 이생의 과보의 식이다. 과보의 식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인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의 식과 5식(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다. 5식은 받아들임, 조사, 등록을 포함한다.

행이 일어나므로 행의 과보로써 식이 일어난다. 행이 원인이고 행의 과보로 나타난 식이 결과다. 5문 인식과정과, 5문 인식과정 후에 일어나는 의문 인식과정과, 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의문 인식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난 식을 식별한다. 마음과 마음부수를 같이 식별한다. 유익한 마음의 자와나와 해로운 마음의 자와나의 인식과정 모두를 식별한다. 재생연결의 식, 바왕가의 식, 죽음의 마음의 식,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을 식별한다.

'식' 후에 일어나는 것들

식이 일어나므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고 할 때 식에는 2가지가 있다. 바로 과보로 나타난 식과 과보가 아닌 식이다. 이 두 식이 정신-물질을 일어나게 한다. 과보로 나타난 식은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이다. 과보가 아닌 식은 유익한 식, 해로운 식, 단지 작용만 하는 식이다. 이 가운데 유익한 식과 해로운 식은 새로운 존재 상태가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업지음(abhisankhara)' 혹은 '업식'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보를 불러오는 업이나 행과 같이 있는 식이 업식이다. 정신-물질을 생기게 하는 것은 업식과 과보로 나타난 식이다.

먼저 업식이 정신-물질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살펴보자. 업식은 전생의 행에 같이 있는 식이다. 첫 번째 전생의 행의 마음, 마음부수 중 마음을 식별하면 된다. 이 업식이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의 정신-물질을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과거의 업식이 원인이고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의 정신-물질이 결과다. 이때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이고, 물질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다. 이것을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모든 인식과정에서 식별한다.

이번에는 과보로 나타난 식이 정신-물질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겠다. 과보로 나타난 식은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 5식, 받아들임, 조사, 등록이다. 파욱 사야도는 과보로 나타난 식에 5문전향, 결정, 자와나, 의문전향, 자와나의 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마하띠까』복주서 2권 323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전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따르면 식, 정신-물질, 6가지 감각장소, 접촉, 느낌은 오직 과보로 나타난 법일 뿐이다. 그러나 과보로 나타난 법 중에서 5문전향 없이 5식, 받아들임, 조사가 일어날 수 없고 자와나 없이 등록이 일어날 수 없다."

정신-물질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6가지 감각장소의 형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정신이 일어나므로 마노의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은 각 마노의 감각장소가 함께하는 마음부수이고, 감각장소는 각 마음부수와 함께 일어나는 식(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부수가 있으니까 마노의 감각장소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정신의 토대로서의 물질과, 정신이 향하는 곳인 대상의 관계를 아는 것은 연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신과 물질적 토대와 대상은 항상 같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들 셋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정신은 물질적 토대의 원인이 되고, 물질적 토대는 정신의 결과가 된다. 또 물질적 토대는 정신의 원인이 되고, 정신은 물질적 토대의 결과가 된다.

연기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를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다. 연기 수행을 하고 나면 현상을 볼 때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철저히 보게 된다.

두 번째, 정신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난다. 『빳타나』제1권 7에 의하면 4가지 무색계 과보의 마음을 제외하고, 이어서 일어나는 85가지 마음-52가지 마음부수의 마음-마음부수 그룹이 앞의 마음 순간에 일어난 4가지 종류의 물질의 몸을 지원한다. 여기서 마음-마음부수(정신)가 감각장소 물질을 지원한다는 말은 결과가 되는 물질이 먼저 일어나고 원인이 되는 정신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정신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난다고 할 때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다.

12연기 '無明' 에서 처음 시작
하나하나 원인 · 결과 식별해야
정신 향하는 대상 관찰 중요
현상 볼 때도 인과구분 가능해

세 번째, 물질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난다. 네 번째, 물질이 일어나므로 마노의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정신은 물질 토대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5식은 눈의 토대와 같은 물질 토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마노의 감각장소다. 5식을 제외하면 마노의 감각장소는 심장토대에 의존한다.

6가지 감각장소서 일어나는 것들

6가지 감각장소에는 내부의 6가지 감각장소와 외부의 6가지 감각장소가 있다. 이 12가지 감각장소를 6가지 감각장소로 삼는다. 내부의 6가지 감각장소는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코의 감각장소, 혀의 감각장소, 몸의 감각장소, 마노의 감각장소다. 외부의 6가지 감각장소는 형상의 감각장소, 소리의 감각장소, 냄새의 감각장소, 맛의 감각장소, 감촉의 감각장소, 법의 감각장소다. 이 12가지 감각장소에는 52가지 마음부수와 16가지 미세한 물질이 포함된다. 모든 식을 마노의 감각장소라고 부르고, 각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부수를 법의 감각장소라고 부르며, 심장토대도 법의 감각장소라고 부른다.

접촉에는 6가지 접촉이 있다.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마노의 접촉이다.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 5문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와나, 등록, 의문전향과 함께하는 모든 접촉을 마노의 접촉이라고 한다.

접촉은 정신(마음과 마음부수)과 토대, 대상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접촉이 일어나려면 마음, 마음부수, 토대, 대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 마음부수, 토대, 대상이 원인이 되고 접촉이 결과가 된다.

또 6가지 접촉 때문에 다음 6가지 느낌이 일어난다. 눈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여기서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과 '눈, 귀, 코, 혀, 마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 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의 힘이 강력하고 그 결과 생긴 느낌도 강력하다. 반면에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이 일어나 모든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모든 마음에 접촉으로 인한 느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마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보다 약하다. 수행을 할 때 이 두 느낌을 식별한다. 마노의 접촉은 의문전향의 접촉으로 식별하면 된다.

다음으로 느낌이 일어나므로 갈애가 일어난다. 여기서 느낌은 첫 번째 미래 생에 대한 느낌이다. 그 느낌으로 인해 미래 생에 대한 갈애가 지금 일어난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많은 느낌은 갈애를 일으킨다. 어떤 느낌이 일으킨 갈애는 이생에서 끝나 다음 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어떤 느낌이 일으킨 갈애는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12연기는 계속되는 윤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수행에서 대상으로 삼는 갈애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갈애가 취착을 일으키고, 취착은 존재를 일으키고, 존재는 생을 일으킨다.

이렇게 식별하려면 첫 번째 미래 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첫 번째 미래 생은 스님으로서의 생이다. 그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내가 좋아하여 그것에 대해 애착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갈애다.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미래 생에 법문을 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은 느낌이 들어 애착을 일으키면 갈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스님 생활이 마음에 들어 그것에 대해 애착이 생기면 갈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미래 생을 보고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토대로 애착이 생기면 '느낌이 일어나므로 갈애가 일어난다' 를 볼 수 있다. 이때 애착은 6가지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해 갈애가 생긴다. 갈애를 의문 인식과정에서 대상과 마음, 마음부수로 식별한다. 탐욕과 사견 또는 자만의 마음부수를 가진 해로운 마음이 자와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법명 : 혜관 (정진용) • 주소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대밭땅길 36
- 법명 : 청암 (유승준) 와동사 • 주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무량로 369
- 법명 : 정업 (배효춘) • 주소 : 경남 영천시 대창면 칠백로 148-79
- 법명 : 영선 (박경순) 광덕사 • 주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048
- 법명 : 혜랑 (이지연) 달마사 • 주소 : 대구시 북구 복현로 78-5
- 법명 : 태안 (김완용) • 주소 : 대구시 북구 복현로 78-5
- 법명 : 영추 (정종식) 천명사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계안로 74-32
- 법명 : 도명 (윤귀숙) 여여암 • 주소 : 울산시 북구 치전1길 24-8 109동 101호

상기 사찰 및 8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사)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법 명 : 송원(김근출)
- 사찰명 : 석가사
- 주 소 : 경남 마산시 회원2동 산 55-7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하

松송 根근 油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상처와 험담보단 용기와 이해를



나는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 대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겠어요

I will cheer my friends on instead of saying something hurtful.

「라이온킹」은 프라이드랜드의 왕자인 사자 심바가 삼촌의 계략에 빠져 방황하다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왕위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심바는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멀리 떨어진 사막에 쓰러집니다. 멧돼지 품바, 미어캣 티몬이 심바를 발견하고 셋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죽게 한 게 자기인 줄 알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심바, 그런 심바에게 친구들은 늘 격려를 해줍니다.

"옛날 일은 잊어버려."

"문제없어. 다 잘 될 거야."

심바는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자 친구인 날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개코원숭이 라피키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마침내 심바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대단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남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대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 나에게 힘이 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나는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의 흉을 보지 않겠어요

I will not talk badly about my friends behind their back.

황희 정승이 젊을 때, 길을 가다가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황희 정승이 물었습니다.

"두 마리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하나요?"

농부는 밭 갈기를 멈추더니 황희에게로 와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앞에 있는 소가 조금 낫습니다."

황희는 비밀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귀에 대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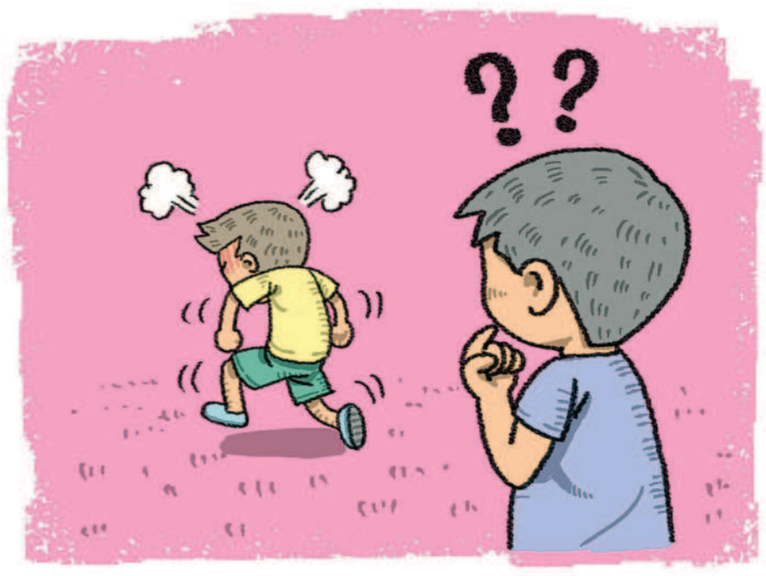
"아무리 가축이라도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황희는 농부의 훌륭한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디에서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학자인 주희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엿듣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험담은 하지도 말고 맞장구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 사람들은 왜 남의 험담을 할까요?
* 여러분이 험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 험담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친구가 섭섭하게 대해도 화내지 않고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Even when my friends make me feel sad,

I will think about why they behaved that way before getting upset.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Tagore, 1861~1941년)는 인도의 시인입니다. 타고르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하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되어도 하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타고르는 뒤늦게 나타난 하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은 묵묵히 일을 마치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타고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의 어려운 사정도 모르고 인정머리 없이 굴었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타고르가 화를 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한마디만 물었다면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성실하던 사람이 무슨 일로 늦는 걸까?' 하고 걱정을 했다면 더 친절하게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타고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벌컥 화부터 냅니다. 친구가 섭섭하게 굴면 이유를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한자성어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이유를 물어보세요. 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좋은 친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타고르의 경우처럼 이유도 묻지 않고 벌컥 화를 냈던 적이 있나요?
*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랑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자 세상보기

과연 우리는 테러로부터 자유로운가?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가 또 한 번 테러를 당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그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프랑스가 최근 테러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월 '샤를리 엡도' 테러로 17명의 사상자가 희생되었고, 지난 해 12월 디종에서도 군중에게 차를 몰고 돌진하여 11명이 다쳤으며, 그 하루 전에는 주레 투르에서 경찰서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일련의 테러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에 테러공격이 집중되는 것처럼 잇따르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프랑스에 소외된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들 중 정부의 이민정책에 불만을 가진 일부 극단주의자가, 급진화, 과격화(Radicalization)하여 소위 '지하드(성전)'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테러나 테러의 위협이나 위험 또는 실제 테러사건이 비단 파리만의 문제이겠는가.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현재에도 과연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느긋할 수 있을 정도로 테러와 테러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도 준비될 것 같지 않다. 우리 사회와 국민이 테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테러기본법조차 갖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리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과연 나만의 기우일까.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먼저 최근 세계적 테러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IS(이슬람국가) 등의 주요 표적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동맹관계의 한국도 그들에겐 주적, 즉 주요 표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작은 표적'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의 일, 다른 나라만의 일인 양 불구경만 하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이론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범행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 범행을 실현할 매력적인 표적, 그리고 범행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보호능력의 부재가 바로 범행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그대로 테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테러의 동기를 가진 잠재적인 테러범을 살펴보자. 주요 테러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IS에도 급기야 한 한국 소년이 가입했음을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높은 실업률, 차별, 그리고 심화된 계층 간의 차이로 인한 심각한 상대적 박탈과 그로 인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대할 것이며, 이들의 급진화, 과격화(Radicalization)가 이들을 테러단체에 가담하게 하거나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소위 자생적 테러(Homegrown Terror)라고 하는 '외로운 늑대(Lone Wolf)'가 되어 '무작위 폭력(Random Violence)'으로서 '묻지마 범죄' 식의 테러를 감행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잠재적 테러범들의 매력적인 표적으로서 우리 사회는 어떤가. 테러범들의 표적 선택시 고려되는 주요요소 중에는 '상징적(Iconic)' 의미를 강조하는데, 한국의 경제력, 국력, 국가의 위상 등이 커짐에 따라 테러가 노리는 상징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9·11테러가 미국의 WTC를 노린 것은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대표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그런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의 맹방이고 아시아의 맹주 중 하나라면 더욱 상징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적어도 테러범의 작은 표적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우리가 바람 속의 등잔이 될 수 있고 점점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능력은 충분히 키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9·11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업무관련 국가와 정부조직을 통합하고,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임에도 '애국법(Patriot Act)'과 같은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여 테러에 대응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최근 일련의 테러사건을 겪은 이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 테러 법, 또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고 도청 등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도 테러기본법마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잠재적 테러범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은 아닌지 심히 두렵기까지 하다. 어차피 테러는 확신범죄이고 테러범들은 자기 확신에서 테러를 감행하기 마련이며, 우리도 그들의 작지만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제 남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테러로부터 잘 방어하고 보호하여 테러범들에게 테러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제만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기고

딸을 출가시킨 아버지의 편지

"딸아, 어둠 밝히는 빛으로 거듭나거라"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

사랑하는 딸 명아!

이 애비는 50년 넘게 포교사로서 전국을 다니며 출가공덕을 강조하였으나 막상 네가 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그간 경솔했던 것이 아닌지 무척 후회스럽구나. 11월 10일 오전, 경남 함안 소재 '발원통사'라는 사찰에서 주지 스님 집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삭발의식이 진행되었지. 너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흩날리는 걸 두 눈으로 마주했을 때의 그 심정은 세상 모든 걸 잃는 것과 같았다. 조계종 포교사 이전에 나도 한 자식의 애비였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를 보니 그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가 원망스러워 나 자신을 경멸하기도 했다.

딸 명아! 1970년대 후반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가 연년생으로 태어나 나에겐 한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힘들어 할 때도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발탁돼 가정을 뒤로한 채 포교에만 매달렸다. 아마도 이 못난 애비가 너희들에게는 언제나 잠깐 쉬어가는 존재였겠지. 집도 절도 없이 단칸방 생활보장조차 못하는 무능력한 가장이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너희 엄마가 늦게나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살림을 꾸려나가 가정이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란다. 이런 분위기에서 너희들은 이 애비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고, 정서불안과 반항성이 극에 달했다. 그래도 네 엄마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다독였었지.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야 함에도 애비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막내만 빼고 전부 상급학교를 못 보냈으니 말이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챙겨주지 못한 죄책감은 멍에가 되어 내 가슴을 쑤시는구나.

너는 본래 성품이 착하여 남들과 잘 어울렸고, 대인관계가 깔끔해 모든 사람이 좋아했단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가 보낸 문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아버님! 출가를 위한 마음의 준비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높은 이상과 희망보다는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처님 법을 나누면서 자비로움을 행할 수 있는 승려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요, 부처와 중생도 하나임을 아버님의 불이(不二)법문에서 알았기에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외로움과 서글픔에 쌓여 내 자신을 허덕이게 했던 시간들이 제겐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불효를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절 이만큼 불교로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딸 선명 드림."

사랑하는 딸 명아. 어제 삭발 전에 지어준 불명이 등명(燈明)이더구나. 등불은 자신을 태워야만 주변을 밝힐 수 있다. 잘 타면 세상이 밝을 것이요, 잘못 타면 세상에 화를 입히는 재앙이 될 것이다. 또 수행공부 열심히 하면 큰스님이 될 것이고, 세속에 있을 때 같이 유혹을 끊지 못하면 출가할 때보다 못한 잡승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속인들보다 못 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 본래 의무와 책임을 뒤로한 채 현실의 영욕에서 빠져 등불이 밝지 못해서다. 그래서 종교무용론이 나오고 종교 공해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은 진정으로 밝게 비춰주는 등불을 갈망할 수밖에 없단다. 이 욕구는 시대의 바람이니 네 불명을 등명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세세생생 공덕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승려의 길을 택하여 떠나는 등명! 겉모습만 달라졌다고 스님 되는 것이 아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파사현정으로 무장하여 단단한 금강석 같은 발심출가를 늘 가슴에 새기길 바랄 뿐이다.

社說

법인관리법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

조계종이 최근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종책 중 하나가 종단 관련 법인들을 관리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인 관리 정책의 운영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관리 행정의 법 질서를 스스로 지키지 않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제204차 중앙종회 정기회를 거쳐 1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법인관리법은 현재 '법인의 권한 침해 금지'를 골자로 한 제6조가 문제가 된다. '필요에 따라 종단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라는 문구는 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선 법인들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또한 문제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이 이뤄지면서 협의기구를 통해 법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부서는 총무원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 발의였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거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협의기구를 무력화하는 해명이다.

또한 11월 17일 공고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도 법인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이는 종법 질서는 물론 법인 간 형평성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조치였다면 지난 종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선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미등록 법인 규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법인 관리 종책은 더욱 그러하다. 민법의 영향을 받는 법인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상이하다. 이를 조율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우선이다.

법인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지키고, 종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예 조치는 이뤄져서는 안된다. 법은 만인에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본사 1:1 군포교 지원 환영한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가 지역 상급부대들과 1:1 결연을 맺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6일 제42차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군법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교구본사는 지역에 위치한 사령부 및 군사학교 등의 상급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예하부대를 포함한 군법당에 불사 및 주요 법회·위문품 보내기·장병 위문 등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각 군법당은 지역사찰 현안 사항 유기적 협조 및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석·군악대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 따르면 전국에서 140명의 군종법사들이 군포교를 하고 있고, 논산훈련소만 해도 1년에 10~12만명의 장병들이 수계를 한다. 군법당만 400곳에 이른다고 한다.

군종교구에서 핫팩 전달 및 GOP·GP 근무자를 위한 북카페 조성, 자장면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교구본사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포교는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이다. 이곳에 뿌려진 씨앗은 10년 뒤 불교 발전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불자 퇴역 장교와 장병들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불자 장병들의 경우 제대하고 복학이 이뤄지면서 신행생활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지역사찰과 본사가 함께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면 군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皇中聖鐘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봉 축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월하 성철 대종사 제3대 회장 취임식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13시
●장 소 :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본산 보명사 대웅전
●전 화 : 032)512-6453~4, 010-4167-3666
●주 최 :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법인지부종단
●후 원 : 종교세계신문사,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사)국제불교조계종

■ 법인이사 임원 :

이사장 윤기순, 집행이사 신상길((재)고려대장경진흥원 이사장), 행정이사 원당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제례이사 지암 (대한불교천우종 종정), 국제이사 도현 ((재)세계불교평화연맹 이사장), 고미술 진흥이사 무산 ((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제2대 회장), 복지이사 운산 (사회복지법인 수암사마야복지재단 이사장), 인권이사 일경 ((사)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장), 법무이사 혜인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특임이사 성철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홍보이사 대각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조직이사 도선 ((사)한국불교생활조계종), 섭외이사 중천 (조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재무이사 도우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감찰감사 동진 (해동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총무감사 활안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재정감사 해동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기획감사 무성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감리감사 법성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 봉축위원장 : **무공** ((사)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 집행위원장 : **운산** (사회복지법인 수암사마야복지재단 이사장,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봉축위원 (무순)

주연 지영 불광 일공 일강 현북 대공 지월 신풍 선학 지암 덕천 혜암 성범 천공 혜안 석수 대봉 환인 일광 인공 대광 원공 도현 보각 혜일 규진
지선 대각 자현 광명 만봉 청광 월하 뮤린 일웅 법천 원담 만오 도현 금당 정안 황봉 청공 영사 설송 태대 보인 도성 광선 혜철 열관 혜성 기복
진순 법경 일경 성철 금강 청하 지광 월정 만춘 지광 법성 청암 약산 청담 공산 밀허 청담 법행 대도 영월 대명 등운 월광 일광 해조 명조 혜산
법민 관행 법환 혜담 법현 대명 보각 법안 현송 정암 일호 대광 법천 법일 운월 구화 월산 해인 벽암 청광 부건 불광 법열 월공 석호 광수 아호
현각 청공 동원 원당 법기 지암 대보 향덕 만봉 법성 만공 도선 무량 청광 위산 혜륜 인산 혜남 해인 서광 지공 도운 천안 혜담 혜봉 무상 대공
청송 설국 일오 길주 현광 월단 재연 원상 연화 혜승 원광 법천 진공 고림 청각 일강 동화 송월 무허 의성 청원 우담 연화 현불 도선 혜월 해법
혜산 성문 운봉 아산 경흥 금란 운장 동환 보문 태일 법통 현공 도공 만오 장원 철산 지현 청암 청산 정법 태일 성덕 태선 혜봉 만청 지법 대명
지암 태산 도령 영암 중천 자심 구암 병국 무수 도광 법성 지영 월암 금화 월성 동화 광석 용화 진포 만오 보성 민공 법성 해인 일강 보륜 동국
거목 청송 무허 지공 신국 혜승 경산 여래 현불 명진 천불 현목 혜암 혜도 영운 현공 성각 해공 법온 능견 성공 혜선 대경 태일 월공 해광 홍지
지선 덕공 경보 안심 인봉 진혜 원오 법진 동천 일관 진성 혜명 일경 석봉 보명 만오 태함 영운 법진 해공 혜원 효진 영산 원담 진국 연운 원덕
태극 금당 법산 혜각 고산 신명 청송 동방 혜붕 성해 법륜 원봉 대각 무성 법성 각화 운오 청담 도현 성공 도우 성문 도현 운산 청공 도원 대연
해원 소원 일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현재 전국 320개 법인지부종단등록)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 전화 02)2198-5022-4 | 팩스 2198-5025 | 핸드폰 010-4167-3666
http://kntga.or.kr http://kroa.or.kr E-mail : jonggyo119@hanmail.net

종도모집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목적** : 본 종은 부처님의 근본교리를 구체적으로 광선유포하고 전법도생 자각각타 각행원만 사상을 근간으로하여 태고 보우국사의 종풍을 선양하며 일불제작의 기치아래 일승일불 화쟁무애 섭중화합의 기강을 확립하고 출가 종도들의 계율을 수지하며 교화에 전념하고 사부대중 모두가 실천생활불교를 지향 인연있는 모든 제 불자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며 총체적인 통합종단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창명케하고 시대정신의 요청에 따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여 대자비 원력으로 원시반본에 입각 종단의 조직을 새롭게 개혁하고 유신시켜 탐진치 삼독심 번뇌망상을 치유하여 마음이 열반에 있는 진정한 극락정토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업무표장등록증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등록 제 42-0005657 호
출원번호 제 42-2014-0000032 호
출원일 2014년 01월 24일
등록일 2015년 01월 19일
위의 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a business emblem 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5년 01월 19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종단 사업**

1. 불교교리 및 홍보를 위한 언론, 출판에 관한 사업
2. 전문 포교사 육성을 위한 해외 연수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불교단체 연합조직 및 전통불교 의식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지역문화 전승 계발에 관한 사업
4. 불교의 사회참여 확대 및 해외성지순례에 관한 사업
5. 기부문화 확산과 자비봉사 실천을 위한 사회봉사 참여에 관한 사업
6. 영산대재 보존 전승육성 및 불교의식, 각종 불교의례 표준구축에 관한 사업
7. 남북 불교 전통문화예술 교류 및 중생구제에 관한 사업
8. 법계고시, 금강계단 설치, 계율계단, 의제법, 승가고시 교육에 관한 사업
9. 종단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 해외 유학승 도제교육에 관한 사업
10. 종단 장례의식, 다비장, 상조회, 장묘(납골, 잔디장) 설치에 관한 사업
11. 직영사찰 운영 특별분담사찰 지정 육성에 관한 사업
12. 사설사암 등록관리 및 선원개설 등 지방교구 설치에 관한 사업
13. 종립 승가교육 육성 및 승려 노후복지 자비원 건립에 관한 사업
14. 사찰건축 종합예술, 단청, 탱화, 범종, 불교문화예술, 불교용품 보급 등 창조적 전승계발에 관한 사업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국 종무원장 모집**

지 역	직 위	제출서류	비 고
서울특별시	종무원장	행장,본종소정양식	
부산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경기도	〃	〃	
충남,충북	〃	〃	
경북	〃	〃	
강원	〃	〃	
제주	〃	〃	
전남,전북	〃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 전화 02)2198-5022-4 | 팩스 2198-5025 | 핸드폰 010-4167-3666
http://kntga.or.kr http://kroa.or.kr E-mail : jonggyo119@hanmail.net

영화
한국불교
불교영화 70년

전성기 지나 황혼기… 새 동력 필요

1945~2015년 한국 불교영화 현황

제작년도	감독	제 목	원작자	수 상 내 역
1949	윤용규	마음의 고향	함세덕	1회 서울시문화상
1952	윤봉춘	성불사		국방우수영화상
1955	신상옥	꿈	이광수	베니스영화제 출품
1957	신상옥	무영탑	현진건	
1958	양주남	종각	강노향	베를린영화제 출품
1961	홍성기	에밀레종		
1962	장일호	원효대사	이광수	
1962	이용민	지옥문		
1962	김승옥	이차돈	이광수	
1963	안현철	사명당	박중관	
1964	장일호	석가모니		
1965	홍성기	대석굴암		
1967	신상옥	꿈	이광수	
1967	신상옥	다정불심	박종화	6회 대종상 미술상
1968	권영순	에밀레종		
1970	김화랑	성불사의 밤		
1970	김수용	무영탑	이광수	
1972	전조명	서산대사		
1972	권영순	대지옥		
1973	최하원	다정다한		2회 테헤란영화제 출품, 12회 대종상 남우주연상(남궁원)
1974	김기영	파계		3회 테헤란영화제 출품
1978	최인현	관세음보살		24회 아시아영화제 음악상
1978	장일호	호국 팔만대장경		17회 대종상 편집상
1978	이혁수	달마신공		
1979	이영우	사문의 승객		
1981	임권택	만다라	김성동	제20회 대종상 영화제, 제18회 백상예술대상, 제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1983	박철수	땜장이 아내	정다운	
1983	남기남	소림대사		
1986	김수용	중광의 허튼소리	고창율	제7회 영평상 각본상, 제31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출품
1989	임권택	아제 아제 바라아제	한승원	제27회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심사위원 특별상/제1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최우수 여우, 성조지 동메달, 성조지 금메달/ 제2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연기상/ 제9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자연기상, 음악상, 녹음상, 신인연기상
1989	배용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제42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특별상
1990	배창호	꿈	이광수	깐느영화제 출품
1990	박철수	오세암	정채봉	
1991	정지영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제12회 청룡영화상 남자신인상, 여자신인상
1993	장선우	화엄경	고은	제32회 대종상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각색상, 음악상/ 제14회 영평상 최우수감독상, 촬영상/ 제4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알프레드 바우어상/ 제30회 한국 백상예술대상 기술상
1996	이일목	카루나		
1996	양윤호	유리	박상룡	제17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1996	강제규 박철민	은행나무 침대		
2001	김대승	번지 점프를 하다		
2001	김성수	무사		제22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2001	박철관	달마야 놀자		
2002	주경중	동승	함세덕	
2003	김기덕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제41회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제24회 청룡영화상 작품상, 기술상
2004	육상효	달마야 서울가자		
2010	윤용진	할		
2011	입상진	법정 스님의 의자		
2013	이창재	길 위에서		



〈위 현황은 신광철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참조〉

영화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중매체다. 19세기에 처음 발명된 영화는 무성영화를 거쳐 장편 방식이 도입되고 현대에는 가장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일종의 거대 사업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스크린 등을 통해 영화를 보고 있다.

한국영화사에 있어서도 종교영화인 불교영화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만다라〉, 〈아제아제바라아제〉, 〈화엄경〉, 〈유리〉 등 흥행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한국영화의 시작 불교영화의 태동

한국 불교영화는 현재 약 48편 정도가 제작 · 상영됐다. 이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와 신광철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의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논문에 기초한 것으로 종교 계열 영화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은 한국영화 역사와 함께 한다. 해방 직후와 1950년대는 영화의 소재로 쓰일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대부분 불교 설화와 문학에 기초를 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기 때문이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최초의 불교영화로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을 꼽고 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한 〈마음의 고향〉은 모성에 목마른 동자승과 주지 스님의 이야기가 사찰 배경으로 서정적으로 묘사돼 지금도 수작으로 손꼽힌다.

1952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성불사〉가 제작됐다. 〈성불사〉는 계몽 영화로 제작돼 당시 국방부 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

초기 한국영화를 이끌었던 신상옥 감독은 1950년대 〈꿈(1955)〉과 〈무영탑(1957)〉을 내놓는다. 두 작품은 이광수와 현진건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꿈〉은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한국 불교영화 양적 발전 이루다

1960~70년대 사회가 성장하면서 영화산업도 점차 확대됐다. 한국 불교영화도 마찬가지로 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호국불교의 개념을 가진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호국불교 영화들은 대부분 불심으로 왜적과 싸워 이기는 내용들이었다. 1962년에는 장일호 감독이 〈원효대사〉를, 1963년에는 안현철 감독이 〈사명당〉을 발표했다. 석굴암 완성 과정과 석불의 빛이 왜적을 쫓아냈다는 내용의 홍성기 감독의 〈대석굴암(1965)〉과 전기 영화인 김승옥 감독의 〈이차돈(1962)〉도 넓은 의미에서 호국불교 영화로 평가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호국불교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장일호 감독은 〈호국 팔만대장경(1978)〉을, 전조명 감독이 〈서산대사(1972)〉을 제작했다.

이밖에도 효(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에밀레종〉이 1961, 1967년 두 번에 걸쳐 홍성기 감독과 권영순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용민 감독의 〈지옥문(1962)〉도 효 사상과 불교 설화가 접목된 작품이다.

1960년대 주목해야 할 작품은 신상옥 감독의 〈꿈(1967)〉과 〈다정불심(1967)〉, 장일호 감독의 〈석가모니(1964)〉이다.

1960년대 당시 감독들이 충효사상과 불교의 결합에 몰두한 데 반해 신상옥 감독은 비중있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을 영화화했다. 물론 소재주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불교 문예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인정할 부분이다.

특히 〈꿈〉은 신상옥 감독에 의해 두 번 제작됐던 것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에 의해 1990년 다시 제작됐다. 〈꿈〉은 〈삼국유사〉의 설화, 이광수의 소설, 영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동승'과 함께 한국 불교영화의 소재적 장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영화화해 개봉에 성공한 작품은 〈석가모니(1964)〉가 유일무이하다. 이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영화화가 추진되기는 했으나 이뤄지지는 못했다. 영화 〈석가모니〉는 매우 한국적인 작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도 과정을 그리면서 그 안에는 유교적 가족애가 끈끈하게 묻어 나오기 때문이다.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과 '성공을 기원하는 아내'는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를 보여준다.

한국 불교영화의 완성을 보여주다

1980년대는 불교영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불교영화를 통해 임권택 감독이라는 거장이 탄생했기 때문이

1949년 윤용규의 〈마음의 고향〉이 최초 韓불교영화… 동자승 소재로

1950~70년대 불교영화 양적 성장 부처님 일대기 영화로 제작되기도

80년대 구도소설 인기끌며 영화화 불교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상업 영화 유행… '조폭코드'와 결합 2010년 이후 다큐 장르서 선전 중

며,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담보한 영화 작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는 문학에서 구도소설이 인기를 끌며 영화로 확장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아제아제바라아제(1989)〉,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김양득 감독의 〈우담바라(1989)〉이다.

〈만다라〉는 김성동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본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영화 속 열린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 "10.27법난 이후 황폐해진 한국불교의 만성적인 무력감으로부터 하나의 위안과 각성을 암시해준 작품"이라며 "승속 갈등 가운데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제아제바라아제〉는 한승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순녀(강수연 분)라는 속퇴한 비구니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기능을 살피고 있는 수작으로 임권택은 불교영화 감독으로 면목을 확고히 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당시 한국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준 작품으로 불교영화 70년사 안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작 중에 수작이다. 실제 이 작품은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불교영화는 점차 축소되지만,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예술 영화들의 명맥은 이어갔다. 또한 불교를 소재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불교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불교적' 혹은 '불교적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 불교영화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1991)〉,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1993)〉, 양윤호 감독의 〈유리(1996)〉 등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는 비구승 심해와 비구니 묘연의 인간적 번민을 심도 있게 다룬 불교 영화이지만 금지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고은 시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장선우 감독이 영화적 문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유리〉는 박상륭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송희복 교수는 "작가주의적인 착안을 통해 한국영화의 한 전형을 창조하려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불교 영화"라고 평가했다.

상업 영화 유행, 불교영화 황혼기

2000년대 불교영화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는 상업영화로 완전히 영화업계가 자리를 잡았고, 불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게 됐다는 반증이다. 그런 와중에도 몇몇 작품은 흥행에 성공했다.

2001년 김성수 감독의 〈무사〉는 지산 스님(이두일 분)의 삶과 의지를 통해 고려사의 흥망성쇠를 같이 한 불교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는 불교와 상업영화가 성공적으로 만난 작품이다. 당시 유행했던 '조폭 코미디' 장르가 만나 '불법(不法)을 불법(佛法)으로 교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흥행에도 성공해 서울 관객 125만, 전국 377만 관객 동원으로 2001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속편인 〈달마야 서울가자〉가 제작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별다른 불교영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 종교 분야 다큐멘터리가 유행하면서 독립 · 다큐 영화 부문에서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

2010년 개봉한 윤용진 감독의 〈할〉은 보육원에서 형제같이 자라나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발표된 〈법정 스님의 의자(2011, 임상구 감독)〉는 어린 시절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모든 일생이 담긴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이창재 감독의 〈길 위에서〉가 개봉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었던 작품으로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잔잔한 영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IT
한국불교 IT 70년

시·공간 제약없는 신행, 新 트렌드 25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인류가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의 조류는 한국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현상에 불교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기실 광복 이후 한국불교 70년사에서 IT분야의 역사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1990년대 초반 나온 PC통신은 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었다. 이 같은 새로운 공간은 불교계 신행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이버 신행 · 포교' 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천 청암사는 2011년 9월 4일 승가대학과 율원에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부처님오신날 sk텔레콤과 진행한 스마트미디어 체험행사에서 3D TV를 체험하는 동자승들.

PC통신, 온라인 불교의 시작

불교계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 는 1991년 9월 데이콤 천리안의 전신인 'PC-Serv' 의 불자 동호회로 시작한 '천리안 불교동호회(이하 천불동)' 였다. 1992년 6월에는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 이 창립됐다.

천불동과 하불동은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1993년 8월 25일자 〈불교신문〉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수계식' 에 대한 기사가 있다. 1993년 8월 13일 컴퓨터불교동호회는 천리안과 하이텔을 통해 하계수련회를 참석했던 1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진행했다. 계사는 동호회 지도법사 종수 스님(당시 경주 삼불사 주지)이 맡았다.

기사에 따르면 "컴퓨터를 통한 전자수계식은 회원들이 컴퓨터와 불교를 공통분모로 하는 불교동호회의 특색을 살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된 첨단 수계식 모습" 으로 "법당의 장소를 벗어나 각자의 집에서 전화로 컴퓨터정보망을 연결하여 증명법사와 회원이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대화로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수계식과 다르다" 고 평가하고 있다.

PC 통신 불교동호회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은 천불동이다. 국내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로서 10년 동안 방대한 자료가 축적됐고 2000년대 들어서면 웹사이트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현재는 '인터넷 부처님터 천불동(www.buddhasite.net)' 으로 개명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다.

하불동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하불동은 '번개(인터넷을 통해 급히 약속을 잡고 만나는 일)' 모임과 정기 일요법회, 산행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신행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 가져온 신행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PC가 활발히 보급되면서 검색 엔진을 탑재한 포털사이트들이 잇달아 문을 열게 된다. 이들 포털사이트들은 '카페' 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누리꾼끼리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불교 관련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현재 이들 카페는 포털사이트 '다음' 에만 1만여 곳이 있으며, '네이버' 에는 5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음 카페 '나무아미타불' 과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등은 인터넷 카페 문화가 시들해진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장수 인터넷 신행 동호회들이다.

1990년대 PC 통신 대중 · 상용화
온라인 신행단체 '천불동' 등 탄생
2000년대 인터넷 카페가 대유행
포털 중심으로 1만여 곳 운영 중
스마트폰 보급되며 SNS 활성화
혜민 스님 등 '국민 멘토' 로 인기
매스미디어 활용한 불교운동 필요

사실 카페 형식의 수행, 명상관련 동호회는 현재에도 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수행관련 사이트나 카페는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또한 이들 카페는 포교, 친목단체, 사찰순례, 봉사, 찬불가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 상용화는 개인 홈페이지 제작 붐이 일면서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참여도 이어졌다. 성법 스님은 2001년 불교경전총론 사이트 '세존' 을 오픈했지만 현재 운영난 등이 겹치면서 폐쇄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혜봉 거사의 '명상 아카데미' , 구선 스님의 '관수련회' , 상명대 박석 교수의 '바라보기 명상' 등의 수행 사이트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불교계 각 종단과 유명 사찰들도 각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중 소식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법문, 교리 강좌들이 가능해졌고,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 종단 사이버불교대학을 신설하기도 했다.

내 손안의 PC, 세상을 바꾸다

2000년대 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며 세상은 전환점을 맞는다. 모든 사람들이 PC가 아닌 손 안의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정보와 친구와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스님과 재가불자, 일반인의 1:1 소통이 가능해져 적지 않은 반향을 가져왔다. 특히 SNS상 스님들의 진솔한 글과 단상, 상담들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힐링' 이라는 사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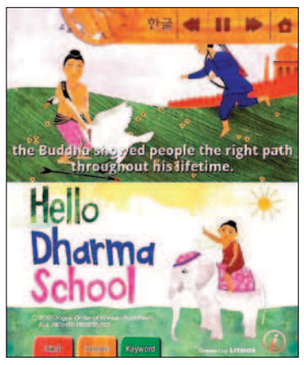
SNS를 통한 힐링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포교의 새 지평이 열렸다. 특히 SNS를 통해 좋은 글귀를 남기고 대중과 소통했던 혜민 스님은 일명 '국민 멘토' 로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혜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출간 7개월 만에 100만부를 돌파, 인문 · 교양 단행본 중 '최단기간 100만부 돌파' 기록을 세웠고 출간 3개월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교보문고 기준) 1위에 올라 16주간 자리를 지켰다. 또한 출간 13개월만에 200만부 돌파로 비소설 단행본 중 '최단 기간 200만부 돌파' 기록을 세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5년 봄부터 서울 인사동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마음치유학교를 만들어 가족을 잃은 사람,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 취업이 어려워 힘든 20대, 이혼의 상처를 겪었던 사람, 어깨가 무거운 40 · 50대 남성 가장, 유산의 아픔을 가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은 함께 전국 명찰을 찾고 법회를 여는 국내 최대의 성지순례 모임으로 인터넷 카페 신행 모임의 전설 같은 곳이다.


인터넷 카페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은 특정 불교서적을 정해 매주 책읽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한 어린이 교육 어플리케이션 '헬로달마스쿨' .

스마트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변화된 신행풍토를 가져왔다. 현재 적지 않은 사찰들과 불교계 단체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찰과 불교계 소식, 불교문화콘텐츠를 전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헬로 달마 스쿨' 을 비롯해 '독경 반야심경' '어린이 마음거울 108' '청소년 마음거울 108' '성불도 놀이' '육바라밀' '응답하라 아바로'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IT 발달은 승가교육 현장도 변화시켰다. 조계종 교육원이 조계종 디지털 대학(www.edubuddha.net)으로 진행 중인 사이버 강좌는 스님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교육원은 2012년 승가대학 2~4학년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개설했다. 이 사이버강좌는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등 각 분야로 구성돼 학인 스님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뜨거웠다.

게시판에 강좌별로 평가를 올리고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강사와 수업 중에 든 의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도 했다. 동영상 강의자료는 다운받아 교재로 사용가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원의 사이버 강좌의 성공은 산중에 위치한 지방승가대학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김천 청암사도 2011년 9월 4일 승가대학과 율원에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는 'Social' 에 주목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 교수는 〈불교평론〉 통권 제52호에 기고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포교' 논문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확장성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 의 예를 들며 "효율적인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멀리 넓힐 수 있는가(관계의 범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할 수 있는가(관계의 빈도), 사람들과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관계의 강도)를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포교의 효과가 높아질 것" 이라면서 "무작정 부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교감하면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포교의 효과가 나타난다" 고 설명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행 생활에 대해서는 콘텐츠 개발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종교 활동은 교리 학습과 공동체 활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행과 관련된 정보나 활동의 비중은 낮은 편" 이라며 "사이버공간에서 수행과 관련된 종교활동이 교리나 공동체 부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여법한 신행 공간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 관련 콘텐츠의 기획과 생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청소년 포교 선택 아닌 필수”…

김영보 前 제주청소년교화연합회장



김영보 前 제주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은 … 1960년 고등학교 시절 관음사서 요양하며 불교에 귀의했고, 1980년 관음사 사무장 소임 당시 ‘10 · 27’ 법난을 경험 했다. 1983년에는 제주불교법우회 회장을 통해 제주불교 신행단체 발전에 노력하다가 청소년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1996년 제주청교련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내 청소년 단체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기여했다. 김 前 회장은 청교련제주지부 설립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도내 유관기관 및 사업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청소년들의 교과외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또한 2010~2014년까지 4년 동안 제주청교련 회장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노력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불교계는 60만 제주도민 가운데 30만이 불자이고, 경남과 부산에 이어 전국서 3번째로 불심이 높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포교는 정체가 아닌 침체에 빠진 현실서 이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6년부터 청소년 포교에 원력을 펼치고 있는 김영보 前 (사)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67)의 신행생활은 귀감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의 삶 자체가 불교고, 수행이기 때문이다. 김 前 회장은 ‘청소년이 잘 사는 게 불교’ 라는 일념으로 청소년 포교 원력을 세워 일선에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원력은 불교 집안인 내력에서 비롯됐다. 불심이 돈독한 집안서 태어난 김 前 회장이 불교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이던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폐결핵을 앓게 된 김 前 회장은 3년 동안 요양차 집 인근에 있던 조계종 제 23교구 본사인 관음사로 들어간다. 산사생활을 하면서 그는 매일 예불을 올리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불교의 참 맛에 빠져 들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 前 회장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도 괜찮겠다’ 라는 발심을 하게 된다.

이후 폐결핵이 호전돼 군 복무를 마친 뒤 출가를 하려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꿈을 접었다. 출가는 무산됐지만, 이 시기가 김 前 회장에겐 불교적 삶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1976년 도내 최초의 신행단체인 제주불교법우회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1980년 관음사 종무소 사무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계에 발을 들여 놓은 것도 바로 이런 인연때문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뜻하지 않게 김 前 회장은 ‘10 · 27 법난’ 에 휘말리며 당시 군경에 의해 고문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관음사 중앙포교당 건물이 완공되면서 사무장을 맡게 됐습니다. 법난 발생 하루 전인 26일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종무소로 출근했는데 총을 찬 두 명의 군인이 저를 종무소로 끌고 간 후 현금출납장부를 뒤지더니 군기무대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 곳에는 이미 당시 관음사 주지인 지선 스님(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관음사 총무국장 연종 스님, 관음사 신도회장 故 고원규 씨도 연행돼 있었습니다.”

고초를 겪고난 이후 김 前 회장의 본격적인 신행활동은 1983년 법우회 회장 소임을 맡으면서 부터다. 관음사 중앙포교당(현 제주은행 본점 맞은편 중앙주차장)서 매주 예불, 천수경 독송, 108참회 등의 참회법회를 열었다.

“이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의무감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참회 법회를 열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매일 매일의 기도와 신행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저의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해야 겠다는 발심도 바로 이때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 관음사 자비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김 前 회장은 그 무렵 관음사 측이 ‘중앙포교당을 없애겠다’ 고 선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자비회원들에겐 제주불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포교당을 더 짓지는 못할망정 없앤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포교당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연화유치원을 비롯해 법우회 등의 신행단체, 대불련, 룸비니 등 청소년 단체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던 지난 1996년 김 前 회장은 ‘불자 청소년들이 봉사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청교련 밖에 없다’ 는 불교계 뉴스를 접하고는 머리를 얻어 맞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 김 前 회장의 청소년 포교 원력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김 前 회장은 바로 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 중앙회에 전화를 걸어 제주지역에 청교련을 창립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청교련 중앙회는 그동안 제주지부를 설립하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던 희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前 회장은 곧바로 김수진 관음사 前 신도회장에게 곧바로 달려갔다. “그때까지 제주도는 청소년 포교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아니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뜩 누가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불교를 짊어질 청소년 포교가 진정한 인재 불사라고 계속 설득했지요.”

청소년이 잘사는게 불교

1996년 제주에 청교련 창립 산파 역할
아시아 축제 개최, 유해환경 감시단 조직
‘끼 Zone’ 동아리 사업 등 인성교육 강화
〈불교가 청소년을 위해 할 일〉 석사 논문
올 9월 전국 청소년지도자대회서 표창

끈질긴 김 前 회장의 구애에 관음사 자비회원들을 모두 이사진으로 등록하고, 고봉식 당시 제주관광대 총장을 초대 지부장에, 조명철 당시 제주시교육장 등을 이사 등으로 운영진을 꾸렸다. 그리고 그해 제주도내 중 · 고생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도덕성을 키워주는 윤리회복실천대회 및 캠페인을 남녕고등학교 체육관서 열고 제주도청까지 캠페인을 벌이며 제주청교련의 첫 출범을 알렸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아시아청소년축제 및 국제캠프대회를 김녕해수욕장 일원서 개최한 가운데 외국인 80명과 전국에서 50명, 제주도 청소년 220명 등 총 350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며 본격적인 청소년 포교에 닻을 올렸다.

“현 불교계의 가장 시급한 포교분야가 바로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격 완성을 향해 나가는 무한한 잠재력의 기간이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세상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라’ 했듯이 제주청교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 현상에 경각심을 갖고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보는 ‘안목’ 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원을 세웠죠.”

김 前 회장은 15년 동안 제주청교련 임원직을 묵묵히 수행하다 지난 2010년 1월 회장 소임을 맡으면서 청소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관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는데 힘써 왔다. 1998년 12월 5일부터는 우리문화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서바이벌 퀴즈’ 를 실시했다. 급격히 확산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퀴즈대회 준비과정을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1999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징검다리인 YP(청소년 스스로지킴이) 운동,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조직을 해 나갔다. 이후 2001년에는 사이버지킴이(cyber keeper) 활동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요소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는 ‘끼 Zone’ 동아리 문화존 사업과 부처님 가르침을 한지 위에 표현해보는 초 · 중 · 고생 서예백일장 대회 등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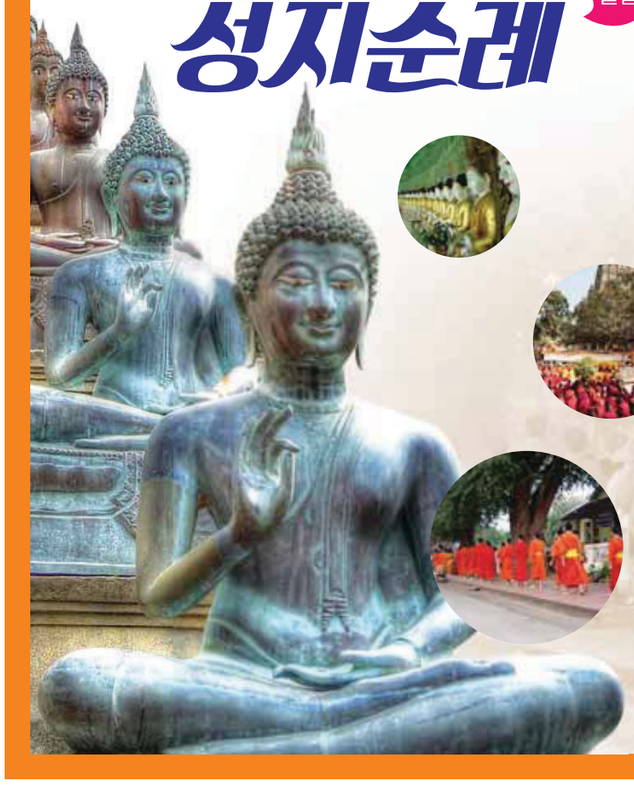
제주청교련 활동을 왕성하게 할 무렵 김 前 회장은 지도자 연수 교육 차 서울을 방문했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그는 자명 스님(서울 마하보리사 주지)과의 운명적 만남을 가진다. 동국대 김성철 교수가 자명 스님의 수행력을 높이 전했기 때문에 더욱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청교련 지도자 연수가 끝난 후 그는 늦은 밤 11시 30분 자명 스님을 친견했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김 전 회장이 처음 ‘인연’ 에 대해 물어보자 스님은 “거사님, 인연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어 김 회장이 “스님, 그럼 불교가 뭡니까?”라고 묻자 스님은 “평등입니다”라고 답하자 김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대단한 스님을 만났다. 이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야겠다’ 고 다짐 한 후 ‘불교가 평등하다’ 는 그 참 진리를 들어봐야겠다고 싶었다. 다음날 다시 스님을 찾아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스님의 “일주일에 두 번만 오세요”라는 말씀에 거리상 스님을 제주도로 모시고 와서 공부하기로 했다. 이후 제주도내 불자들이 자명 스님을 모시고 1주일에 이틀 동안 늘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불자들은 많이 모였지만 스님의 충격적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배워왔던 불교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스님 말씀이 들을 땐 그럴 듯하지만 조금 있으면 생활 속 습에 의해 잊혀 버렸던 거죠. 하지만 불교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前 회장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청소년 포교에도 스님의 가르침을 활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실은 자명 스님과 여름 및 겨울 방학 때 대불련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며 신행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안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미얀마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꿈펼칠 마당 마련 '진정한 불사'


올해 9월 전국청소년 지도자 대회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김영보 前 제주청교련 회장.



2012년 시민포교당서 열린 봉축 기념 점등법회. 사진 맨 왼쪽이 김영보 前 회장이다.



2013년 4월 열린 제주 청소년 문화제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영보 前 제주청교련 회장.



청소년들과 함께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을 펼친뒤 김前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모습.

"학생들에게 스님의 끊임없는 학구열은 큰 귀감이 됐습니다. 스님은 학력도 전법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방송통신대, 동국대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등 늦은 나이지만 전법에 필요한 토대를 닦아 놓으면서 스펙(?)을 넓혀 나가셨습니다. 스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과 청소년들도 함께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도 자연스레 조성이 됐지요."

그리고 김 前 회장이 더욱 공부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떡집을 운영하고 있던 저에게 하루는 스님이 '떡장사한테 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더군요. 기분이 나쁘기 보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라는 경책이셨지요." 즉시 김 前 회장은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처음 대학 문을 두드렸다.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제주지역대학을 4년 반 만에 졸업했다. 한번 일으켜진 향학열은 계속 이어졌다. 그 해에 바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해 매주 이틀 씩 서울을 오가며 2년 반 만에 〈한국불교 청소년 포교 필요성 연구〉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오기와 집념이 이뤄낸 큰 성과였다. 김 前 회장은 "석사학위는 시험만 보면 취득 할 수 있지만 석사 논문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청교련 활동을 하면서 '과연 불교가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화두였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행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에겐 중요한 과제 였거든요. 청교련 창립은 처음에 불교 포교의 입장서 시작했지만, 결국 청소년들이 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불교가 잘사는 길 아닙니까?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포교의 근본 목적이라는 걸 절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명 스님을 통해 불교 인생의 진로를 찾게된 김 前 회장은 큰 스님들의 통찰력 있는 즉문즉설로 불자들, 학부모, 청소년들이 갖는 일상적 마음 고민 해결을 위한 자리도 만들었다. 혜국 스님을 시작으로 자명 스님 등 선지식들을 초청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콘서트에서는 어렵기만 하고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학교폭력과 불자들의 고민을 알기 쉽고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포교'를 화두로 20여년 간 청소년 교화에 힘써온 김 前 회장은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올해 9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주최로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서 열린 '전국 청소년지도자대회'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기 앞서 청소년들이 꿈을 원 없이 펼쳐볼 수 있도록 마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불사'라고 주장하는 김 前 회장.

"불교가, 가정이, 사회가 바로 서려면 청소년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부처님이 어리석고 우쭐하던 '주리반특가' '라훌라' '야사' 등을 바르게 인도했듯이 제주청교련도 청소년들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부처님의 바른 길로 이끌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회향도 역시 청소년 포교에 힘이 닿는 한 계속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특히 김 前 회장은 지난 2012년에 도내 불자들의 도심법당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포교에 큰 역할을 한 시민포교원 법당을 광양로터리 인근 이도1동 인화당한약방 2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법당을 조성했다. 부처님 이운 봉불 법회가지 여법히 봉행하며 수행 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아직도 새벽 4시 30분이면 시민포교당서 어김없이 새벽예불을 올리는 김 前 회장은 부처님의 성도재일 등 21일(3 · 7일)마다 하루 3씩 고성염불로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항상 살피며 삶의 변화를 이끌며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화두는 결국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망상이 일어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쁨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 두 개의 양면처럼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사라지더군요. 노력해서 투자한 만큼 공덕도 쌓입니다."

김 前 회장에게 고성염불 수행은 스스로 열심히 수행정진해 마음을 가다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부처님과 보살의 마음을 닮아 가는 것이라고 할까. 수행의 덕분인지 최근 김 前 회장은 건강관리센터에서 받은 검진 결과, 스트레스가 제로라는 판정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본래 내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무소의 뿔처럼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전법의 길에 나선다.

글=김주일 기자 · 제주불교신문 이병철 기자

전법일기

외딴 섬 불자들의 내륙 성지순례

국토 서북단의 백령도는 개신교의 성지라 불릴만한 곳으로 교회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이에 따른 텃세도 있는 곳이다. 그러나 보니 마을 주민들도 원래 불자여도 어지간히 굳건한 마음이 아니면 사찰을 찾기 어렵다.

몽운사에서 해수관음보살 점안법회를 성대히 회향한 후 백령도가 고향인 원주민들과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잦기 시작했다. 수년이 지나면서 몽운사를 통해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접한 불자들이 늘어났고, 몇 명이 되지 않지만 더욱 뭉쳐서 신행생활을 해 나갔다. 앞서 설명했듯이 종교 텃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억척스러울 정도로 열심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도들도 백령도가 개신교의 성지인 탓에 관광으로 온 기독교 순례객과 더불어 백령도 주민들이 다니는 성지순례를 보며 내심 부러웠나 보다.

어느날이 었다. 한 노 보살님이 "스님, 우리도 불교 성지순례를 다니면 안될까요"라고 말했다.

이런 백짓장과도 같은 순수한 불자님들을 어디로부터 안내를 하면 좋을까 궁리를 했다. 가장 먼저 삼보사찰을 비롯한 국내 성지순례를 가기로 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했다. 총 일정은 4박5일 간이었다.

버스는 백령도 도항선이 정박하는 인천항에서 타고 그야말로 바다 건너 산넘고 강건너는 해외성지순례가 시작된 것이다. 백령도는 작은 섬이기에 많은 신도들이 오랜 시간 버스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말로만 듣고 TV로만 보았던 통도사의 금강계단, 해인사의 대장경, 송광사의 새벽예불 등을 보고 감탄을 토했다.

특히 템플스테이를 하며 스님들과 함께 사찰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찰에서의 생활과 오신채를 뺀 식생활 등은 많은 신도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 사찰에서의 생활이 처음인 이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던 모양이었다. 몇몇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먹거리를 찾아 밤늦게 몰래 마실 다녀오는 애교스런 일탈도 있었다. 하지만 못본체, 모른척하였다.

4박5일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기에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이들의 몰골은 초췌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일 지경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일정이 오로지 사찰에만 해결하는 성지순례였기 때문이었다.

한 불자는 다가와서 말했다. "스님, 사찰에서만 밥을 먹으니 너무 힘듭니다. 조금 쉬었다 가시지요."

하지만 다른 모든 불자들이 기왕 진행한 성지순례, 더 많은 사찰을 가보자고 재촉했다.

이들의 환희심은 그 어느때 보다 높았다. 기독교계의 득세로 인해 그동안 한없이 위축됐지만, 성지순례를 통해 1700년 동안 찬란하게 꽃피운 우리의 불교문화를 느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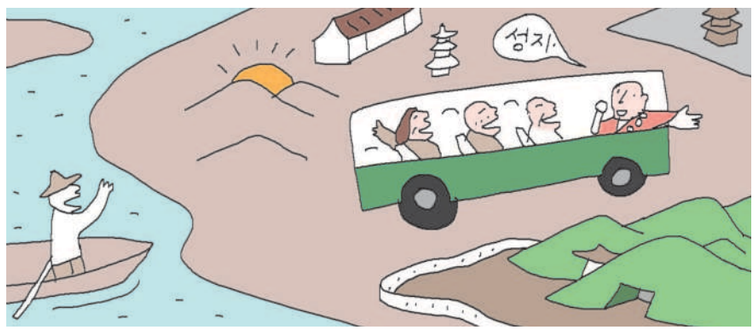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한 거사님은 회향에 즈음하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불교가, 그리고 우리 섬의 몽운사가 별 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번 사찰순례를 통해, 작은 사찰인 몽운사도 정말 소중한 도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자가 된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큰 박수가 쏟아졌다.

백령도의 불자들은 한 마음으로 2차 순례를 기약하였다. 이들은 그 때의 감동을 가지고 열심히 신행생활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의 순례가 활성화 되어 있다. 힘든 여정이지만 이들은 이런 성지순례도 수행이라 생각한다. 한국불교도 많은 도서 지역에 사찰이 있다. 도서 지역 불자들의 내륙 성지순례와 함께 내륙 불자들의 도서 지역 성지순례도 활성화 되길 바란다.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







평화통일사 위임 공고 (돈거래 없는 위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7번지 (76-35)
전화 031)952-7031 / 핸드폰 010-9415-5818
대한불교조계종 성자 이차돈 선양회 / 평화통일사 일선 윤동암

상기와 같은 주소와 절명은 틀림이 없으며 상기자는 10.27법난 피해자로서 인하여 35년간 휠체어로 생활하며 가람수호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 년령 차이 없이 학득 차별 없이 신심이 돈독한 비구니 스님을 주지로 모시겠습니다. 주지스님이 오시면 평화통일사 주지로 위임하고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삼직을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비구니 및 신도 통일선원을 개설하고자 각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신심을 다하시면 됩니다. 임진각 부근 통일로 부근 태극기 30여개가 크게 게양되어 있어 통일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오도산 산 밑에 아담한 평화통일사가 자리잡은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신도는 100명이상 됩니다. 신도는 주지스님의 노력에 많고 적고 합니다. 서울과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전철도 있고 직행버스도 있고 서울까지 교통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돈은 받지 않으니 물질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지 위임을 합니다. 일평생 주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휠체어 타고서 생활하는 소납은 조계종 종정을 세번 역임하신 윤고암 대종사님을 은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수계도 받았습니다. 자비보살입니다. 근간 불교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12선사 중 한분입니다. 큰스님을 은법사로서 시봉을 5년간 직접한 바 있는 납자입니다. 뜻이 있는 스님은 속히 왕림하시도록 바라며 선착순으로 할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2015년 11월 12일

한국불교예술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성자 이차돈 선양회 총재
서부전선 호국 대선사
세계불교사회평화봉사회 총재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재단 고문
세계평화 법륜대행진 한국승가 푸른부대본부 대표

평화통일사 윤동암 올림

조계종 대덕스님들께서 많이 찾아오신 절입니다.

본래자성불 父하고 지금 현재 자기 子하고 상봉을 해야!

(지난 호에 이어서)

또 어떤 스님이 있었더랍니다. 그 스님은 가르치느라고, 지금도 낚싯대를, 낚싯밥을 주욱 걸어 놓고는 '요기에 모두 걸리지 않나, 걸리나?' 하고 그렇게 선조들께서 해 놓으셨죠. 천칠백 공안이니 뭐 여러 가지로 해 놓고, 천칠백 공안밖엔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어느 거 공안 아닌 게 없죠. 해탈 아닌 것도 없고 도량 아닌 데도 없고, 나 아님도 없고, 모두가 그런 도리죠. 그런데 주욱 앉혀 놓고 하는 소리가 "너, 쌀 아닌 쌀을 아느냐?" 이러니깐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쌀 까지 않은 게 쌀 아닌 쌀이죠." 했단 말입니다. 허허허. 그것도 맞죠, 맞기야. 응. 하지만 그거하곤 정반대죠. 그래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너는 그 쌀을 씻어서 밥을 할 때에 밥을 하지 않고 밥을 할 줄 아느냐?" 아, 그러고 물으니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너는 밥 아닌 밥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저 "밥 아닌 밥은 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저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 처사 말하듯이 "그냥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지. "음, 너는 그래도 좀 뼈다귀라도 얻은 듯하구나." 이러더라는 거죠. "저것들은 모습, 가죽도 얻지 못했어." 그러고. 그랬는데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먹는 사이 없이 먹을 줄 아느냐?"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나가더니 수박 한 통을 턱 쪼개 가지고 터억 갖다 놓고는 삼배를 올리고 가만히 앉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대뇌의 (머리의 왼쪽과 오른쪽을 차례로 짚으시며) 잠재의식 쪽, 현재 의식 쪽이 다 계합이 됐구나, 하더랍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계합이 됐구나!" 이러고선 "너는 참 골수를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때에 껄껄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무걸 떠다 대도 되겠죠. 그리고 이 도리를 공부하면 책을 봐도 벌써 심심하고요, 그 몇 구절 이럭하면 '아,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뜻으로 나오지 말로, 이론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요. 거기 그 뜻에 다 있는 걸요.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앞으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좀 더 살림에 끄달리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은 넓게 보면 나그네요, 좁게 보면 한 철, 찰나, 하루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다' 이런 뜻을 아십니까? 어떠한 뜻입니까? '하루살이다' 하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살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나 모두가.

시공이 돌아가는데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 이 소리는 '여러분이 초월해서 돌아가라. 거길 따라서 돌아가라.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걸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라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루도 안 들어가니까. 찰나다 이겁니다. 찰나! 여러분이 찰나찰나 사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금방 드러누웠다 금방 일어났다, 뭐 금방 전등 켰다가 금방 또 딴 사람 만났다가, 금방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찰나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루라는 게 거기 왜 들어갑니까, 응?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모기더러 말입니다. "술 한잔 먹자." 하니까 모기가 "내일 술 한잔 먹자."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도 있냐?" 그러더라는 거지. 허허허.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진정코 믿는데도 참 그게 일이 영 안 풀리고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모두 당신네들 탓이다 이겁니다. 왜? 그만큼, 가만히 시험을 해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자기 주인공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고 한 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야! 정성을 지극히 들이고 갔는데 고만 자기가 아프거나, 고만 일이 안 됐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긁어서 부스럼 만든 겁니다, 그게. 왜?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했느냐? '에이, 그것 아리송하고 그거 뭐야? 체계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그냥 불신하고 생각을 할 때 잘못하니까, 그건 자기가 똑바로 가르치려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지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삐뚜로 나가지 않도록, 오직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부터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영혼은 바로 엄마 아버지의 정자 난자에 배합이 돼서 삼합이 합해져서 탄생을 하는 거다. 임신이 되는 거다. 자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임신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합해져도 영혼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삼신이라고 했고, 삼신이 받아들여야, 삼신이 합해져야 임신을 한다고 그래서 삼신에게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삼신도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생각에서 여러 가지 찰나찰나 하시듯이 그렇게 보살의 이름도 많고 부처님의 이름도 많지만,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시고 보살의 그 많은 이름도 바로 부처님의 화신(化身)인 이름일 뿐입니다, 다. 그냥, 전체가. 그러니 화신 보살한테 부처님께서는 핵이 돼서 말입니다, 핵이 돼서 위도 아래도 없는 중도(中道)의 밥그릇에다가 밥을 한 그릇을 준 것은, 즉 말하자면 보살한테는 칠보가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주고도 줄지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항상 내고 들이고 해도 항상 되남더라, 이런 게 보살의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모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화신들이다.' 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게 부처님이니까. 진리입니다. 하도 이름이 많고 나 아님이 없으니까 뭘로 부처를 세울 게 있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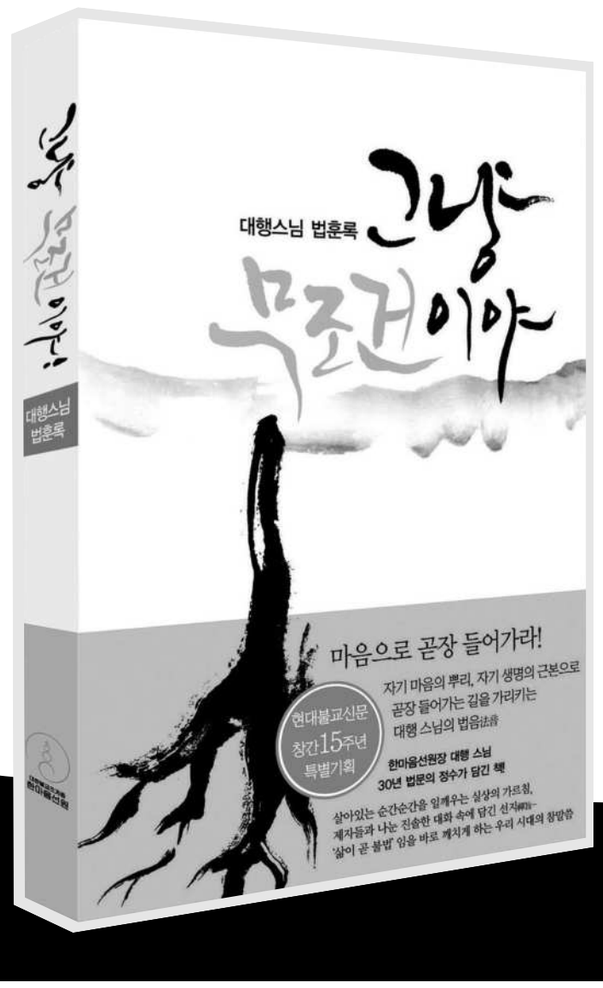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여러분이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 식구가 그저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친구를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자식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부인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마음의 본래자성불은 한마음이 붙어서 서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아주 견고한 마음으로서 항상 진짜로 믿고 행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아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고라는 걸, 자기 몸에서 고라는 거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어디 가서 털퍼덕 앉아도 하나도 걱정이 없고, 먼지 앉을까 봐 걱정 없고, 먼지가 묻을까 봐 걱정도 없고, 기생이 와서 안겨도 걱정이 없고, 내 마음은 물들지 않아. 취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안기면 그냥 붙들고는 죽자 사자 하고 그러니 사고가 안 나, 응? 벌써 껌새를 채지. 이러니 모두, 허허. 에휴, 에휴, 참! (대중 웃음) 여러분이 바보예요, 모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편리하고 남을 이익 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랬더래요. 어떤 한 가련한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서 딸이 사는데, 그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너무 착하게 하니까, 어느 스님이 가다가 참, 불쌍하고 안됐거든요. 마음으로나 뜻으로나 그냥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나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바로 삼매가 될 수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보시를 듬뿍 한 겁니다. 듬뿍 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시집가고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을 해 가지고 살림을 다 해 나가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거는 진짜 행(行) 보시며 바로 마음의 보시가 그렇게 컸던 거죠.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이쪽은 이쪽대로 병들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병들게 하는 그런 마구니가 되지 마세요! 네? 그런다면은 정말 이거는 여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모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보시는 그게 아닙니다. 모두, 내가 이런 게 (합장하시며) 다 보시지 보시 좋아하시지 마세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효 대사가 파계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처음에, 예전에는 장질부사를 많이 앓아서 죽으면 송장을 원두막에다 갖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넣고는, 먹을 거 갖다가 넣고는 돌보지 않습니다, 갖다 버렸지.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들어갔거든요. 컴컴한 데 거기 들어가서 터억 드러누워서 그냥 곯아떨어졌는데, 아주 목이 말라서 배는 고프고 그랬으니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도 무척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거기에 장구벌레가 잔뜩 들고, 물이 그냥 하나 고인데다가 지붕은 새고 그러니깐 그냥 전부 고였거든요, 썩어서. 그런 거를 맛있게 먹고는 터억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구벌레가 우글우글하더라는 겁니다. 그 장구벌레를 물하고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구역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자 구역질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몰랐고,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내가 지금은 보고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아예 이 해골바가지로 인해서 도를 깨쳤으니까 의상 조사는 의상 조사대로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당나라에 공부하러 안 갔던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낸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는 얘깁니다. 이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이것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두를, 이거 배우기 전에 화두를 갖고 하지 말고, 내 몸뚱이를 화두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또 한번은 대안 대사(大安大師)가, 즉 말하자면 늑대 새끼가 죽어서 아, 좋은 데로 가라고 염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갖다가 턱 놓더니 젖을 먹이더라 이거야. 그 죽은 데다 먹인 게 아니라 산 새끼한테다 먹이면서 이게 바로 천도다 이거야. 거기에서 또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고 관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해 드리죠. 만약에 젖을 먹이는 것이 방편이고, 내가 그 의식을 갖다가 나한테다가 넣었다고 본다면, 둘이 아니라면 그 무명만 죽였지 바로 내가 된 겁니다. 내 속에 넣었으니 내가 된 겁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항상 그렇죠. 좋은 데로 가게 하려면 내 주인공에 넣으면은 그대로다. 그대로 요리가 돼서, 벌써 거기서 한 바퀴 굴려서, 굴려 가지고선 천도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도 또 줄지 않죠. 넣어도 그건 체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떠 먹여도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그러니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이 마음은 체가 없다. 의식 자체가 체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도리를 스스로 증득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관문이 될 수 있죠. 화두가 될 수 있고요.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항상 그렇죠.
좋은 데로 가게 하려면 내 주인공에 넣으면은 그대로다.
그대로 요리가 돼서, 벌써 거기서 한 바퀴 굴려서,
굴려 가지고선 천도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애가도 불렀는데 "도끼 없는 도끼를 어느 누구가 자루를 맞춰 주랴? 그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련만…."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도 관문이 되고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도끼 없는 도끼의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 하늘을 받치련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자루를 맞춰 줬더군요. 아, 그러고선 하늘을 받쳤더군요. 그래서 신라가 그렇게 됐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원효 대사도 원효 대사답지 않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소?" 했어요.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앞으로 아주 재빠르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이나 서독이나, 내가 알기로는 서독이나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마음을 갈구하고 있어요. 아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절마다 기복이고, 절마다 죄를 씌워 주고 있어요. 한 민족이면서도 한 불자면서도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이게 전부 불자지, 불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입니다. 좋은 말 해 주는 거를 교(敎)라고 하니, 그러니 바로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발로 몇백 번을 뛰어 봤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지금 세대에. 이 마음이 한번 뛸 때는 저런 타의 국(國)에도, 국이라는 건 지금 시쳇말로는 혹성을 말하는 겁니다, 타국(他國)을. 부처님께서는 그때 모두 모르니까 타국이라고 그랬죠. 서천국이니 타국이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타국에서도, 타국 보살들 일체가 다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찰나찰나 들고 납니다, 우리의 한생각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뛰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된다면,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보살이며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부처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는 한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깨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한자리니까요. 그거를 표현해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죠. 다보탑(多子塔 다자탑)에 같이 이렇게 앉은 그런 이치가 있죠. 아마 경을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난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죠. 다보탑에 이렇게 한자리를 했죠. 반 자리를 내놓고, 반 자리를 내놔 준 뜻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자리가 두 자리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치면 두 자리 아니고, 깨치지 못하면 중생들이며, 이건 천차만별로 벌어진 그 자리가 그렇게 고역인데다 끄달리고, 그렇게 많은 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도리를 아신다면, 아까 이 기초적인 문제에서 제일 그게 중요하다고 한 그 뜻을 잘 아신다면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말 한대도 뒤집어쓸 필요도 없고, 뒤집어 씌어서 받을 필요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지옥에 든 일도 그건 풀려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옥고가 무너지는데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마음으로 육체가 움죽거리게 돼 있지, 육체로부터 마음이 움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육체로부터 마음이 움죽거리고 마음으로부터 육체가 움죽거리고, 그렇게 둘이 아니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한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항상 중심에다가 두십시오. 중심은 여러분이 깨치지 못했으면 중심이고 깨쳤다면 중도입니다. 또 깨쳤다면 중용이고 깨치지 못했다면은 활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한 도량에 한 도반으로서 공부하시자는 거지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앉았을 때는 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일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요.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여러분이 와서 용건을 얘기하고 대답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왜냐? 그것은 비밀이니까 말로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다 공부하신다면 내 속을 다 알아서 같이 아마 등장할지도 모르죠. 여기서 몸뚱이는 항상 말을 하고 보고 이러면서도 삼매에 드는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드는 것이 삼매가 아닙니다. 눈 뜨고, 그냥 치켜뜨지도 말고 내려뜨지도 않는 도리가 바로 그게 삼매입니다. 그 도리를 말한 거지 진짜 눈을 그렇게 뜨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선이요, 일상생활에서 화두요, 일상생활에서 바로 중용이 나오고 그대로, 나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바로 삼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여기서는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가도 하나로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나투는 거, 수없이 화(化)하는 거. 천백억화신이 다, 사람들이 산신을 원하면 산신의 모습으로 화해서 응해 주시고, 또 칠성을 원하면 칠성으로 모습을 나투어서 또 응해 주시고, 또는 독성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응해 주시고, 자꾸 몸을 화해서 보이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화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응해 주신다. 그래서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이 응해 주신다 이러는데, 삼십(三十)이라는 거는 숫자로 말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가사의한 법 그거는 저런 혹성도 바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이치도 있지마는 만약에 내가 한생각을 하면은 타국에 있는 보살들도 또 어떠한 부처님들도 다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생각에, 한 찰나에 드셨다가 한 찰나에 나시고 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도리와 법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신다면, 인간 된 도리에 정말이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됐다면 그쯤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모습 없는 사람이나 모습 있는 사람이나 다 응해서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일입니다. 건지는데 건지는 것도 공해서 내가 한 일이 없노라. 내가 한 일도 아니요, 내가 안 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는 이름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팔십종호(八十種好)라고 했죠. 응? '종'도 '호'니라 이거야. '종'이라는 그 말 자체도 '호'다 이거야. 단군할아버지는 또 일상생활에서의 사람 됨됨을 가르치셨고 또 남긴 거는 팔십일 자를 남겼습니다. 처음하고 끄트머리만 얘기해도 그거는 전부 알 바가 있는 겁니다. 팔십종호라고 말씀하신 분이나 팔십일 자를 남기신 그분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일시무시(一始無始), 일종무종(一終無終)! 얼마나 그게 다양합니까? 뭐가 다릅니까? 일시(一始)가 무시(無始)고 허허, 일종(一終)이 무종(無終)이다 이거야. 그랬으니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그분들 석가세존이나 단군할아버지나, 우리네 육의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이 전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써,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조상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조상까지도 둘이 아니다 이거야. 내 조상이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이거든요. 그러니 본래자성불 아버지하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식하고 상봉을 하십시오. 모두 상봉을 해야 합니다. 남북이 터져서 상봉을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한몸 안에, 부(父)와 자(子)가 있으면 한몸 안에서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와 자가 상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1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